현대불교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5년(서기 2001년) 6월 13일 수요일 (주간) 제 322 호



금주 법구

불현듯 일어나는 한 생각 악한 뜻이
되돌아 스스로를 파괴함이
쇠에서 생긴 녹이 다른 곳 가기 전에
도리어 쇠붙이를 파괴함과 같다네.
-법구경-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환경포기의 날' 선포

99년부터 정부와 환경단체가 합동으로 개최해 온 '환경의 날' 행사가 올해는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입장차이로 서울 세종문화회관 안과 밖에서 각각 따로 열렸다. 지난해 정부가 동강댐을 백지화하고, 환경선언까지 발표하자 환경국가로의 기대를 가졌던 종교 환경단체들은 5일 세종문화회관 밖인 분수대광장에서 '환경 포기의 날' 선포식을 개최했다.

불교환경교육원 유정길 국장은 결의문을 통해 "새만금 갯벌의 수많은 생명을 살육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가졌는가"라고 되물으며 "새만금을 지키지 못한 참담한 심정으로 '환경을 포기한 환경의 날'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만경강 앞바다에 제방을 쌓아 여의도 140배 크기의 농지와 담수호를 만드는 새만금 간척사업은 정부가 친환경적 순차개발이라는 최종결정을 내렸지만 아직도 지속추진의 당위성에 여전히 의문의 꼬리를 달고 있는 등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부는 통일 이후 부족한 식량자원과 전북지역의 극심한 식수난을 해결키 위한 수자원 마련을 위해 갯벌간척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단체들이 주장하는 새만금 사업 반대 이유는 이 문제가 절대로 서해안 갯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다. 식량자원과 수자원 확보가 단기적으로 볼 때는 유용하고 이득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연이 살아 있지 않고는 절대로 인간도 살아갈 수 없기에 새만금 보존이 필수라는 것이다. 제어감각을 잃어버린 산업기계문명이 회복하기 힘든 자연파괴와 인간성 상실을 몰고 왔듯이 결국 개발논리는 인간의 삶도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그만큼 새만금 간척사업 문제는 인간의 삶이 뭇 생명들과 공생하는 자비의 삶으로 이행될 것인가, 아니면 끝없는 욕망과 시기 질시의 경쟁의 삶으로 떨어지고 말 것인가 라는 중요한 선택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새만금 갯벌연대 집행위원장인 수경스님은 "단군 이래 최대의 간척 토목사업으로 불리는 새만금 사업의 강행 또는 포기 여부에 따라 환경정책은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된다"며 "정부가 생명파괴와 물질만능의 가치관에 입각한 개발의 망상을 극복하고 공생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갯벌 간척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우(취재 1부 차장)

"백제 관음상 아스카 대표불상" "법륭사 목탑 독자 조성"

日 역사 교과서 불교도 '왜곡'

'한반도서 불교전래' 의도적 누락

역사왜곡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 우익단체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쪽이 집필하고 후쇼샤(扶桑社)가 펴낸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신 일본 교과서〉가, 한·일 불교문화사 기술 부분도 상당 부분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조차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4일부터 시판에 들어간 이 교과서는, 일본의 고대 불교문화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당시 한반도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시대별 대표적 문화재를 다룬 회보 중 법륭사의 '백제관음상' 설명에서 "백제관음상은 아스카 문화를 대표하는 불상으로 녹나무는 중국, 조선에서 자생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만들어졌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영우 교수(국민대학교 산림자원학과)는 "녹나무는 따뜻한 지방에서 자라는 상록수로 중국뿐 아니라 우리 나라 제주도와 남해안에도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어느 수목도감을 봐도 나올 정도로 상식에 가까운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명대 교수(동국대 미술학과)는 "'백제관음상은 '백제관음'이라는 옛 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 백제불상 양식을 빼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며 "백제관음상뿐만 아니라 이 절에 있는 몽전구세관음상 역시 백제인이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목탑인 법륭사 오층탑(일본식 표기는 오중탑)은 조형적 특성으로 볼 때 백제 목탑의 영향이 짙게 배어 있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다. 그러나 교과서에서는 "…일본에서 독자적으로 발전되었다"고 기술하며 오층탑이 일본 고유 양식으로 조성됐음을 주장하고 있다. 정병모 경주대 교수는 "일본은 6세기 아스카 시대에 백제를 통해 불교를 받아들였고, 이 때 백제의 건축기술도 전해져서 법륭사 5층탑에서는 한국에 남아있지 않은 백제 목탑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내용을 축소하거나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부분도 보인다. 아스카 문화에 대한 설명에서 교과서는, 성덕태자가 건립한 법륭사에는 백제인이 만들었다고 알려진 불상 등 각종 문화재가 남아있으나 이를 생략한 채 오히려 "…조화롭고 아름다운 5층탑이나 금당은 중국에서는 보이지 않는 독특한 배치"임을 내세우고 있다.

나라시대 불교문화를 설명하면서도 "불교는 나라의 보호를 받아 발전하였다. 인도나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불교의 이론을 연구하고…"라고 기술해 한반도에서의 불교전래를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 2면으로 계속

◇후쇼사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대표적 왜곡 사례

항 목	교과서 내용	바로 잡아야 할 내용
백제관음상	아스카 문화를 대표하는 불상으로… 녹나무는 중국, 조선에서 자생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만들어졌다	녹나무는 제주도, 중국 등지에서도 자생하는 상록수. 백제관음상은 그 양식으로 볼 때 백제인이 만든 것으로 봄.
법륭사 오층목탑	…일본에서 독자적으로 발전되었다	일본은 아스카 시대에 백제를 통해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건축양식이나 기법을 받아들여 목탑을 조성했다는 것이 역사학계의 통설.
아스카 문화	법륭사는… 5층탑이나 금당은 중국에서는 보이지 않는 독특한 배치…	
나라 시대	불교는 나라의 보호를 받아 발전하였다. 인도나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불교의 이론을 연구하고…	한반도에서의 불교 전래에 대해 의도적으로 누락

지역불교 문화기행

윤사월 적멸보궁 3寺순례

윤사월 부처님과의 인연을 두텁게 하며 업장소멸과 공덕쌓기를 발원하는 삼사(三寺) 순례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길게 뻗은 전나무 숲길로 유명한 월정사에서는 8각9층탑(국보 제48호)과 5월 23일부터 윤사월 한달간만 성보박물관에서 공개하는 부처님 진신사리(眞身舍利)를 친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상원사 적멸보궁에서는 자신의 언행을 참회하고 업장소멸을 발원하는 기도정진의 시간도 마련됩니다.

6월: 월정사 · 상원사 · 법흥사



웅장한 숲과 기암괴석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구산선문의 중심도량 사자산 법흥사에서는 선풍진작을 위해 치열하게 구도정진했던 선지식들의 향훈을 느껴보십시오.

◇출 발: 6월 17일(일) 오전 7시 조계사 앞
◇회 비: 4만원(중식제공)
◇접 수 처: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3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호)

●주 최 : 현대불교신문사 ●후 원 : (주)한화여행



"극락왕생 하소서" 금강경 독송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금강경 독송회(회장 김재웅) 회원 100여명은 6일 서울 흑석동 국립묘지 무명용사비 앞에서 조국을 위해 산화한 영령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한마음으로 금강경을 독송했다.

사진= 고영배 기자

금강산서 6·15 통일 토론회

불교대표 15명 참가 … 종교인 대회도 추진

불교 개신교 등 7개 종교와 민족화해협의회, 통일연대 등으로 구성으로 구성된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2001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공동대표 정대 조계종 총무원장 외, 추진본부)는 15~16일 금강산에서 북측 종교와 정당·사회단체와 함께 대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의 주제는 '6·15 공동선언과 민족의 과제'이며, 남북에서 대표단 각 200명과 남측 참관단 200명 등 모두 6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남북 대표 1명씩의 연설과 6명씩 발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불교계에서는 대표단 및 참관단으로 15명이 참가하며, 조선불교도연맹과의 회동도 예상된다.

또 6·15 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서울과 평양에서 각각 진행된다. 이와는 별도로 7개 종교로 구성된 온겨레손잡기운동본부는 25일쯤 남북한 종교인들이 함께 하는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 종교인대회'를 추진중이다.

정성운 기자 swung@buddhapia.com

남북 6·15 동시법회 공동발원문도 낭독

6·15 남북공동선언의 실천을 다짐하는 법회가 남북의 모든 사찰에서 봉행된다. 또 이날 남북불교도 공동발원문도 낭독된다. 종단협의회는 7일 조불련에 공동발원문 수정본을 보내고 "남북불교도 동시법회는 전국 각 사찰별로 15일에 봉행하고, 공동발원문을 낭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정본은 "평일조국, 현세의 지상정토를 하루빨리 앞아오기 위해 공동선언을 계속 철저히 실천해 나가려는 서원을 부처님전에 발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성운 기자

연등축제 최우수상 한마음선원 받아

봉축위원회(위원장 정대 조계종 총무원장)는 7일 불교회관에서 불기 2545년 연등축제 참가단체 시상식을 봉행하고 한마음선원 등 19개 사찰과 단체에 상패와 상금을 수여했다.

최우수상인 봉축상에는 한마음선원, 연등상(우수상)은 청량사, 정진상은 능인선원 조계사 봉은사 우리는선우 영화사 성심사, 또 진각종과 사자암 한마음선원청년회와 중고등학생회 조계종복지재단이 부문상을 수상했다.

봉축위원회는 또 정기자 불교레크리레이션협회 부회장, 김순임 불교합창단연합회장, 장수연 불교방송 아나운서가 연등축제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패를 받았다. 정성운 기자

장 군 죽 비

◇조계종 총무원 달라이 라마 방한 허용 촉구 성명 내기로. 모든 불제자들의 공통 정부는 '자비와 평화'임을 명심하자. (2면)

◇악화일로에 있는 물 부족 문제, 해법은 무엇인가? 치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 관리'. 욕망의 통제만이 근본책. (8면)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남북회해 발원 토론회. 중생의 고통을 덜어 주고 역사에 헌신하는 종교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기를. (9면)

◇참여불교 재가연대, 불교 생태공동체 건설 본격화. 지역 사회봉사활동 등을 시작으로 2003년에는 '청도평화학교' 개교키로. (23면)

'오도송'으로 보는 한국 禪 12면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윤년수의」

좋은 수의를 장만하는 일이야 말로 진정한 효의 실천입니다.
수의(壽衣) 중에서도 윤년수의(閏年壽衣)는 탈이 없고 손이 없어 부모님의 무병장수(無病長壽)를기원(起源)하는 최상(最上)의 수의(壽衣)로 손꼽힙니다.



- 남자 - 도포, 두루마기, 저고리, 속저고리, 속바지, 바지, 이불, 요, 장매, 악수, 버선, 도포끈, 베개, 허리띠, 댓님, 오낭, 면모, 탈전, 턱받이, 면포 (총 20종)
- 여자 - 원삼, 저고리, 속저고리, 속바지, 바지, 속치마, 치마, 이불, 요, 장매, 베개, 원삼띠, 면모, 악수, 버선, 오낭, 턱받이, 면포 (총 18종)



▲ 오동나무 박스


▲ 함나무 박스

불자님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선착순 100분에게 맞춤수의와 삼베 침구세트를 증정하여 드립니다. (삼베 特品이상)

품 명	구 성	재 질	백화점가격	불자님가격	특 별 혜 택
삼베 二品	남 30종, 여18종	삼베의 불순물을 3회 이상 제거한 후 제조된 순수 삼베 100% 제품	600,000원	550,000원	10개월 무이자, 오동나무 박스 포함
삼베 一品	남 30종, 여18종	삼베의 불순물을 3회 이상 제거한 후 장심후로 제조된 순수 삼베 100% 제품	900,000원	798,000원	6개월 무이자, 오동나무 박스 포함
삼베 特品	남 30종, 여18종	만등 삼베에서 재일한 베이 100% 원사 수의로 삼베의 불순물을 제거한 후 만등조 七세를 기준으로 제조, 엄격한 순수 삼베 100% 제품	1,320,000원	1,150,000원	10개월 무이자, 함나무 박스 포함 삼베침구 세트증정
수의 特品	남 30종, 여18종	만등 삼베에서 재일한 베이 100% 원사를 바름로 제작한 고급 수의제품으로 만등조 七세를 기준으로 제조, 엄격한 순수 삼베 제품	1,870,000원	1,450,000원	10개월 무이자, 함나무 박스 포함 삼베침구 세트증정
안동포 七세	남 30종, 여18종	순수 삼베 자연사 100%를 대표적으로 제조하여 자연염료인 치자 염색로 염색된 최상의 상품	4,200,000원	3,950,000원	10개월 무이자, 함나무 박스 포함 삼베침구 세트증정

■ 맞베 주문시 요금이 10% 추가 됩니다. ■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에 정확히 배달하여 드립니다.

윤달(윤사월 5.23 ~ 6.20)에 받아보실 수 있도록 예약주문을 받습니다.

株式會社 安東삼베
ANDONG HEMP CLOTH CO.,LTD
본사/공장 경북 안동시 서후면 저전리 439-1
서울영업부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70-8호 혜성빌딩 1F
TEL 02 586 2544 영업부 02 586 2553~5

무료상담전화 080.588.2544

사 설

'민족공동체본부' 한 돌

조계종의 남북불교교류와 통일사업을 전담하는 기구인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창립 1주년을 맞았다. 지난 8일 '불교의 평화정신과 남북화해'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열어 창립 당시의 초발심을 상기하고 통일보살행의 서원을 다시금 다졌다.

우리는 지난해 이맘 때 이 난을 통해 민족공동체추진본부의 창립을 크게 반겼다. 민족구성원의 고통을 불교의 가르침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큰 원을 세운 것에 대한 기쁨이었으며, 질곡의 현대사의 현장에서 불교는 비껴 서있었다는 자괴감을 떨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안도했다. 또 불교계의 대표종단으로서 통일운동의 기운을 널리 퍼지게 한다는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 기쁨과 기대감은 지금도 여전하다.

아직도 남북은 화해·협력의 단계에 정착하지 못했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관계는 소강상태에 빠졌다가 최근 다시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선언하면서 조금은 풀리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는 그만큼 통일의 문제가 남북의 관계로서만 풀 수 없는 과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민족의 통일에 대한 염원이 금강석처럼 굳고, 쉬임없이 나아갈 때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통일은 정부 당국간의 협력만으로는 이뤄지지 않는다. 오랜 기간 동안 민족의 정서 형성에 기여해 온 불교의 역할은 그래서 어느 종교와 단체보다 크다. 선조사들께서는 이미 둘 아닌 원융의 가르침을 펼쳐보였다. 보배같은 가르침을 이어받아 분단의 예토를 통일정토로 가꿔나가는 것은 전적으로 오늘의 우리들 몫이다.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지난 1년 동안 주로 한반도와 주변 정세에 대해 파악하고, 불교의 통일론을 가다듬는 데 주력했다. 이제는 통일운동을 대중화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상생·화합의 불교정신이 삶 속에 깃드는 통일일 때 진정 의미있는 통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운동은 불교의 가르침을 펼치는 일과 다르지 않다. 상생·화합의 가르침을 불자와 국민들이 체화할 수 있는 운동을 펼쳐주길 당부한다.

'적신호 군포교' 대책 없나

군대는 포교의 황금어장이라고들 한다. 가장 힘든 한계상황과 나와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의 갈등 구조 속에 있는 청년들에게 진리 속에서 참삶을 살게 하는 기회가 되며, 이 때 손을 내밀어주면 약한 마음에 쉽게 손을 잡고 기대며 그 상태가 평생 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황금어장(漁場)이라고 하면 고기를 뜻하므로 생명을 존중하는 불교의 사상과는 단어 자체가 모순되므로 황금양어장(養魚場)이라 불러야 옳다는 기본적인 사실조차도 모르는 우리의 환경이 군포교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군포교 지원 및 후원단체 지도자 워크숍'에서 강대남 법사가 밝힌 자료는 이러한 인식에 더욱 확실한 증거로 다가와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알려주고 있다. 개신교는 상병, 병장으로 올라갈수록 신자수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불교의 숫자는 병장이 되면서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군법사의 노력이 초기의 신자확보에 영향력을 주는 반면 그 이후에는 영향이 적다는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불교계 전반의 인식부족이 첫 번째 이유일 것이다. 질 높은 포교인력을 양성해 효과적이고 헌신적인 보살행으로서의 포교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법당이 있는 부대에 비해 없는 부대의 불자 인구가 30%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보아도 법사의 필요성은 매우 크고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범종단적 차원에서 법당이 없는 부대를 가려내 1부대 1법당 1법사의 원칙을 세워 이를 실현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올라갈수록 밀도 있는 신앙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교프로그램을 개발, 표준화해서 법사들에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제대하면 사찰의 청년회와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은 방안은 이미 오래 전에 군승단에서도 논의했다. 언제까지 논의만 할 것인가. 그 사이 장병들은 불교에서 멀어지고 있지 않은가. 군포교는 의무를 넘어서 불교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달라이 라마 방한 허용하라"

정대총무원장 "종단차원 성명서 내겠다"

방한준비위, 대통령 면담 · 행정소송 추진

7월 중순으로 예정된 달라이 라마 방한이 정부의 일방적 결정유보 통보로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는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과 달라이 라마 방한준비위가 달라이 라마의 방한 허용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5일 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의 예방을 받는 자리에서 "불자들이 달라이 라마가 오기를 원하고 있다. 정부가 계속 거부할 경우 조계종 총무원도 방한허용촉구 성명서를 내겠다"며 달라이 라마의 방한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관련기사 3면)

스님은 "한승수 의무부장관이 때가 되면 오도록 조치하겠다며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해놓고 중국과의 외교문제만을 이유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6월 중국정부의 국빈방문 초청은 달라이 라마와 연관돼 있어 중국 방문을 거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달라이 라마 방한준비위원회(상임집행위원장 박광서)는 4일 만해교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월 달라이 라마 방한시기를 다람살라의 티베트 망명정부와 결정한 후 중국과의 외교적 파장 최소화 등에 대하여 준비위와 논의를 해 오면 정부가 최근 들어 다시 방한 허용에 대한 유보적 입장으로 급변하여 우리를 당혹케 하고 있다"며 "방한을 즉각 허용하는 입장을 16일까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달라이 라마 방한준비위는 또 4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청와대에 전달하고 14~16일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1일에는 메리 로빈슨 UN고등판무관과 군나르 베르게 노르웨이 노벨평화위원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한국정부가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세계인권선언 18조와 19조를 위반했기에 고발한다"며 이에 대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다

방한준비위 정웅기국장은 "앞으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08배 1인 릴레이시위와 16일까지 방한불허시 정부의 행정권 남용에 대한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10월29일~11월1일

3급 승가고시 시행

조계종 일정확정

올해 처음 실시되는 조계종 3급 승가고시가 오는 10월29일부터 11월1일까지 3박4일간 중앙승가대 안암학사에서 시행된다.

조계종 총무원은 5일 종무회의를 열고 지난 5월말 제5차 고시위원회에서 결의한 3급 승가고시 시행내용을 원안대로 확정하는 한편 승가고시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올해 시행되는 승가고시는 1991년 1월1일부터 1992년 12월31일까지 사미(니)계를 수지한 스님 중 구족계를 수지하고 분한신고를 필한 스님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과목에 대한 필답고사가 아닌 산림형식으로 치러져 결격사유 없이 집체교육 방식의 고시산림을 이수하기만 하면 합격할 수 있게 됐다. 대상자는 8월31일까지 조계종 교육원에서 소정의 입교지원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95년 이후 출가자들은 2008년 시행예정인 승가고시에서 고시산림과 필답고사를 모두 거쳐야 하며, 90년 12월31일 이전 출가자들은 승가고시를 거치지 않아도 이를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한편 승가고시위원회 위원장 법산스님(동국대 정각원장)은 7일 교계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95년 이전 수계자에 한해 산림형식으로 치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며 "승려의 질을 향상시키고 불교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스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남북화해 노력합시다"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과 KBS 박권상 사장 등 7대 종교지도자와 방송 3사 사장들은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건전 청소년 문화 조성과 남북의 화해·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을 기울이자고 의견을 모았다. 오찬을 겸한 이날 간담회는 종교지도자들이 방송사 사장들을 초청해 이뤄졌다. 사진=고영배 기자

교육부 시정요구 35항목 불교관련 전무

☞1면 '불교왜곡' 서 계속

문명대 교수는 "일본에서도 진보적인 학자들은 백제 등 한반도에서 불교문화가 전래된 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상당수 학자들은 아직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 내에 설치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대책반'은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 가운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후쇼사의 교과서 25개 항목, 기존 7종 교과서 10개 항목 등 모두 35개 항목의 한국관련 기술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수정을 요구했으나, 여기에 불교관련 항목은 들어있지 않다. 이는 외교적 문제가 걸린 사안의 미묘함과 국제 사회의 정치적 역학관계 등을 고려한 항목에 국한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와 문제제기가 따르겠지만 불교계에서도 종단과 학계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검토와 문제제기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불교지도자 전방 방문

19~20일 화천 7사단

조계종 포교원이 주최하고 국방부가 주관하는 2001년도 불교계 지도자 전방부대 방문 행사가 이달 19~20일 이틀간 강원도 화천 전방지역의 7사단 및 예하부대에서 실시된다.

매년 6.25를 기하여 군에서 종교계 지도자들을 초청해 열리는 이번 행사는 7사단 법당 순례 및 칠성전망대에서의 통일기원 법회, 종교 강연회, 부대시설 견학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한명우 기자

"승가교육체계 불만" 33%

10명중 6명 졸업후 선원수행 희망

강원 16곳 8백명 조사

강원 학인의 30% 이상이 현재의 승가교육 체계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인 10명 중 6명은 강원졸업 후 선원에서 수행을 계속할 생각인 것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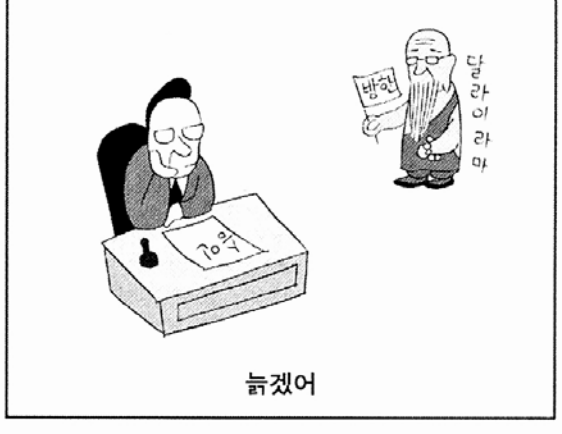
조계종 교육원이 전국 16개 강원 8백여 명의 학인을 대상으로 99년 6~7월 두 달간 조사해 최근 발표한 '강원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기본·전문교육 등의 체계로 이뤄지고 있는 종단의 승가교육체계에 대해 '적당하다'(36.8%)는 견해와 '부적당하다'(33.4%)는 견해가 한 계오차 범위 내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특히 사미 학인(27.4%)보다 사미니 학인(36.7%)의 부정적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주입식 교육방식 및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내용, 교육교역자 수 부족 등이 주요 이유로 꼽혔다.

졸업 후의 진로와 관련해 학인의 62.3%(506명)는 선원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다음으로 동국대·중앙승가대 등 일반대학이 12.4%(101명)로 나타나, 선수행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의 정규대학 전환에 대해서는 '반대한다'(54.2%)는 의견이 '찬성한다'(26.8%)는 의견보다 두 배나 높게 나타났다. 한명우 기자

현대만평

박 구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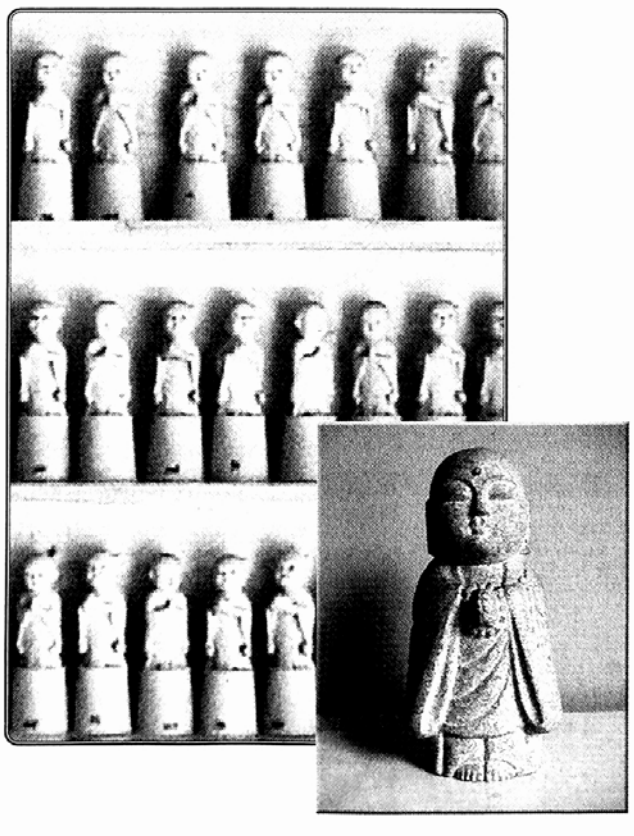
신흥사 새주지 선출

법장스님 사퇴…19일 산중총회

조계종 3교구본사 신흥사는 19일 산중총회를 열어 총무원에 임명을 요청할 주지후보자를 뽑는다. 현 주지 법장스님은 최근 사퇴의사를 밝혔다.

3교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지홍)는 10~12일 입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정성운 기자



구담사 태아 천도 발원 10주년

봉 태아·영아 영가 천도재 재

증 명 : 봉선사 조실 월운 큰스님 , 도선사 회주 혜성 큰스님 , 건봉사 (前 심원사) 영도 주지스님

저희 구담사는 최초로 태아 영가 천도 도량으로 개설한지 10주년을 맞이하여 49일 태아 영가 천도재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인간은 수태된 순간부터 생명으로 인정되기에 자신이 육체에 대하여 애착을 갖게 되므로 미쳐 세상의 빛을 보기전에 생명을 잃어버린 태아는 악업의 果를 쌓는 까닭에 부모와 형제에 대한 원망으로 무주 고혼이 되어 원결을 맺게 됩니다.

경전에 말씀하시기를 ...
태아를 살생하여 큰 죄를 지었더라도 佛法으로 진참회 하고 천도공양하면 죄없이 소멸되고 태아의 영혼은 천도되어 이고득락 한다고 하였다.

※ 지극한 마음으로 영혼을 달래어 천도제에 동참합시다. ※ 특히 대학입시, 취업, 사업자는 기도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안내

◘ 일 시
· 입제일 : 양력 7월 7일 (음력 5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
· 회향일 : 양력 8월 24일 (음력 7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

◘ 동참금 : 49일 기도 동참금 5만원

◘ 태아 위패비 : 태아 영가 1위당 5천원 (제사는 3재, 5재, 7재) 때만 올림

◘ 준비물 : 우유, 분유, 사탕(과자류) 〈영가 옷은 사찰에 있음〉

◘ 입금계좌
국민은행 : 217-01-0339-914 (예금주 : 구담사)

◘ 교통안내
· 동서울 터미널 ➜ 일동
· 상 봉 터미널 ➜ 일동 ➜ 연곡 4리 하차
· 수유리 터미널 ➜ 일동
· 일동 국민은행 앞 구담사 버스 수시 운행

◘ 법회 당일 구담사 버스 운행
· 오전 8시 - 강변역 테크노마트 주차장 출발

◘ 문의 : Tel 031) 533-2855 Fax 031) 532-2441
※ 지방신청 접수 가능 합니다.
※ 위패 관계로 미리 접수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구 담 사 지 율 합 장 주소 :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연곡 4리 595번지

목어

두 친구 이야기



한 마을에서 자란 청년 두 명은 친구로서 사이좋게 지냈지만 성격은 서로 달랐다. 한 친구가 비 오는 날이 분위기 있고 좋다고 하면, 다른 친구는 구질구질하고 짜증난다며 싫어했다. 날씨 좋으니 놀러 가자고 하면, 다른 친구는 날씨가 좋으니 일해야겠다고 딴청을 부렸다. 옷을 입어도 한 친구는 시장에서 골라 산 옷을 여러 개 입는데 비해, 다른 친구는 백화점에서 산 유명 메이커 아니면 몸에 걸치지 않았다. 이렇게 다른 성격은 배우자를 고르는 데서도 나타났다.

한 친구는 조건을 별로 따지지 않고 수수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 평범하게 지냈지만 다른 친구는 얼굴이며, 몸매, 성격과 재산 등 모든 면이 완벽하게 갖춰진 여인이 아니면 결혼할 수 없다고 했다.

수수한 여인을 만난 친구는 아들 딸 6남매를 두어 시집, 장가보내는 재미에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옛 친구를 만났다.

"그래, 결혼은 했는가? 아이들은 몇이나 두고?"

친구가 힘없이 대답했다.

"아니, 아이는 무슨, 결혼도 못했는데."

친구에게 다시 물었다.

"완벽한 여인이 그렇게도 없더란 말인가? 한 명도 못 만났어?"

친구는 역시 힘없이 대답했다.

"아니, 딱 한 명, 기가 막히게 완벽한 여인을 만났었지."

친구에게 종주먹을 들이대듯 물었다.

"그런데 왜 결혼을 안 했어, 여태까지?"

친구는 더욱 힘없이 대답했다.

"응, 그게 말이야, 그녀도 완벽한 남자를 찾고 있었다는군."

세상에 완벽한 남자, 무오류의 여자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한 남자, 여자가 어디 섞여서 같이 살려고 하겠는가? 서로에게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완벽한 남자, 완벽한 여자로 가꿔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일이다.

법현(종단협의회 사무국장)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승려학생 확대 전공제한 철폐" "석좌교수제 도입 등 교원 확충"

'동국대 불교대학 발전' 첫 공청회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위기론이 대두하고 있는 동국대 불교대학 발전 방안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첫 자리가 마련됐다. 불교대학 교수, 학교 및 종단 관계자들은 5일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95년 동국대 역사상 처음으로 '불교대학 발전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불교대학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불교대학 교수 18명으로 구성된 불교대학 발전연구위원회는 △학부 발전 연구방안 △교과과정 연구방안 △교수 및 연구기관 진흥방안 △학과 및 전문대학원 신설방안을 중심으로 불교대학 장단기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학교 및 종단 관계자들은 '불교대학 활성화를 위해 뜻을 모아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불교대학 위기의 원인에 대한 인식 등 몇몇 부분에서 의견을 달리했다.

이 날 발전연구위원회에서 발표한 발전방안은 학부제와 전과제도 시행에 따른 학생 수 감소와 불교대학의 교육 및 연구기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호성 인도철학과 교수는 '학부발전 연구방안'에서 "불교대학 학부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하나는 전과제도로 말미암은 학생 수의 감소에 있다"며 승려학생 수를 늘리고 선학전공 제한 철폐, 추천입학제 확대, 일반 전형시 심층면접 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표 불교학과 교수는 '교수 및 연구기관 진흥방안'에서 세계 수준의 불교학 교육 연구중심대학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교수의 책임강의시간을 줄이고 석좌교수, 연구교수 등 다양한 교수제를 도입해 교수 인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불교문화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한국불교문화연구센터를 설립해 교내 불교 관련 연구를 통합하고 앞으로 5년간이 걸쳐 30억원의 발전기금을 조성하자고 말했다.

불교전문대학원을 설립해 종립대학으로서 특성화된 대학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경준 불교학과 교수는 "전문대학원 체제로 불교학의 응용분야와 불교계에서 요구하는 전문분야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불교학과 졸업생들의 취업문제과 관련 교단과 교계에서 이들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불교대학 학장 보광 스님은 "교과과정을 보완해서라도 졸업과 동시에 포교사 자격 정도는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날 참석자들은 동국대가 불교학의 산실로 거듭나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하지만 구체적 방안보다는 원칙 천명에 그쳤고, 문제에 대한 원인 진단 부분에도 이견을 보였다.

토론자로 나선 박부권 교육학과 교수는 "학생 수 감소는 학부제 실시와 '실용학문 중시'라는 세태의 변화에 따라 일반 인문대학도 함께 겪는 문제인 만큼 '동국대'라는 큰 그림 속에서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종립학교관리위원회를 대표해 참석한 장곡(공주 갑사 주지) 스님은 "연구중심대학을 지향하기 위한 교수인력 확대, 불교문화종합연구센터(가칭) 설립, 30억 발전기금 조성 등 물량확대 중심의 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단순한 제도개선이나 물량 확대보다 자기성찰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5일 열린 '동국대 불교대학 발전을 위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91~94년 출가자 필답고사 면제

승가고시 특례적용 고시산림 참가 '통과'

조계종이 지난 5일 종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3급 승가고시 시행에 관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승가교육 발전과 고시에 대한 스님들의 부담 최소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통합종단 이후 올해 처음 실시되는 3급 승가고시는 승려의 자질 향상과 불교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보편적 견해였지만 출가 승려의 수행척도를 시험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대도 만만치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3급 승가고시를 거쳐야만 말사주지나 본사 4직, 중앙국장 등에 임용될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고시 통과'라는 부담으로 인한 스님들의 반대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확정된 내용을 보면 1991년 1월1일부터 1994년 12월31일 이전에 출가하고 사미(니)계와 구족계를 수지한 3급 승가고시 대상자에게는 당초 계획됐던 필답고사 방식이 아닌 연수교육 방식의 '고시산림'에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고시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우선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례가 적용되는 셈이다. 또한 1991년 1월1일 이전의 출가자는 자연적으로 3급 승가고시를 이수한 것으로 결정함으로써 사실상 95년 이전 출가자는 별 부담 없이 3급 승가고시를 통과할 수 있게 됐다.

이와는 달리 제대로 된 방식의 3급 승가고시는 95년 1월 이후 출가자를 대상으로 2008년도에 시행된다. 이 때부터는 고시산림과 필답고사가 병행되며, 응시자격기준도 4안거 이상을 성만하고 종단에서 지정하는 교육기관을 이수했거나, 박사과정 이상을 이수한 승려로 강화된다.

교육원은 3급 승가고시의 성패가 스님들의 인식과 의지에 달려 있다고 판단하고 그 취지와 내용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결국 올해 첫 시행에 스님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가 3급 승가고시 정착의 분수령이 될 듯하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계율해이 경고 "책임 묻겠다"

정대스님 '룸살롱' 언급

조계종 중진스님 4인의 강남 룸살롱 출입사건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의 발언에 담긴 의미와 함께 이번 발언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대스님은 5일 재가연대 박광서 상임공동대표 등과의 면담에서 계율해이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의미를 담은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3~4월 조계종 중진스님들의 비위를 담은 괴문서가 나돌았고, 이에 대해 총무원이 즉각 대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난 여론이 팽배했었다. 따라서 경고의 범위는 룸살롱 사건에 관련된 중진들을 한정한 것이기보다는 포괄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에서는 경고 이상의 무게를 실었다고 보고 있다. 총무원 내의 한 국장 스님은 "원장스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 지켜보면 알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종단의 안정을 위해 2년간 참았다. 더 이상 참으면 종단이 우습게 된다"는 언급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이다. 정대스님은 이날 면담에서 일부의 스님들이 호법부장 해임을 요구했다는 내용까지 공개적으로 밝혀 그 동안의 불편했던 심기를 그대로 드러내기도 했다.

정대스님의 발언 가운데는 승가의 청정성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대목도 있어 주목된다. 룸살롱 사건을 언급하며 "지금 그러면 불자들이 용납하지 않는 시대가 왔다"고 말했다.

종회의원들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한 종회의원은 "룸살롱 사건은 사실 다소 과장되어 알려지고 있다"며 "신중하지 못한 말씀인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다른 종회의원 스님은 "이 일로 종단이 어지러워질까 걱정"이라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달라이라마 방한 가능성

확답없는 정부…속타는 준비위

7월 중순 성사되려면 16일까지 비자발급 결정

달라이 라마가 과연 7월 중순 올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5월까지 달라이 라마 방한준비위원회와 6개월간에 걸친 물밑협상을 진행하며 방한 시기를 7월 중순으로 합의했음에도 최근 돌연 약속을 파기한 것은 내심 불허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달라이 라마 방한을 위해서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최소한 16일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비자발급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정부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결국 방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교계의 여론이다.

이런 상황에서 방한준비위는 1일 한승수 외무부장관이 중국에서 방한을 시사한 듯한 내용을 흘린 것은 대중국 외교를 위해 정부가 달라이 라마 방한을 협상카드로 사용하고 있다는 일부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극소수 불교계인사들이 달라이 라마의 방한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를 내세우는 것은 결국 방한 불허의 책임을 교계에 미루기 위한 계산된 수순으로 보고 있다.

달라이 라마 방한준비위 박광서 상임집행위원장은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내세우는 것도 이제는 더 이상 명분이 없어졌다. 중국이 자신의 땅이라 주장하며, 군사적 긴장관계에 있는 대만에도 지난 4월 달라이 라마가 다녀갔다"며 "강대국 앞에서는 비굴해지는 정부가 굴욕외교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달라이 라마는 방한할 수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삼화불교대학 학생 모집

1.모집학과 및 안내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30%
불교학과	2년	■주간20명 ■야간20명 ■통신30명	· 고등학교및 수학능력이 있는 동등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1통 · 본교 소정입학원서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5매	· 조계종 승려 · 포교사 (타종단 승려, 포교사도 가능) · 30세이상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대신 이력서 전형가능
	4년	■통신50명		
개호복지사과	2년	■통신50명		
불교미술 (문화재)과	2년	■주간20명 ■야간10명		

2.학교연혁

1987.7.3 학교설립공고
90 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90 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 8 본교학생 1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증 취득
91 3 전문부 주간, 야간 2년제 개설
91 8 본교학생 1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1 8 교육부인정 고등학교 인수
92 2 제1회 졸업생 배출
92 7 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취득
93 3 불교미술과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 8 본교학생 142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4 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112명 취득
94 11 본교학생 183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5 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149명 취득
95 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 8 중국 남경 중의약대학과 본교체결
95 11 본교학생 141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6 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49명 취득
96 11 본교학생 186명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7 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 40명 자격취득
98 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 42명 자격취득
99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22명 자격취득(위탁교육 수료후)
2000 2 제9회 졸업생 배출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 포교사 95% 자격취득
2001 2 제10회 졸업생 배출

3.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문화재수리 기술자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가능
※중국남경중의약대학 본과 입학가능

4.원서교부및접수기간
· 원서교부및접수기간: 2001년 6월 30일까지
· 전형방법: 서류전형 (우편은 당일 소인 유효)

5.원서교부및문의처
· 본교 교학과 : ☎ 02)511-2026~8
FAX.511-1080
· 일본동경분교 : (055)233-1848
· 부산분교 : (051)322-320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람.
◑ 인터넷홈페이지 : WWW.Samhwadea.wo.to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불교대학

◆ 교육부 학력인정 ◆
고등학교과정 학생모집

여러 사정상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신 분 (연령 관계) 없음

■각 학년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고등학교 과정 각 학년 편입가능	3년	주간·야간
중학교 과정	3년	주간·야간

■ 졸업 후 각 대학에 입학 가능함.
정규 고등학교와 교육제도 같음
■ 특전 : 성적우수자 조기졸업 가능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1년 6월 30일까지
■ 문의처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 02) 511-2026~8
FAX : 02) 511-1080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불교대학

◆ 중국최고 국립한의과 대학◆
한의사 과정 학생 모집

1 모집학과 (9월 입학)
석사·박사 약간명 모집

학 과	학제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고등학교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여부와 관계없음 ◇전문대, 대학 졸업자(전공불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통 ◇건강진단서 1통 ◇외국인 유학생 신청서 1통 ◇여권용사진 5매
중의외과	5년	
중약학과	5년	

2 학교 소개
▶ 중국 최고 국립한의과대학
▶ WH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타
▶ 부속병원 5개, 제약공장3개, 교육병원 12개,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외국인 기숙사 및 중국어 어학원
▶ 군입대 연기가능
주소: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전 화:25-6798171 팩스 : 25-6798168
· 인터넷 홈페이지 : www.njutcm.edu.cn

3 한국 상담 안내처
TEL (02)511-2026~8
남경중의약대학

중국남경중의약대학 박사과정 연수

한방미용연수

■ 대 상
피부관리사, 전문미용인, 한방미용이나 경혈 마사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
■ 주요 연수 내용
머리경혈마사지, 피부미용, 한방미용다이어트, 식이요법 및 응용 등

침·기공 연수

■ 대 상
한의사, 한약사, 스님, 침, 기공에 관심있으신 분
■ 주요 연수 내용
당뇨병, 중풍, 비만, 좌골신경통 및 관절치료 등의 침치료, 맥진법, 기공 등
■ 기 간 : 6월 23일~29일(6박7일)
■ 연수후 : 국립 남경중의약대학
고급과정 수료증 수여(高級課程 結業 證明書)
■ 인 원 : 각 10명 선착순
■ 출발일 : 2001년6월23일 예정
■ 문의처 : 자매대학 삼화불교대학
■ 전화 : 02)511-2026~8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불교대학

일주문



천룡사 예수재서 법문

현성 청소년교화연합회장은 5월 23일 제주 천룡사 생전예수재 입재식에서 법문하고 3백여 명에게 보살계를 수계했다.



17일 포교사대학 입학식

혜철 한국불교포교사협회장은 17일 오후 4시 동국대 정각원에서 포교사대학 2001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한다.



청화 스님 초청 천도재

정허 부천 죽림정사 주지는 16일 오후 1시 청화 스님 초청 유주무주 고혼영가 합동천도 법회를 봉행한다.



탈북자 실생활 체험행사

성덕 불교자원봉사연합회장은 7일 탈북자의 실생활 체험 프로그램인 '우리 이웃 작은 평화 나누기' 행사를 실시했다.



생활공예 공모전 대상

운천 중앙승가대 스님(사회복지학과 2)은 한국공예디자인협회의 생활공예 공모대전에서 서각병풍으로 대상을 받았다.



제20회 일붕문학상 수상

신길우 한국수필문학진흥회 이사는 16일 오후 3시 서울 센트럴시티 컨벤션홀에서 제20회 일붕문학상을 수상한다.



'목우자 지눌연구' 출판회

강건기 전북불교대학장은 16일 오후 3시 불교대학 4층 법당에서 〈목우자 지눌연구〉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현고 스님 환경의 날 국민포장

이병인 교수 · 전형근 씨 환경장관상



◇현고 스님



◇이병인 교수



◇전형근 씨

5일 제6회 환경의 날을 맞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현고스님이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또 조계종 환경위원 이병인 교수(밀양대)와 사회부 전형근 사회과장이 환경보존의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부장관을 수상했다.

"불교학 연구 산실로 키울터"

대한전통불교연구원 재창립 혜거 스님



"발표위주보다는 의식 등 불교계 통일과 개혁이 필요한 테마를 정해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한뒤 자료집을 만들 계획입니다."

김지견 박사에 의해 1976년 창립된 대한전통불교연구원을 24일 오전 11시 금강선원에서 재 창립하는 혜거 스님(서울 금강선원 원장)은 "실참없는 학자들에게 불교가 쉽게 도전을 받지만 이에 대응하는 연구소가 없다"며 "월운, 각성 스님과 전통강원 강주 스님, 민홍구, 채병훈 교수 등 재가학자들을 모셔 전통불교연구원을 불교학 연구의 산실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스님은 "연구원내에 원전을 공부하는 교육기관을 설치하고, 홍천에 있는 선문장을 연구원 수련 및 발표회장으로 운영하겠다"며 "연구소가 흔히 겪는 재정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법인화와 후원회 발족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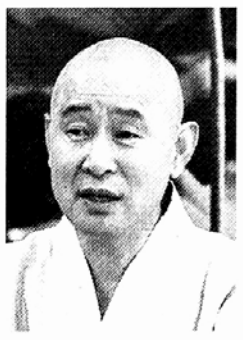
혜거 스님은 삼척 영은사에서 탄허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으며, 현재 인터넷불교대학 교수와 불교방송 '자비의 전화', '경전공부'를 진행하고 있다. 스님은 13년간 금강정사에서 불경원전교육을 실시하여 불교전통교육의 일익을 담당해왔다.

한편 1976년 개원된 대한전통불교연구원은 10회에 걸쳐 불교학술회의 개최와 일본 인도학회 교류 등의 사업을 전개해왔다. 올해 초 초대원장인 김지견 박사가 타계하자 김지견박사 유고집 발간을 준비하던 전통불교연구원 연구원들은 혜거스님을 2대 원장으로 추천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혼탁한 세상 맑게 해야죠"

'맑고 푸른 시민연대' 공동대표 정여 스님



"나부터 마음을 맑게 하고 푸르게 가꾸어 주위를 맑고 푸르게 가꾸고자 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시민연대로 마음순화에 초점을 두고 주위의 문제점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가려 합니다."

1일 양정청소년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가진 '맑고 푸른 시민연대'의 상임 공동대표를 맡은 정여 스님은 모든 것의 근원에 마음이 있음을 강조했다.

"맑고 푸른 시민연대를 통해 보다 새로운 차원의 시민운동을 펼쳐보겠다"는 정여 스님은 "기존 환경운동단체나 시민연대의 문제점을 분석, 보완하기 위한 학술적인 연구나 행정기관과의 다각적인 논의를 하겠다"며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또한 정여 스님은 "시민운동은 정치적 논리나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일상의 작은 일부터 잘못된 것은 꾸준히 감시하고 바르게 해결해내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맑고 푸른 시민연대는 100여 명의 회원중 개신교나 천주교 신자들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스님을 상임공동대표로 추대할 만큼 종교간의 벽을 허물어 버린 단체이다. 이는 종교 혹은 지역간의 화합으로 환경운동의 서막을 열어야 한다는 맑고 푸른 시민연대의 입장을 반영한 것.

"시민을 위하고 세상을 맑고 푸르게 가꾸는 일에는 종교나 지역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정여 스님은 "앞으로 개신교나 천주교 등의 종교지도자를 모셔서 보다 활발한 시민연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맑고 푸른 시민연대는 16일 위원회 모임을 갖고 청소년 교육,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마음을 맑혀주는 소책자 제작, 화장실 문화 정착 등 구체적인 사업을 확정하게 된다.

정여 스님은 "무조건 개발에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개발정책 수립과 미래지향적인 환경보존책 수립을 위한 연구와 실천을 꾸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051)852-5414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정보화 시대 불자인재 양성"

선각종 종립 국제불교대학 이사장 정암 스님



"우리 대학의 교훈을 '정법 수행 교화'로 했습니다. 부처님가르침을 열심히 배우면서 상구보리(上求菩提)하고 지혜와 자비로써 중생교화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수행자의 위의를 갖추도록 적극 뒷바라지 하겠습니다."

4일 개원식 및 입학식을 가진 대한불교 선각종 종립 불교교양대 '국제불교대학'의 이사장 정암 스님(선각종 총무원장)은 종단 스님들을 전문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해 창종 때부터 종립 불교대의 건립을 발원해 왔고 이번에 개원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창종한 지 2년밖에 안된 신생 종단인 선각종이 스님들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 종립 불교교양대인 '국제불교대학'을 세운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교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암 스님은 "국제불교대학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21세기를 특징짓는 정보화 국제화에 걸맞게 불자들이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종단의 발전은 물론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다같이 노력하고 동참하자는 뜻과 함께 시대를 이끌어 가는 수행자상을 정립하는데 종단의 역량을 결집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면서 "앞으로 국제적인 학자나 유명강사 등을 초청한 특강도 많이 하겠다"고 밝혔다.

국제불교대학에는 선각종의 각 말사 주지 등 스님 70여 명이 입학했으며 2년 등안 근본불교, 불교사 등 경학과 더불어 습의, 신중작법 등 불교의식 전반도 공부하게 된다. 정암 스님은 "수행자는 늘 자신을 닦고 초발심으로 돌아가기 위해 교육과 연수로 부지런히 자신을 단련시키는 일밖에 없다"면서 "선각종은 이번 국제불교대 개원을 계기로 더욱 종풍확립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한불교 선각종은 호남지역에 본산을 둔 종단으로 재소자 교화, 불우이웃돕기 등 복지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주용직 광주 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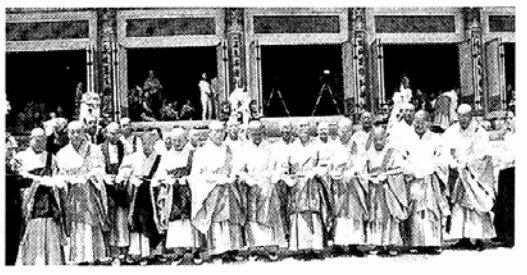
해주스님 수미정사 개원

해주 스님(동국대 교수)이 종로 부암동에 '수미정사'를 건립, 6일 부처님 점안 및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해주 스님은 "수행과 학문연구를 함께 하는 도량으로 삼고자 북악산 자락에 수미정사를 마련하고 개원법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로 참석한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은 법어를 통해 "포교당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중생을 부처님께 이끄는 도량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족공동체 추진본부 사무실 개소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정념)는 8일 조계사 앞 상운중심 3층에서 사무실 개소식을 가졌다. 개소식에는 추진본부장 정념스님을 비롯한 집행위원장 양산스님, 정책기획위원장 화담스님 등 추진본부 관계자와 조계사 주지 지홍스님, 문화부장 혜자스님, 교육부장 계성스님, 포교부장 상운스님 등이 참석했다.



천안 만경사 천불전 낙성법회

충남 천안시 만경사(주지 청해)는 3일 천불전 불사를 회향하는 부처님 점안 및 낙성식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대한불교 총화종 총무원장 남정스님, 무량종 총무원장 혜인스님, 불교지도자협회장 각성스님, 마포경찰서 상임 포교사 및 불교회원, 만경사 신도 등 4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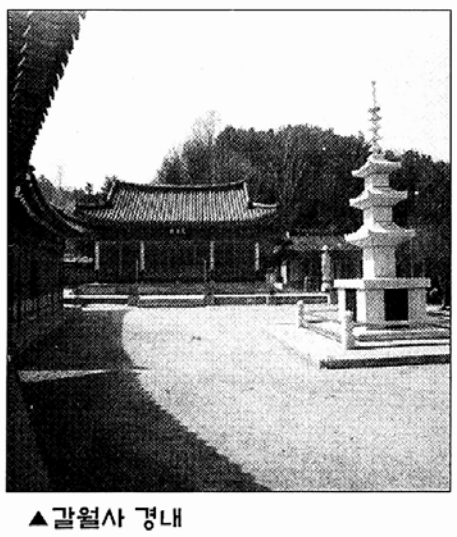
대불어 지도자 1천여명 연수회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정여)는 2~3일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해맑은 어린이 희망찬 우리미래'를 주제로 제31차 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회에는 대불어 총재 정관스님, 회장 정여스님, 부산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회장 지현스님을 비롯해 어린이지도자 1천여 명이 동참했다.



백제불교 도래지 법성포 성역화 기공

백제불교도래지 기념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다정)는 7일 전남 영광군 법성포에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성역화 사업의 기공식을 열었다. 기공식에는 불갑사 조실 수산스님, 백양사 주지 다정스님, 송광사 주지 현봉스님, 대둔사 주지 보선스님, 화엄사 주지 종걸스님, 불회사 주지 정연 스님 등을 비롯해 2천여 명의 불자와 군민이 참석했다.



갈월사 영탑(靈搭)

윤달에 조상에게 효도를





영탑허가번호
양평군 제2000-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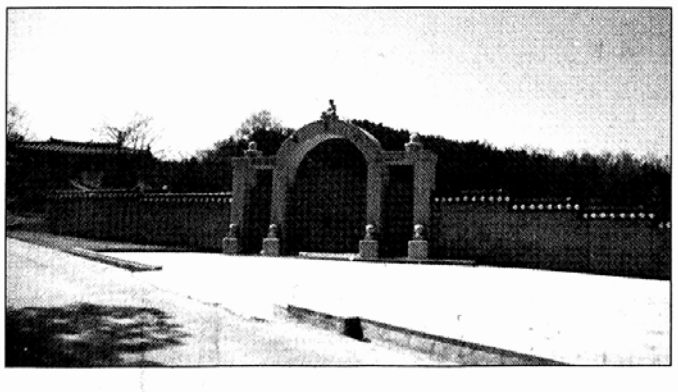
갈월사 영탑 조성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직접땅에서 출토된 미륵부처님의 도량에 만들어 졌으며 사방이 우거진 웅장한 숲속에 평화롭게 안치될 영탑은 **영탑1기에 16구의 영가를 안치해 5대까지 지속적으로 반복 사용**할 수 있으며 **윤달에 영탑을 이용 하시는** 모든 회원과 불자님에게는 영가를 모셔오는 **시다림의 초제부터 7.7제와 49제까지의 모든 제례행사**를 무료로 주관해드리는 특전을 드립니다.

영탑의 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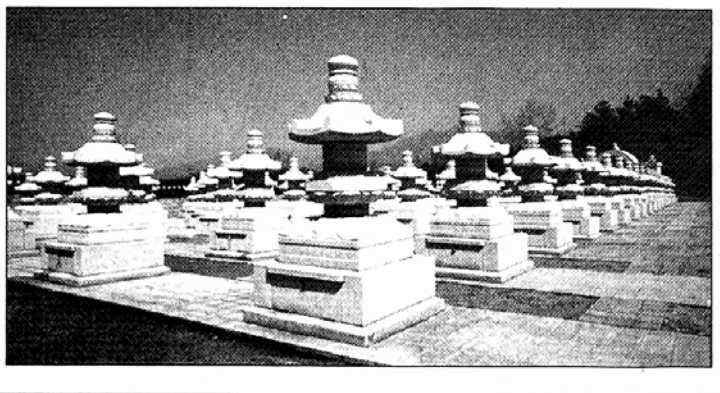
- 탑 하나만 세우면 **가족 대대로 영구적**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기존 묘지는 조상에 소홀하고 제사 지내기에 불편하나 탑안에 조상을 모두 모시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이 정성껏 모실 수 있습니다.
- 갈월사에서 **직접1년에 4회 합동천도제**를 올립니다.
- **내 조상과 똑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관리합니다.
- **사통팔달한 교통망과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쉽게 오실수 있습니다.

▲갈월사 경내

정문 ▼



조성된 영탑 ▼



탑공원 설립의 의의

갈월사 경내에 주지 홍인스님께서 조성하신 가족영탑은 묘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 매장제도를 개선할수 있는 최상의 모델로 향후 우리나라 장례문화에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후손들을 편하게 하고 근본 이치에 순응하며 자신의 육신에 대한 집착을 놓아 버리기 위해 생전에 자신의 영탑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자신과 후손들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입니다.

▶문 의: 031)774-7374, 771-9577, 772-1909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 3리 **갈 월 사**
▶홈페이지: http://www.galwolsa.bz.co.kr

· 모시고 싶은곳, 자주자주 찾아뵙고 싶은곳 - 영원한 쉼터입니다. · 가신분을 위한 경건하고 엄숙한 안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 모시는 분을위한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난지도 경사면에서 자라고 있는 꽃과 나무를 찾은 두레생태기행 환경답사자들 모습.

꽃동산으로 변한 난지도

"어머! 패랭이꽃 피었네"

두레생태기행 환경답사

골프장건설 반대 결의

"이 꽃을 보세요. 토종식물인 패랭이꽃이예요. 그 옆에는 귀화식물인 개망초가 있네요."

1978년부터 쓰레기를 매립하여 거대한 산으로 변한 난지도. 초등학교 5~6학년으로 짜여진 맹꽁이 팀 팀장인 두레생태기행 김재일 회장이 매립장 경사면에 꽃밭을 이루고 있는 꽃나무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바쁘다.

두레생태기행이 6일 난지도에서 '자연이 살아나는 아름다운 난지도'를 주제로 생태기행 행사를 개최했다. 일일강사인 김병연(식물학 박사), 김정환(고려곤충연구소장), 김태우(농업과학기술원 연구원)씨를 비롯하여 200여 명의 참가자들은 난지도의 자연생태알기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풀꽃과 나무인 지칭게, 패랭이꽃, 조팝나무, 버드나무 등과 귀화식물이 서로 공생하는 생태환경을 확인했다.

이어 난지도 정상에서 새생명심기 프로그램으로 토종 목화씨를 심고, 연날리기를 하며 골프장 건설 반대의지를 다졌다.

김재일 회장은 "난지도에 골프장이 들어서면 현재의 생태계는 모두 말살된다"며 "인근 생태계와 함께 자연그대로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두레생태기행은 14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에서 10주년 기념행사를 갖는다. 교계 생태기행의 효시인 두레생태기행은 1991년 창립한 뒤, 총 103회에 걸쳐 생태환경 보존을 위한 탐사를 전개해왔다. 김원우 기자

언론사 불자회 결성 '파란불'

중앙일보·한겨레·한국경제 등 추진…30일 연수회서 구체화

빡빡한 근무일정으로 불자들의 모임 자체가 어려운 언론계에서 불자회 결성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현재 20여 방송, 중앙일간신문사 가운데 불자회가 있는 곳은 KBS, MBC, SBS, 경향신문 등 4곳에 불과하다. 그만큼 불자회를 만들기 어려운 일터가 바로 언론사인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교원이 30일 법주사에서 개최할 '제2회 방송, 언론인 연수회'를 준비하며 불자회 결성을 유도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해 6월 마곡사에서 개최된 조계종 포교원의 '제1회 방송·언론인 연수'에서 불자언론인들이 공양하는 모습.

이를 위해 포교원은 각 언론사에 근무하고 있는 불자, 특히 불자회를 만드는 일에 헌신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인프라를 찾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불자회 결성의 계기를 만들고 그 방법론을 함께 고민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포교원이 중앙일보사 영자신문사업본부 백성기 마케팅팀장과 자주 통화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백 팀장은 사내 불자 10여 명과 함께 올 연말까지 중앙일보신문사상 첫 불자회 결성을 목표로 뛰고 있다. 현재 백 팀장은 사내 불자의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7월경 On, Off 라인 상의 사내 게시판을 활용해 불자회 결성을 홍보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중앙일보신문사의 경우 이은윤 前 전문위원이 재직할 당시까지만 해도 사내 불자들이 모여 수덕사를 방문하는 등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현재 그 명맥마저 끊어진 상태다. 이를 안타깝게 생각했다는 백 팀장은 "천목도모를 통한 불자회 회원 늘이기에 노력하고, 정기법회와 불교공부도 꾸준히 진행해 사내 불자들의 신행 생활을 이끌어 갈 계획"이라며 불자회 창립 이후의 포부를 말했다.

이외에도 포교원은 한겨레신문사에 재직하고 있는 불자들과도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다. 또한 한국경제신문사에 근무하고 있는 불자들과도 접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와 같이 포교원이 언론사 불자회 창립에 나선 것은, 언론계가 불자회 결성의 사각지대라는 자체 평가 외에도 언론사 불자회가 늘어날수록 방송이나 언론에서의 종교편향 등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단초를 찾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신문사 이비즈니스본부 김대곤 국장은 "각 언론사 마다 적잖은 불자들이 있지만, 각자의 일로 바쁘고 또 근무시간이 천차만별이어서 불자회를 꾸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사 불자회 결성에 포교원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언론사 내 불자 스스로 불자회를 결성까지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국장에 따르면 한국경제신문사에도 10여 명 남짓한 불자들이 있지만 불자회를 만들기까지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상태다.

포교원은 "언론사 불자회 결성은 최종적으로 '언론인 불자연합회'(가칭)의 창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번 '방송, 언론인 연수'를 통해 그 가능성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2회 방송, 언론인 연수'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1박 2일간 종계종 제5교구 본사 법주사에서 공중파 및 일간지에 근무하는 불자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진행된다. 포교원은 이번 연수회에서 '법회 활성화', '미창립 언론사 불자회 창립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우리 모임에선

석불선양회 기우제



한국석불선양회는 3일 제14차 석불친견순례법회를 봉행했다. 충남 아산 평촌리 석조약사여래입상과 신현리 석조미륵불입상을 친견하는 순례에 동참한 68명의 불자들은 불상 주변 청소와 법회를 봉행하고 기우제도 지냈다.

한빛 천마재활원 봉사

한빛은행 부산불자회는 3일 오전 10시부터 부산 암남동 천마재활원을 방문해 정기봉사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10여 명의 회원들은 천마재화원의 화장실과 식당, 숙소, 유리창 등을 청소하며 100여 명의 지체부자유자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었다.

하불동 사찰순례

하이텔 불교동우회 강원모임은 2일부터 3일까지 강원도 철원의 전통사찰 심원사와 도피안사를 방문해 6월 정기순례법회를 봉행했다. 회원 2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순례법회는 108배, 정근, 발원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동산반야회 육바라밀 법회



동산반야회는 3일 육바라밀 대법회 입재식을 봉행했다. 용주사 주지 정락스님의 집전으로 진행된 이번 입재식에는 2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해 혼탁한 사회를 정화하는 보살이 될 것을 서원했다. 육바라밀 대법회는 10일까지 계속되며, 이날 성륜사 조실 청화스님을 전계화상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교정인연합회 자혜원 봉사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 충청지부는 5월 20일 대전 자혜원을 방문해 사회로부터 소외당하는 어린 원생들을 위로했다. 이날 충청지부는 '불교를 사랑하는 모임(LMB)'를 초청해 원생들에게 법음을 전하고, 합동법회도 봉행했다.

"27년 5개월 정진 꼭 이루자"

만일염불결사회 1돌 법회



현대사회에서의 올바른 불교신앙과 새로운 수행방향을 제시하고자 결성된 '만일염불결사회'가 창립 1주년을 맞아 6일 기념법회(사진)를 봉행했다.

성남 청계산 정토사 극락전에서 봉행된 기념법회에는 동국학원 이사장 녹원 스님과 조계종 원로의원 도원 스님, 대한불교 진흥원 서돈각 이사장 등 7백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이 자리에서 녹원 스님은 법어를 통해 "만일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염불수행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자 뜻 깊은 일"이라며 만일염불결사회원들을 격려하고, "참다운 염불행자로 거듭나 바른불교가 무엇인지를 전파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5일 밤부터 철야염불정진법회를 봉행한 만일염불결사회는 6일 오후 염불행자 수계식을 거행하며 불제자로서의 소명을 다 할 것을 서원했다. 정토사 주지 보광 스님은 수계식 계사로 참석해 "불교 바르게 믿기 운동으로 한국불교의 미래를 이끌어가자"고 당부했다.

지난해 6월 6일 입재에 들어가 오는 2027년 10월 22일에 회향하는 청계산 정토사 만일염불결사회는, 현재 동참자들의 수가 750여 명으로 증가해 불교의 현대화와 대중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오종욱 기자

게시판

알림

▲입시백일기도 입재=서울 중랑구 법장사(주지 퇴휴)는 21일 오전 11시 입시생을 위한 1차 입시백일기도 입재식을 봉행한다. 입시백일기도는 9월 28일까지 계속된다. (02)971-0303

▲불자교사모임결성=능인선원은 중, 고등법회의 활성화를 위해 강남 및 강북지역 중·고교 선생님들의 모임을 결성한다. 모임은 능인선원 주말법회 후 모임을 운영한다. (02)577-5800

▲건양대병원, 법당 개원=대전 건양대학교 종합병원은 5월 31일 병원 내 법당(사진)을 개원했다. 병원 지하 1층에 마련된 법당은 20여 평 규모로 약사여래부처님이 봉안됐다. (042)600-9114



강좌

▲불교영어=능인선원은 18~22일, 25~29일 두 차례에 걸쳐 하버드 대학원 종교학회장 데이빗 쥬닛가 박사의 불교 강좌를 마련한다. 영어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의 주제는 '현대 미국불교 및 세계불교'이다. (02)577-5800

▲불교문화=경산조폐창 불자회 '금강'은 서예, 서각, 한문 교양강좌를 마련했다. 서예, 서각강좌는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진행되며 강의는 김난영(계명대 서예과 강사) 씨가 맡았다. 또한 한문강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2시 10분에 〈논어집주〉를 교재로 진행된다. (053)810-0272

모집

▲강화답사 참가자=답사모임 터사랑은 '동막갯벌 체험과 강화 찾아가기' 답사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17일 오전 8시에 시작되는 이번 답사의 일정은 동막해수욕장 갯벌탐사→부근리 고인돌→고려궁지이다. 참가비는 38,000원. (02)725-12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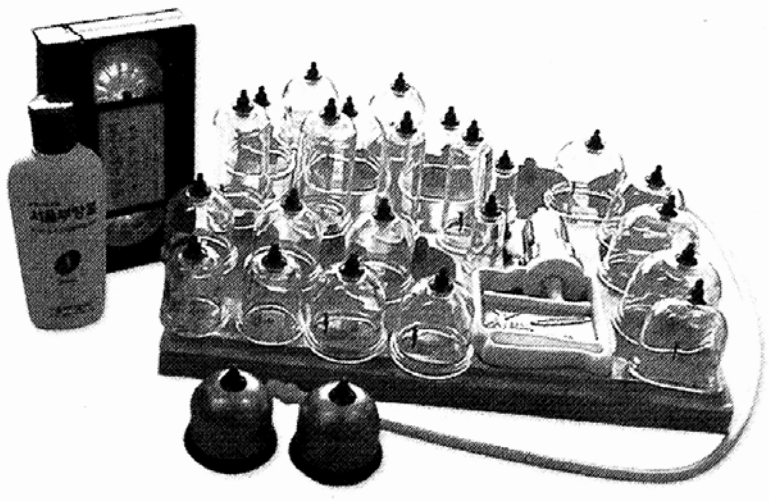
▲문화·건강 강좌 수강생=양정청소년수련관은 문화 및 건강 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강좌에는 생활한문, 한국무용, 가야금·장구 등 13개 과목이 개설됐다. 수시 모집. (051)868-0750

▲통신강원 수강생=봉선사 불교전문 통신강원은 강원 및 교양코스 강좌를 마련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강원코스에는 사미, 사집, 사교, 의전과 등이 개설됐고, 교양코스에는 교리, 경전 강독, 의식, 불교사 등이 개설됐다. 수시모집. (031)527-1957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전화상담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4시)
☎ 02)596-7231
■방문상담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 02)722-4162

불자님의 건강을 **藥師附缸**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 주의 : 부항은 소독이 중요합니다. 삶아서 사용하세요

타원부항의 신비를 느껴 보세요

▶ 세계불교도우의회(W.F.B)한국본부
(주) 코리아 붓다

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 8동 1653-6 (새한빌딩 401호)
TEL : 02)864-8834~6 / FAX : 02)839-2185 인터넷 : www.koreabuddha.co.kr

"경남불교 키우자" 금강불교대 열고 포교사 양성 헌신

신행현장

조재완 법사의 바쁜나날



◇지난해 9월 성주사에서 열린 금강불교대학 입학식에서 입학생들에게 포교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당부의 말을 하고 있는 조재완 법사.

꽃의 여왕답게 향기와 색으로 아름다움을 자랑하던 장미가 꽃잎을 떨구고 있는 유월의 장미원. 그 한켠에 자리한 금강불교대학을 오가는 조재완(43 ·경남포교사 팀장) 법사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포교사 양성의 원력으로 시작한 불교교양대학 전반을 챙겨야 하는 조법사는 때론 초심자들의 신심에 불을 지피는 선배포교사로서, 때론 재정을 조달하는 후원자로서 챙길것이 많아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형편이다.

17년전부터 포교사로 활동해온 조법사는 경남지역 포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 육군종합 정비창, 제9탄약창 등의 군포교와, 불교장의문화 보급을 위한 창원불교연화회 활동과 장의 염불 봉사, 불교문화연구소 활동 등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일이면 어디든 갔고 무슨 일이든 실천해 왔다.

'초창기에는 포교사들의 위상이 없어 개인적으로 불교문화연구소를 열어 불교문화답사나 연구를 통해 일반인들의 관심을 모으는데 주력해 왔죠" 조법사의 말처럼 포교사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은 불과 3~4년전부터이다. 그러나 점점 넓어지고 전문화 되어가는 포교현장에서 경남지역에 5명뿐인 포교사 수는 활동에 한계를 가져왔고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그로서는 대책이 절박했다.

"스님들이 포교사를 양성하는 교양대학을 설립해서 인재를 길러주고 저는 활동에만 주력하면 좋겠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 재가자로서는 쉽지 않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장미원 한켠에 법당과 강의실을 조그맣게 마련하고 조계종의 인가를 받은 금강불교교양대학이 문을 열었다. 경상남도내 최초로 조계종 인가 불교교양대학이 탄생한 것이다. "불법을 제대로 전하고 실천하는 포교사를 양성하겠다"는 서원 하나로 적자가 뻔한 불교교양대학 재정을 도맡으면서까지 시작한 일이지만 주위에선 재가자가 너무 나서는 것은 아닌가 곱게 보지 않는 시선도 있었고 그에 따른 어려움도 만만찮았다. 그러나 17년동안 경남곳곳에서 왕성한 활동으로 인정받아온 그의 경력과 넓은 교류가 든든한 지지기반이 되어 이제는 어느정도 자리를 잡았다. 현재는 인원이 25명 밖에 되지 않지만 "경남지역 포교사들의 조직이 어느정도 꾸려지면 스님들의 힘이 닿지 않는 부분에서 제 역할을 찾아 나갈 계획"이라는 조법사는 자꾸 할 일이 떠올라 계획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조법사가 세우고 있는 큰 계획의 줄기는 두가지. 하나는 불교의 재가 조직을 갖추어 사회운동, 복지 분야에서 역할을 키워나가는 것이고 둘째는 금강불교대학을 불교를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전문 대학원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군부대 정기방문
장의염불 봉사 등
언제나 어디서나
부처님 가르침 실천

"스스로 실력을 갖추고 불법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조재완 법사는 늘 자신을 추스리며 불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 일주일에 두 번 서울을 오가며 동국대 불교대학원 장례문화학과에도 다니고 있다.

"자신을 위한 투자가 가장 많다"는 조법사는 금강불교대학에 투자하는 것도 결국은 모두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부처님 법 널리 전해 사람들이 지혜로워지면 좋은 세상이 되고 그러면 그 좋은 세상에서 자신이 살게 되기 때문이란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생활속의 불교

빚쟁이로 살지 않으려면

누구를 막론하고 인간은 더불어 사는 존재이다. 혼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 자급자족도 실은 불가능하다. 모든 생명체는 베풀고 나누는 관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인간들끼리만 더불어 사는 게 아니다. 자연의 혜택 없이는 그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많은 나 아닌 것으로부터의 은혜로 살아가는 셈이다.

우리는 흔히 제 분수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듣는다. 그것은 욕심을 억제하라는 의미이기 이전에 빚을 지지 말라는 뜻이다. 어느 한 순간이라도 나 이외의 것으로부터 뭔가를 꾸준히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인 이상, 나의 삶은 순간순간이 빚을 지는 삶인 것이다. 고로 사는 동안에 빚은 늘어만 간다. 꾸준히 되갚지 않는다면 누구나 눈을 감는 순간에 엄청난 빚더미를 남겨 놓고 가게 된다. 그래서 더 갖기를 바라지 말고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알라는 것이다. 더 갖겠다는 욕심은 빚을 더 지겠다는 것이니 어찌 일생을 통해 빚 잔치나 하고 살아가려 하느냐는 물음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분수와 만족을 넘어 은혜에 감사하고 매순간 회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먼저 감사한 줄 알아야 갚을 마음도 생긴다. 감사한 줄 모르는데 베풀고 나눌 마음인들 생기겠는가. 감사할 줄 알아야만 의당 갚아야 하겠노라는 마음이 생긴다. 절로 무주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대체로 일상 속에서 감사할 줄 모른다. 특별하게 주고 받는 관계가 아니면 으레 그러려니 생각한다. 그래서 예불 때마다 오종대은(五種大恩)만이라도 명심하라고 가르친다. 얼마나 은혜를 모르고 살면 아침마다 이를 외우라고 했겠는가.

먼저 지금의 나 자신에게 감사해 보자. 내 정신이 바르고 사지가 멀쩡하다는 사실에 감사해 보자. 그런 다음에 감사의 대상을 주변으로 확대시켜 보자. 내 가족 한사람 한사람이 감사한 존재로 마음에 떠오를 것이다. 내 이웃, 내 직장의 동료 중에도 감사하게 느껴지는 얼굴이 생각보다는 많을 것이다. 나아가서는 저 푸른 하늘도 감사하고 바람 물 불에도 감사할 일이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龍眼

주제가 있는 법문

"인과법만 마음에 새겨도 훌륭한 불제자 입니다"



일문스님
파주 보광사 주지

처음 불교를 접하는 사람들은 대개 불교는 그 사상이 심오해서 어렵다고들 합니다만 불제자로서 신행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인도하시는대로 불교의 첫 걸음부터 한계단 한계단 씩 밟아 올라가면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처음 입문하는 제자들에게 인과법문을 하시어 인과를 깊이 이해하고 믿는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인과법이야말로 불교인이나 아니냐를 가름하는 시금석인 것입니다.

선행을 쌓으면 좋은 과보를 받고 악을 행하면 나쁜 과보를 받는다는,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는 이 인과응보의 법만 마음 깊이 새기고 실천하면 훌륭한 불제자라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모든 행동과 사고
'인과' 기준 삼자

"업에 따라 윤회의 굴레는 생기고 마음이 그것을 굴리면서 가노라.

돌고 돌다 그 인연이 다하는 곳에 이르면 생사의 굴레는 돌지 않고 멈추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이 인과의 사슬을 벗어나는 길입니다.

10여년전쯤 안양교도소 법회에서 알게 된 재소자가 생각납니다. 그는 다부진 체격과 흥터투성이의 얼굴이 인생의 어두운 길을 걸어온 이력을 그대로 말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외모와는 어울리지 않게 그 두 눈만은 매우 맑고 고요했습니다. 그 맑은 눈 때문에 항상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는 고교시절 우연히 길에서 불량 학생과 시비가 붙게 되어 범죄의 길로 빠지게 된 재소자였습니다. 매를 맞고 3일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끙끙 앓게 되자 분에 못 이긴 그는 무술도장에 다니며 싸움 기술을 익혔고 기어이 그 불량학생에게 복수를 했어요. 결국 폭력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고 교도소를 밥먹듯이 드나들다 보니 30여년의 세월이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어느날 교도소에 앉아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어 버렸을까'를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은 고등학교때 매를 맞고 복수를 하게 된 것을 계기로 급전직하 밑바닥으로 떨어진 것이지요. 그러다 교도소 도서관에서 불교책을 빌려 읽다가 인과를 알게 되었지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한 과보가 있다는 인과법문을 접하자 마음이 깊이 와 닿는 바가 있어 불교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그와는 내가 사정이 생겨 교도소 법회를 그만두게 되면서 헤어졌어요. 그 뒤에도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 교도소를 나왔다면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했는데 지난해 우연히 그가 출가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10대 시절 폭력을 폭력으로 갚으려 한 인과로 오랜 세월 방황한 그가 먼 길을 돌아서 늦게나마 부처님의 제자로 출가한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는 틀림없이 훌륭한 수행자가 될 것 같은 믿음이 듭니다. 금생에 어느 산모퉁이에서라도 한번 만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를 떠올릴 때면 인과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지은 것은 자기가 받게 마련입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 설하신 인과법을 자신의 모든 행동과 사고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 인생은 항상 행복하고 긍정적이 될 것입니다.

누구의 삶도 인과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신행 캘린더

6월 16일 (토)

■포교사단 정기연수=서울, 경기 포교사단은 오후 3시 동국대 중강당에서 상반기 정기연수회를 갖는다. 이날 연수회는 '불교 상담과 정신 건강'을 주제로 한 불교상담개발원 이근후 원장의 강의와 사례발표로 진행된다. (02)737-7588

■석불회 정기법회=대한중석초경석불회는 오후 4시 죽림사에서 6월 정기법회를 봉행한다. (053)760-7453

■전남경찰청 불자회 창립=전남지방경찰청 불교회 창립법회가 오전 11시 전남도청회의실에서 봉행한다. 전남지방경찰청 경승실장 천호스님의 집전으로 진행되는 이번 법회에는 26개 경찰서 불자회 호원들이 참석한다.(018)250-3116

■하계수련대회=보현불교대학은 오후 3시부터 17일 오전 11시 20분까지 원대수련원에서 하계수련대회를 개최한다. (042)932-0562

6월 17일 (일)

■경기도 불자공무원 합동법회=경기도청 공무원 불자회는 오전 10시 수원 용주사에서 합동법회를 봉행한다. (031)249-4319

■맑고향기롭게 알뜰시장=맑고향기롭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서울 성북동 길상사에서 알뜰시장을 개최한다. (02)741-4696

■무량사 답사=불교문화답사 모임 아제아제는 오전 9시 충남 보령 무량사 답사 길에 나선다. (062)225-8825

6월19일 (화)

■성북사무소 불자회 정기법회=첨불협 성북승무사무소 불자회는 오후 2시 기원사에서 정기법회를 갖는다. 이날 법회는 기원사 주지 상현스님의 법문과 〈초발심자경문〉 강의로 진행된다. (02)974-4342

■KAI법우회 체육대회=대우종합기계 한국항공우주산업 법우회는 경남 창원시 외동초등학교에서 체육대회을 실시한다. (055)280-4414

■호국영령 합동천도재=고양시 불교사암연합회는 오전 10시 30분 고양시 문예회관에서 호국영령 합동천도재 및 생전예수재 대법회를 봉행한다. (02)381-7970

6월 20일 (수)

■서울 보타사 불교문화체험=충남 괴산 보타사는 문예진흥원의 국제문화학교 사업 일환으로 전통사찰음식 및 불교문화체험'을 개최한다.(02)928-20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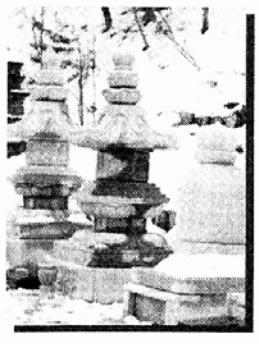
허가번호 파주시 제20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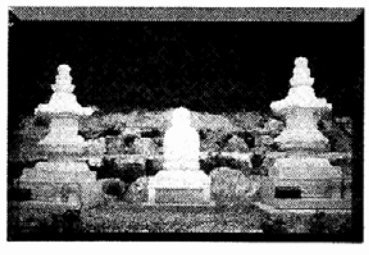
묘지걱정 이젠 안하셔도 됩니다

분양

"새로운 장례문화 가족 납골탑으로 해결하십시요"

화장을 해 납골봉안 하는 장묘문화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요즘은, 파주시 거북산 약수암 경내에 가족 영탑공원을 조성하여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혼백을 자손과 모두 한마음안에 평안히 영생케 하고자 합니다.





약수암납골당의 종류
가족/선산탑
부부탑, 개인탑
합동탑

약수암납골당의 특징
★탑 하나에 16기의 영가를 안치해 가족 대대로 영구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약수암에서 스님이 직접 설, 한식, 백중, 추석등 1년에 4회 합동천도재를 올립니다.
★경관이 좋은 사찰 경내에 있으며, 100기 미만의 소규모로 내 조상과 똑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관리 합니다.
★넓은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으며, 파주시 지정 약수터로서 맑은 샘물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교통이 편리합니다.(벽제 회장장에서 25분거리)
★납골탑의 재질은 국내산 화강석으로 시공하였습니다.

한국불교태고종 약수암 주소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 3리 347-1
♣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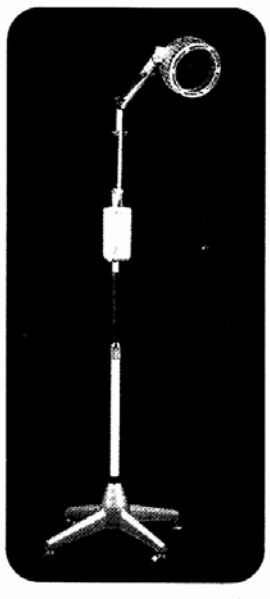
문/의/처
☎(031)952-4801
H · P 011-234-4801

생명의 빛 神燈(신등)의 秘密(비밀)공개!

(T.D.P치료기)
- 중국이 낳은 또 하나의 기적 -

신등이란? 특정전자기파, 생체 에너지파, 슈퍼원적외선파, 마이크로파, 반도체파, 초단파 등 11개 파장이 동시에 발생되어 그 열파장은 피부깊숙히 80mm까지 흡수되고 공진작용과 에너지 농축으로 무질서한 세포 파괴된 염세포를 바르게 정리 재생 회복시켜주며, 그리고 면역체계 상승과 모세관 혈행순환을 촉진시켜 신진대사 기능이 증가되어 병변부위를 신속히 정상회복 시켜준다. (그 비밀은 바로T.D.P에 내장된 Black Disk의 신비에 있다.)

블랙디스크(Black Disk)란 TDP치료기의 핵심장치로서 인체구성의 기본 원소인 30여종 무기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필수품(증상별)

1. 항상 속이 더부룩한 소화불량증으로 악성변비, 장염으로 고생하시는 분
2. 뼈관절 증상(허리, 무릎, 목, 골반) 각종 통증으로 땡기고 절인 증상 등
3. 혈액순환 장애로 머리무거움, 숨참, 가슴이 뛰고 답답함, 현기증, 손 발 배가 냉한 증상
4. 신장기능 장애로 손 발 얼굴 부종이 잦고 소변에 이상이 있는 이뇨장애자
5. 간 기능이 떨어지면 눈에 심한 피로와 충혈로 침침하고 기관지염으로서 깊은 잠을 못자는 분
6. 피부증상(악성 세균성 피부질환, 요실금, 습진, 무좀 화장이 잘 안받는 거친 피부)
7. 부인과 분야(냉증, 세균성 염증, 월경이상과 통증, 불임, 불감 제증상)
8. 고질적인 치질 · 치루 · 탈항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
9. 전립선 기능장애와 생식기능 장애로 마음이 쓰이는 분은 꼭 필요함

※ 전세계 발명품 금상수상
(중국국립의료원 세계정상급 의학자 200명 임상실험자료)
전세계 수출(물리치료기-병원용겸 가정용)
한국 수입 품목 허가 번호 (01-506)
한국 각 종합병원, 한방병원, 보건소 등 200여곳 설치 사용중
■ 미국F.D.A에서 특정 자기파(특정자기파) 치료기 인정 (K875052)
■ 유고 의료박람회 금상, 벨기에 부르셀박람회 은상
■ ISO (9001) 획득

金賞
세계발명품 박람회 금상수상

※ 각종자료 - 무료 우송함

◆ 전국 대리점 모집 중 ◆

(수입원) (주) 휴먼.라이프 상담대표전화 : 주,야 02)522-2464 / H.P: 011)9742-2550



박태원 교수의 40

불교로 보는 신생

해외유학, 박사 취득, 대학교수로 이어지는 소위 엘리트코스를 힘차게 걸어온 후배가 언젠가 이렇게 하소연했다.

"선배님, 아시다시피 대학 시절 때는 나도 불심을 가꾸는 일에 누구 못지 않게 몰두하지 않았습니까? 법문도 열심히 쫓아다니며 경청하고, 읽은 불서도 꽤 되며, 수련 대회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지요. 그런데 정작 내가 불교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나 반문해 보면 곤혹스러워집니다. 단편적인 불교 지식이나 용어에는 제법 익숙해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면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할 만한 불교 기초가 의외로 빈약하다는 점에 스스로 놀라곤 합니다."

후배의 고민은 그만의 것이 아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그와 같은 경우가 의외로 많다. 선(禪) 불교의 저 기슴 설레도록 강렬한 깨달음의 기백, 대승불교의 현란한 사상적 깊이오 감동적인 보살의 길에 흠뻑 젖어 불문(佛門) 안을 거침없이 헤집어 가면 초발심들은, 어느 순간 실로 가 기초에 문제가 있다. 마치 공중에 발을 딛고 있는 느낌이다. 하면 할수록 앞으로 나아간다는 확신이 들어야 할텐데 그렇지 못하구나. 아직 수행의 실마리를 분명하게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에 빠진 것이다.

오랜 역사의 한국불교는 역설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에 낯설다. 후기 대승불교를 통로로 하여 부처님과 만났기에 오히려 부처님 육성에는 생소하다. 사성제의 언어에 직접 의거하여 수행하면서 그 깊은 뜻을 음미하는 충분한 과정과 경험이 결핍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해탈의 길 팔정도를 실제적인 수행 지침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정은 일본이나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내로라 하는 일본의 초기불교 전문학자들의 글을 읽다보면, 지식은 풍부한데 '마른 지혜' 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사성제를 음미하는 수행 경험이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 남방불교 수행자들의 해설은 수행에서 우러

사성제와 한국불교

> 대승불교를 통로로 부처님과 만났기에 생소한 부처님 육성

엉뚱한 회의에 맞닥뜨리곤 한다. 부처님 해탈 가르침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의외로 결핍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당황한다. 많이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딱히 '이것이 불교요 해탈로 가는 수행 길이다. 나는 지금 그 길을 이렇게 걷고 있다' 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불교 이해의 기본 얼개가 분명하지 않은 것이다. 결코 둔하지 않은 그가, 불문에 든 지 20여 년이 지나 새삼 불교에 대한 기초에 문제가 있음을 느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연유에서인가.

후배와의 대화에서 확인된 문제의 핵심은 그가 너무 후기불교의 언어에 경도되어 초기불교의 이해에 취약하다는 것이었다. 해탈의 길로 안내하는 부처님의 친절한 지침인 사성제(四聖諦)에 관한 이해가 너무 약했다. 부처님이 직접 설한 해탈 수행법인 사성제를 그는 실제적인 수행 지침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마음의 도리, 공의 이치에 관한 후기불교의 현란한 언어에서 사변적 만족을 얻는가 하면, '역시 참선을 해야 수행이지!' 하는 마음이 들 때면 화두 드는 흉내를 내곤 하였단다. 그러다가 문득 '이거 무언가 나는 맛과 깊이가 돋보인다.

사성제를 깊이 음미해야 한다. 팔정도를 가장 확실한 일상의 수행 길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후기 대승불교, 선종의 언어는 사성제, 팔정도의 오의(奧義)를 밝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다행히 남전(南傳)과 북전(北傳)이 만나 한국불교의 결핍을 보완하고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는 여건이 펼쳐지고 있다.

좋은 자료들도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특히 '고요한 소리' 의 책들을 권하고 싶다. 이미 15년 전부터 원대한 문제의식으로 〈남전대장경〉의 완전 번역 작업을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 '고요한 소리' 가 펴내고 있는 소책자들, 사성제로 기초를 다지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 울산대 철학과 교수
twpark@mail.ulsan.ac.kr

불교유적 돌며 '불자의 삶' 재발심

참불자의 길 성지순례



◇대각암 주지 묘각스님이 성지순례단에게 선암사 경내를 설명하고 있다.

올 들어 국내외 성지순례를 하는 사찰과 신행단체가 눈에 띄게 늘었다. 신문 등 각종 매스컴에서 주말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찰 순례 모집이다. 그만큼 참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21일까지는 보통 3년마다 한번씩 돌아오는 윤달이라 3사 순례를 하는 사찰들이 많다. 그러나 성지순례는 단순히 '답사간다' 거나 '쉬러 간다' 는 거념보다는 그동안 흐트러졌던 마음을 추스르고 새롭게 발심하는 마음으로 떠나야 할것이다. 즉 하나의 수행방편으로 삼자는 것이다.

4년간 매달 한번씩 사찰 순례를 하고 있는 김성동 씨(42)는 "바쁜 직장 생활로 평일 사찰에 나가 기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겸 사찰 순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며 "사찰을 참배해 부처님과의 인연을 두텁게 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부처님 전에 재발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매달 참가하고 있다"고 만족해 했다.

생전에 많은 도량을 찾아 자신의 업장을 소멸하고 공덕 쌓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성지 순례를 한다고 토로하는 이들도 많다. 심산유곡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선지식의 감로 법문을 듣는 것도 성지순례에서 가질 수 있는 또하나의 즐거움이다.

신도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자주 다니는 현각 스님(성불원 주지)은 "스님들이 인연 닿는 대로 수행처를 돌아다니며 만행을 하는 것처럼 사찰 순례도 재가불자들에겐 또하나의 수행"이라며 "사찰은 부처님을 모시고 스님들이 정진하는 신성한 도량인 만큼 사찰에서의 예절을 미리 숙지해 불자로서의 자세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조언한다.

요즘 들어서는 성지 순례를 하며 오랜 세월동안 법등을 밝혀 온 사찰에 산재한 수많은 불교유적을 보는 즐거움에 흠뻑 빠지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불보살상을 비롯해 탑·비·석물·공예·불화 등 우리 문화의 중심인 불교문화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배우기 위해서 사찰을 찾는다. 이들은 주로

> 업장소멸·공덕쌓기 관광보다 문화재공부 '성보지킴이' 역할도

전문 답사가나 안내자들이 함께가는 성지 순례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이런 목적으로 참가하는 사람들은 전통사찰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성보문화재를 수박 겉핥기 식으로 둘러보는 관광형태의 순례에서 벗어나 문화재적인 가치와 의미를 꼼꼼히 새겨보고 돌 한 조각에서라도 조상들의 지혜와 숨결을 느끼기 위해 노력한다. 이런 과정에서 허술하게 관리되는 성보문화재를 발견하면 즉시 그 주변을 정리하고 관할 당국에 시정을 요구하는 '성보 지킴이' 도 간혹 눈에 띈다. 이와같이 답사를 자신의 신심을 점검하고 불교 문화 유적을 아끼는 신행의 현장으로 삼는 답사모임도 많다. '한국석불선양회' '불교유적 답사회' '여래지답사회' '터사랑' '여행과 불교를 사랑하는 사람들' 등이 바로 그것이다.

성지를 향해 집을 나섰다면 부처님 가르침의 참의미를 깨닫고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우선돼야한다. 아울러 성지순례를 단순히 여행간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바쁜 일상속에서 잠시 여유를 찾고 흐트러진 신심을 다시 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는 것도 중요하다.

김주일기자

禪과 21세기

'서장' 통한 선 공부 ⑰ 진소경에 대한 답서(3)

붉은빛과 보라빛 누가 이름지었나?



김태완
부산대 강사·철학

"시끄러운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곳을 만날 때마다 늘 스스로 점검하지만, 아직 공부에 힘쓰지 못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이 피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공부를 마칠 곳입니다. 만약 다시 힘을 써 점검한다면 도리어 멀어질 것입니다.

옛날 노화엄(老華嚴)은 말하기를, '불법(佛法)은 매일 매일 쓰는 곳과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곳과 차 마시고 밥 먹는 곳과 이야기하고 묻는 곳과 행위하는 곳에 있으니, 마음을 들어 생각을 움직이면 도리어 옳지 않다' 고 하셨습니다. 피할 수 없는 곳을 딱 마주치면, 절대로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여서 점검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조사(祖師)께서 말했습니다. '분별이 생기지 않으면 텅 비고 밝아서 저절로 비춘다.' 또 방거사도 말했습니다. '매일 쓰는 일이 따로 없고 오직 나 스스로 마주하여 잘 어울린다. 한 물건도 취하거나 버리지 않고 곳곳에서 어긋남이 없다. 붉은빛과 보라빛을 누가 이름지었는가? 언덕과 산에는 티끌 한 점 없구나. 신통(神通)과 묘용(妙用)이 물 긷고 나무 나르는 것이다.' 또 선성(先聖)이 말했습니다. '마음을 가지고 분별하고 헤아리기만 하면 자기 마음의 드러남이 모두 꿈이다.'

회피할 수 없을 때에 마음으로 헤아리지 마십시오. 마음으로 헤아리지 않을 때에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여여합니다. 또한 이해함이 날카롭다고도 하지 말고 무디다고도 하지 마십시오. 날카롭고 무딘 일에 조금도 상관치 말고, 고요하고 시끄러운 일에도 전혀 상관치 마십시오. 피할 수 없을 때에 딱 마주쳐서 홀연 의식(意識)의 포대를 벗겨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박수를 치며 크게 웃을 것입니다. 만약 이 일을 털끝만큼이라도 공부를 통하여 증명하려고 한다면 마치 사람이 손으로 허공을 붙잡아 어루만지려 하는 것과 같아서, 다만 스스로 피로할 뿐입니다."

일상의 삶이라는 것은 순간 순간 마주치는 경계의 연속이다. 이렇게 매 순간 피할 수 없이 경계들에 마주칠 때 그 경계를 혹은 이렇게 이해하고 혹은 저렇게 바라본다고 하면, 이것은 경계와 나 사이에 의도적인 마음이 개입되어 경계와 내가 마주하여 상대하는 것이다. 마주하여 상대하게 되면, 그 상대를 배척하든 끌어들이든 무시하든 어떤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하며, 의도적인 노력은 힘들고 피곤하며 두려운 일이다.

선에는 힘들고 피곤하고 두려운 일이 없다. 선을 알게 되면, 매 순간 순간 피할 수 없이 마주치는 경계가 모두 나의 반대편에 나를 상대하여 서지를 않는다. 즉 선에서는 상대가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해석하거나 이해하거나 배척하거나 끌어들이거나 무시하거나 하는 피곤한 행위를 할 일이 없다.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각을 움직여서 경계와 내가 둘인가 하나인가를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점검하려는 노력이 생기는 것이 이미 대상과 나를 나누어 놓고 있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둘인가 하나인가를 아무리 점검하려고 노력하여도 결국 둘일 뿐이다. 하나임이 분명하다면 점검이 필요 없으므로 점검하려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일상에서 피할 수 없이 경계를 마주치게 되면, 우선 힘써 경계를 상대하여 경계를 파악하려고 하지도 말고, 또 경계와 다른 나 자신 혹은 경계 위에서 확인되는 나 자신을 확인하려는 노력도 하지 말라. 어떤 경계가 나타나든 상대화시켜 판단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놓아두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식으로든 판단하려 하지 말고 그대로 수용하라.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그곳에서 홀연 벗어나는 길을 찾게 될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만약 상(相)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대로가 여여(如如)하여 다름이 없을 것이다"라 하고 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상대화시키는 것은 모두 상을 취하는 것이다. 상을 취하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의 일거수 일투족과 한 생각 한 느낌이 모두 여여한 법(法)일 따름이다. 있는 그대로가 여여한 법인데 다시 공부를 하여 법을 증명하려 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망상을 만드는 어리석음일 따름이다.

2545 禪의 향연 2001
대둔사 여름 참선 수련회 모집 안내

번뇌를 벗어남은 보통일이 아니니 고삐끝을 꼭 잡고 한 바탕 일을 치루라
매서운 추위가 뼈속에 사무치지 않으면 어떻게 매화 향기 코를 찌르랴. — 황벽선사 —

일 정

구 분	찻수	기 간	모집인원	수련비용	비 고
일반부	1차	7월 9일~7월13일(4박5일)	35명	70,000원	19세~55세
	2차	7월16일~7월20일(4박5일)	35명	70,000원	19세~55세
	3차	8월 8일~8월14일(6박7일)	35명	90,000원	19~55세(유경험자)
청소년	1차	8월 1일~ 월 4일(3박4일)	100명	30,000원	중, 고등부 학생
어린이 숲속마을	1차	7월24일~7월26일(2박3일)	150명	20,000원	초등학생
	2차	7월28일~7월30일(2박3일)	150명	20,000원	초등학생
지원봉사자 — 매 찻수마다 5명(여자에 한함. 수련비 면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1,2,3차 수련회는 참선 위주로 진행합니다.

모 집 요 강 (1~6, 일반인 기준)

1. A4용지에 우측 양식대로 본인이 기재한 참가 신청서를 신청인의 주소와 빠른우표가 첨부된 반신용 봉투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팩스·e-mail 접수는 받지 않음)
2. 정원관계로 신청자 중에서 수련원 소정의 심사로 선발합니다.
3. 기재사항을 빠뜨리거나 부실한 신청서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4. 신청마감일은 6월29일(금) 우체국 소인까지입니다.
5. 7월5일(목)까지 동참가부를 개별통지해 드립니다.
6. 수련기간중 조석108배, 참선 등을 수행하므로 심장병, 관절염, 디스크등의 질병이 있으신 분은 수련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7. 보낼곳 : (우536-811) 전남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799 대둔사(대흥사)수련원
8. 문의처 : 수련원 ☎(061)535-5775
   팩 스 (061)535-5357
   홈페이지 daedunsa.com
   온라인 : 예금주 — 대흥사
   우 체 국 502716-01-000640

※청소년과 어린이는 별도의 신청서 없이 전화로 신청합니다.
※교통편 : 1)출발지(고속버스터미널) → 광주 고속버스터미널 (하차)
2)광주 고속버스터미널 → 해남 터미널(하차) - 광주 터미널에서 20분 간격(2시간 소요)
3) 해남 터미널 → 대흥사행 중점(하차) - 해남터미널에서 30분 간격 (약 25분 소요)

신청서 양식

대둔사 참선수련회 참가신청서
이름 한글 한자 법명 성별 남/여
주소 ( )
주민등록번호
전화 · 팩스 · e-mail
직업 (구체적으로) 종교
수련회 경험 유무
복( ) 有( ) 후 년도 제 회
희망차수 제 차
(월 일부터 일 까지)
참가소견(자세하게)
년 월 일
신청인

대한불교조계종 제 22 교구본사 **대 둔 사 (대흥사)** 주지 보선 / 수련원장 법인 합장

"『강청화 대선사님』 초청합동 천도 대법회에 초대합니다"



우리 죽림정사에서는 창립 11주년을 맞이하여 이시대 위대한 스승이시며 대선사로 추앙받는 원로위원이신 강청화 큰스님을 증명법사로 모시고 성망조상 영가와 유주무주 고혼영가 합동 천도대법회를 봉행하오니 인연있는 불자님께서는 이 청정무변한 법석에 동참하시어 그 공덕으로 다생 업장소멸하여 지혜와 복덕 구족되여 성불의 대도를 성취하시기를 합장기원합니다.

❖ **천도법화일시** : 불기 2545년 6월 16일 1시 (음) 윤 4월 25일 1시
❖ **장 소** : 죽림정사 법당
❖ **동 참 기 도 비** : 3만원(영가 2분) 추가 1위당 만원

※ 영가 천도에 동참하실 불자님께서는 14일까지 접수해 주시면 혼잡을 피할 수 있겠습니다. (전화 접수 가능)

대한불교 조계종 **죽 림 정 사**
우 422-220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242-2.
전화 : 032)679-3490, 684-5516

이렇게 들었다

노사화해

"남 먼저 생각하면…"

▩모든 중생들 저마다 이익을 위해 각각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것 따르니 마음 속에 바라는 것은 한 가지이나 사업을 이룸에는 참아 이기는 것이 제일이니 뜻을 이루고자 하면 먼저 인욕함을 배워야 한다.

<별역잡아함경>

▩보살은 길을 가면서 두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 매우 더울 때와 비가 오는 때에 나무 그늘이나 집이 있으면 남에게 먼저 앉으라고 양보하며, 우물이 나 샘물이 있거나 타인의 물 가진 것을 보았을 경우면 남에게 먼저 마시라고 양보하는 것이 그것이다.

<보살내계경>

임금 및 단체협약 개정 시즌인 6월 초입부터 정·재계와 노동계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 정부가 5일 파업 중인 효성 울산공장에 공권력을 투입하자, 이미 총파업을 선언한 노동계가 이에 반발해 '6월 연대투쟁'을 '정권퇴진 투쟁'으로 확대할 뜻을 보여 노·사·정 관계에 먹구름이 일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임금 인상 외에도 구조조정 저지, 주5일 근무제 도입, 공공의료 쟁취 등의 사회적 이슈와 입법투쟁 등을 망라한 광범위한 문제들이 6월 한 달간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돼, 향후 힘난한 파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재계와 노동계의 대립을 어떻게 상생의 길로 유도할 것인가. 이런 점에서 〈장아함경〉에 기록된 교단을 발전시키기 위한 부처님의 일곱 가지 방도는 하나의 교훈이 될 수 있다.

즉 "첫째 서로 자주 모여 정의를 강론하라. 둘째 상하가 하나로 협력하여 공경하고 뜻을 어기지 말라. 셋째 법을 받들고 금할 것을 금하여 제도를 어기지 말라. 넷째 스승을 받들어 섬겨라. 다섯째 마음을 닦되 효도와 공경을 우선으로 하라. 여섯째 계행을 닦아 욕심과 감정에 치우치지 말라. 일곱째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를 뒤로 하며 명예와 이익을 탐내지 말라. 그리하면 법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니라"고 하셨다.

이와 같이 정·재계와 노동계의 '예고된 갈등'을 슬기롭게 헤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양측이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는 노사간의 상호이해에 따른 인내와 협력에 국운의 사활이 달려 있다는 점에서도 시급한 문제이다. 〈선생자경〉과 〈시가라월육방예경〉에서 고용주와 고용인의 도리를 가르치신 부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선생자경〉에는 "힘에 알맞게 부리며, 음식과 급료를 적절히 지불해야 하며, 때에 따라 수고로움을 위로해 주어야 하며, 휴가를 주고, 병이 나면 치료해 주도록 한다"는 고용주의 도리를, 〈시가라월육방예경〉에는 "주인보다 일찍 일어나 그가 부르지 않도록 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 찾아 하도록 해야 한다. 또 주인의 물건을 아껴서 버리거나 고둑맞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인이 출입할 때 항상 예절로서 대해야 하며, 주인의 착한 점을 말할지언정 나쁜 점을 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고용인의 도리를 가르치셨다.

오종욱 기자

목타는 국토…治水대책 찾아라

불자 세상보기

극심한 가뭄 식수난 심각

물절약·재이용 생활화



이병인
밀양대
환경공학과 교수

지난 몇 년간을 주기로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봄가뭄이 심각한 문제로 반복되고 있다. 그때마다 큰 충격으로 받아 들였으나, 물 부족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은 되지 못하고, 해갈이 된 후에는 다시 잊어버리고 지내왔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몇십년만의 가뭄이라고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에 벌어지고 있는 물부족사태는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물을 물쓰듯이 하는 오늘날의 생활습성을 볼 때, 당연히 필요로 하는 용수의 사용량은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에 공급되는 용수의 량은 한정되어 있기에 물부족은 필연적으로 야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는 환경문제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걱정 때문에 물을 저장하기 위한 댐건설 등이 어려운 형편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물부족은 단순히 생활과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에서 이제는 생명의 위협을 초래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의 물은 무한정 쓸 수 있는 자유재가 아니라, 공급량이 수요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하기에 자원으로써 관리해야 하는 경제재이다.

앞으로도 기존의 추세대로 물을 사용하고 관리한다면 용수수요는 꾸준히 증대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물부족을 해결하기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물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물에 관한 수요관리와 공급관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수요관리는 물의 수요를 억제시키거나, 물사용의 효율을 개선하는 방법이고, 공급관리는 댐을 건설하고, 지하수 등을 개발하여 공급량 자체를 늘리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형프로젝트성 공급관리인 대규모 댐건설을 주로 운용하여 왔다. 그러다 보니 수량의 확보는 가능해진 반면, 흐름이 정체되고 오염원이 유입되어 부영양화 등 수질오염문제가 발생하여 수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요즘과 같은 가뭄기에는 절대적인 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다 종합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그것은 물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수요와 공급관리의 양측면을 고려한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공급관리면에서 지표수를 흐르는 댐건설 등을 통한 용수량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용수원의 대부분이 하천수와 저수지인 지표수를 이용하기에 요즘과 같은 가뭄기에는 상대적으로 지하수원에 대한 개발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다는 점이다.

가뭄기에만 급작스럽게 지하수개발을 위한 관정개발을 서두르기 보다는 평상시 준비된 계획에 의하여 지하수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유지시켜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미국이나 일본의 농촌지역의 개별주택에서 적용되고 있는 비 올 적에 집주위에 빗물저장고를 만들어 저장시켜 두었다가 다시 사용하는 시설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최근에 환경단체 및 환경부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수요관리가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우리주위에는 아직까지도 물은 자원이라는 생각이 없고, 낭비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기에 물절약을 위한 시민운동을 통하여 각 가정에서 물에 관한 수요가 감소된다면 공급량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와 함께 물의 재활용을 통하여 근원적인 물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보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은 물의 순환에 의하여 재사용한 물을 이용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용수로서 쓰고 버려지는 생활하수나 공장폐수 등을 재활용하여 이용하는 것은 물의 공급량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용수를 많이 사용하는 대형건물과 공동시설 등에서 최근 법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중수도시설이 보다 적극적으로 실용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하수처리장 방류수와 일부 공장폐수의 경우에는 농업용수 등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므로 이를 재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물 부족 사태는 이제 물의 가치와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게 되며, 그런 의미에서 물의 공급과 함께 물의 절약과 재이용 등을 통하여 물부족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독자의 소리

독자여러분의 글·사진·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보낼 곳 :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천리안 : aeum ·하이텔 : 34713

달라이 라마 방한 허용 정부 중국눈치 보지마라

작년 달라이라마 방문이 정부의 사대주의적 외교정책으로 무산되었다.

종교인사를 초청하는 일이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일인지 의문스럽고, 그 방한을 허용하지못하는 이유가 중국의 외교적 압력때문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국이야 티베트망명정부가 독립운동한다고 방문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중국의 변방인가, 속국인가? 왜 방문을 허락하지 못하는가? 이런 굴욕적인 외교는 중국의 오만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더나아가 미래 한국의 외교나 국가이익에 간섭을 하도록 하는 선례를 남겨준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티베트가 중국의 한 부분이 아님은 역사적, 문화적, 인종적으로 분명한데 아직도 옛날 황제의 제국주의 사고방식이 남아있어서 티베트인을 박해 학살하고 종교를 탄압하며 자국국민을 티베트로 이주시키는 중국은 아직도 인류보편적 평등, 자유와는 거리가 먼 나라이다.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현정부의 사대주의적 대처와 이에따른 국민의 떨어진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오만한 중국의 터무니없는 작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달라이라마 방문에 불교계는 힘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김상계(서울 종로구 인사동)

해인사 대불조성 기금 복지불사에 썼으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조성되는 불·보살상이 입상이든 좌상이든 대형으로 만들어지는 예가 흔하다. 물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런데 고려대장경을 모신 법보사찰 해인사마저 세계최대의 좌불을 조성한다니,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65억원의 예산이 든다고 하는데, 차라리 그만한 돈이 있으면 불우 복지시설에 희사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부처님 생존시 한 비구가 병이 들어 부처님 뵙기를 간절히 청하자, 친히 그 비구의 병문안을 갔다. 비구가 아픈 중에도 예배하자 부처님께서 "죽어서 썩어질 이 몸뚱이를 보고 예배하면 어떡하느냐?"면서 질책을 한 적이 있다.

현재 한국불교는 너무 기복신앙적인 면이 강하다. 불교의 근본목적인 참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건강, 나와 가족의 행복 등을 위한 기도가 주류를 이룬다. 한국불교가 이렇게 기복으로 흐르는 데에는 각 불교종단도 그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불사 건립기금으로 도서관이나 복지시설을 건립·운영하는게 백번 나을 것이며, 부처님의 자비도 그럴때 더욱 빛날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그런 시설을 짓도록 시주한 불자들의 공덕도 더욱 커질 것이다.

김현제(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불교의 구호손길 애타게 기다리는 몽골

불교의 나라 몽골은 근래들어 전례없는 자연재해에 시달리고 있다.

1996년 봄에 발생했던 대화재는 몽골의 산림과 초원을 한 달간에 걸쳐 남한 면적 이상으로 초토화 시켰다. 그 후유증으로 삼림이 파괴된 땅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고체메탄이 발생하고 있다. 1999년 봄에도 심한 가뭄으로 초원의 풀이 제대로 자라지 못해, 그 해 겨울 먹이부족으로 동사한 소, 양, 염소 떼가 무려 400만 마리에 달했다. 지난해에도 봄철의 가뭄에다 영하 70도까지 떨어진 수십년만의 혹한으로 600여만 마리의 가축이 동사했으니, 이는 전대미문의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밖에 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수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몽골의 현실을 보면 희망이 없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몽골 민족의 가슴 속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는 따뜻한 마음과 유목민 특유의 낙천적인 심성은 현재의 경제적 난관이 어느 정도만 극복된다면 그토록 높아보이는 불신과 도덕불감증의 벽도 어느정도 허물어 뜨릴 수 있을 것이다.

인구의 94%가 불자인 몽골. 깊은 침체와 좌절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몽골의 바로 오늘이 한국불교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화급한 시점이라고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기록(몽골 울란바토르 거주)

현대불교를 읽고

군불교 관련기사 확대 필요

321호의 '법당없는 부대 불자감소 불보듯' '군불자 복무중 개종 충격'이란 제하의 기사는 군포교의 현상황을 잘 보여준 기사였다. 하지만 군불교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원인과 대책을 좀더 곁들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아울러 현대불교에서도 집중적으로 군포교에 대한 현장 및 기획기사의 비중을 늘려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초코파이 하나에 종교의 선택이 엇갈리는 군포교의 열악한 현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군불교 진흥을 위해 정진하는 군법사들의 움직임과,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써가며 군포교에 매진하는 포교사들의 노고를 기사화 함으로써 그들의 원력을 선양하고 불자장병들을 격려할 수 있을 것이다.

강대섭(전북 장수군 장계면)

스님들 노후복지대책 시급

'승려 노후 복지 미룰 수 없다'는 주제의 기사는 승려노후복지에 대한 논의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좋은 기사라고 생각한다. 노후에도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승려노후복지 제도의 마련과 시행은 오래 전부터 논의된 사안이었다. 그간 승단에서는 스님들의 노후와 건강문제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개인적인 축재와 비리가 적지 않게 발생했다. 일부 스님들은 노골적으로 '젊을 때 노후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만연하다 보니 사찰의 소임을 맡은 스님들의 재정사고가 때때로 발생하는지도 모를 일이다. 차제에 승려 노후복지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여론마당을 펼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유인숙(경기 부천시 오정동)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조사가 서쪽에서온 큰 뜻은?
직지인심 교외별전
不立文字 見性成佛에 있으며
고집멸도의 반야심경 시대는 지나고 새인류 도법의 고집진도의 반야심경 여래후후오백세 2500년 불법이 도래된 지게 수복자 달마의 근본법도 진 태양
● 오본래자토 五本來玆土
● 전법구미정 傳法救迷情
● 일화개오엽 一華開五葉
● 결과자연성 結果自然成
(대한민국 통일서예대전 입상 및 대한민국 동양미술대전 제11회 특선 작품)
동경국제서화대전 제19회에서 준대상 당선작품

진인경신도통 비법에 천하의 비밀이 다 들어있다.
● 당신은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무엇을 고민하십니까?
귀하는 인생의 스승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진인도통군자제위 귀하를 용맹정진 대법회에 초대합니다. 상통천문 하달지리의 비전인 천문유초에 감추어진 오경명성과 서성명성 진법이 유성에 베일을 벗기는 경신일발 자시와 오시에 진인두통군들에게 원방각 해인도법을 직접받아 즉시 도통하고 즉시 성불하는 이번법회에 귀하를 초대하오니 다시 없는 기회이오니 동참하시어 도통군자 되시길 바랍니다.
달마의 진법을 수강받으실 분은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진인 정신 도통으로 영과 혼을 담아그린 달마상의 비법은 새태양의 법도로 흥한터, 수맥차단 초상상문, 사업장, 이사 개업 노력해도 안되는 도통과 학업, 진학, 고시등 일체 마장을 소멸할 수 있는달마도상을 한집에 한달마를 모시어 소원성취하소서. 한국불교달마종 총 본산 입문안내 - 달마종의 근본 법도와 종교의 정종과 진정한 종교의 근본 진리를 통하여 자성보와 득도견성 성불하여 만인을 구하고 위로는 꺼져가는 민족의 업과 종교의 근본 혼을 찾아 지구촌 이그러진 법도를 바로세워 사람된 도리를 다하여 만중생들의 고통을 구제하고 바른길의 지도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업 사찰 등록을 본 종단 달마종에 입문하시어 새천년을 이끌어갈 종교의 스승에 길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본 종단의 뜻을 같이하고 만중생을 제도할 달마종에 몸을 담고자 하는 도반과 인연있는 후원자 및 복지자의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제64회 진태양 진인 용맹정진으로 즉시 도통할 수있는 경신대법회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지만 말법도인들은 재물에 눈이 어두워 만물을 쫓아다니는 어리석은 세월속에서 다같이 깨어나 천년에 한번드는 1월 1일에 갑자일이 시작되는 해인법도에 감추어진 대비밀장의 기도임을 명심할지어다. 이 기도에 입문하는 분들에게는 대인류의 스승이 되는 특별기도를 양력 6월 25일 6월 26일, 자시와 오시에 상통천문 하달지리의 도통군자 잣대를 얻어 증상운 120세의 천안통 숙명통에 도전하여 종교의 병,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을 제도할 수 있는 도통군자 연기법을 대자연의 천지신명과 염라대왕에 진법을 받아 사명자 도인 되소서.
하늘의 근본법도를 알재 못하면서 제멋대로 지꺼리는 잡도에 끌리여 눈먼거북의 종행 동타죽음을 알지 못하고 도인즉하면 하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日本은 우리의 강산에 쇠못을 밖고 중국헌원황제는 우리의 마음에 쇠못을 밖은 사실을 당신은 알고계십니까?
우담바라의 비밀을.. 2000년 5월 9일의 하늘의 대서사시의 광경을이 법의 소식은 萬有·形·象법의 잣대로 설계 법측, 법척 천공, 만유의 각 5대 주문이 없는 것은 하늘의 권능으로 어떠한 도통도 불가하며, 다만 잡신에 끌리여 억망진창을 왜 모르며 몸에 태산같은 중병과 욕심과 명예의 삼독을 벗고 말문이 열리는 영통비법과 자성통을 특히 이번 법회에 득도하시어 몸에 천병, 잡신, 살이찌는병을 소멸하시고 위로는 꺼져가는 민족의 혼과 얼을 찾고 지구촌 이그러진 법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사명자, 진인도통 일류 스승 되시고 도를 통하여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입 제 : 양력 6월25일 밤10시 ~ 6월26일 亥時에 해제
●동참금 : 일금 5만원 (1박 2일 간편한 복장) 목요일 밤 입제
●온라인 : 농협 029-01-167866 곽태일 선착순 동참
02) 821-6622 / 821-7767~8 / 016) 239-3110
(1호선 노량진역 하차, 2호선 신림역7번출구,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2번출구 버스 85,25,95,26,303,142,26-3 모자원고개 하차, 동작구약사회골목입구
달 마 진인 경신 도통회장
한국불교 달마종 총 본산 약사도량 달마선원장 天龍眞人 泰日法師

四柱命理와 일반 五行術의 限界를 克服시킨
六壬來情秘法
-육임래정비법-
「易術活人天役者用」神示出刊
改訂增補版
전 내용이 한글에 한문 토(吐)가 달려 있어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책은 공부하는 책이 아니고, 보고 말하면 되는 책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1~17시까지 출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참석하시면 이 책을 더 낮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을 낮게 보실 수 있는 요령이 녹화테이프로 제작되어 60,000원에 보내드리고 있사오니 필요하신 분은 주문하십시요
★래방인에게 던질 첫 말을, 초사(初辭)란에 송곳같이 적시(摘示)해 놓았습니다.
★해당 국수(局數)에, 붙어 오는 내용을 23가지 용건별(用件別)로 채출(採出)시켜 놓았습니다.
이 책은, 입문서가 아닌 천역자용으로서 즉시적 효용에 중점을 두어 난해한 육임을 따로 연구할 필요없이, 당일의 시간만 펼쳐 보면 순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놓았음은 물론, 四柱로는 판단이 안되는 각종 육임비법등을 요약·정리, 수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철학관이나 사찰이나 무속점이나 한의원에 사람이 들어서거나 전화가 오거나, 어디를 가서 만났을 때, 출생년월일시를 묻지 않고도 그 날 그시간만 보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아 버릴 수 있게끔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를테면,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이미 일어난 일인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 언제 일어날 것인지, ●자기가 저지른 일인지, 남에게 당한 일인지, ●그 안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천성이 악한지 선한지, ●나에게 이익줄 사람인지 피해나 손해나게 할 사람인지 무력한인지
●첫마디를 어떻게 하면 적중할 것인지(이는 초사란에 적혀 있습니다.)
등에 대해 아주 쉽게, 들어다만 보면 알 수 있도록 표시해 놓아, 미리 그 情況을 직접하므로써 本人의 顔色과 자세를 바꾸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日常生活에서 간단하게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든 形而上學으로서의 「카리스마」를 유지하고, 존경·귀의 받을 수 있는 비법들로는,
- 약속인이 올지, 안올지,
- 돈이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누구로부터 될지,
- 매매가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될지,
- 잉태아가 남아인지, 여아인지, 수술해 날 아이인지,
- 혼인이 성립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 선한 사람인지, 악성인 인지,
- 부탁한 건이 이루어질것인지, 숙을 것인지,
- 이사 방위는 어느 쪽이 좋을 것인지,
- 계획사가 잘될 것인지,
- 찾아갈 사람이 집에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 무슨 병인지 치료 될 수 있는 병인지, 못 고칠 병인지
- 언제부터 차도가 있게 될 것인지,
- 지우기 순조로운지 더디지
- 분실물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어디에 있을지,
- 어느 방위로 도망가야만 안전할 것인지,
- 여행이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
- 승부사에 이길지, 질지,
- 온 사람을 재워야 할지, 재워서는 안될 것인지,
- 상대가 나에게 이익이 될 사람인지, 해가 될 사람인지,
- 내일 비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즉시 짜맞려지게 알아 맞혀줄 수 있도록 간추려 놓았습니다.
특히 본문에는 60甲子 매일 매시간별로 本人의 사정을 표현해 놓아, 누구나 전화한 시간만보면 그 사정이 환히 드러나게 되어있고, 점쳐주는 때나 그 해당 일때는 1시간 후든, 하루 후든, 열흘 후든, 1년 후의 어느 때라도, 정확히 그 점함의 결과 및 事情을 미리 남짝와 시간별로 예시해 놓을 수 있어, 가히 육임의 경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예사로운 책이 아니고, 五行 또는 法力의 경지를 유감없이 과시할 수 있는 神靈·神示가 담겨진 책이므로, 일반인에게 판매되지 않도록 옴양오행가·무속인·스님·의사 등 活人專門人에게만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 책 값 : 삼십오만원(₩350,000)
■ 책 질 : 영구 보관용으로 제작(책크기는 가로21cm×세로30cm)
(흑색 표지·양장제본·금박·190여이지·미색용지·올컬인쇄
■ 입금처 : 한빛은행 066-475024-02-001 김 나 려
■ 배 달 : 입금 후 전화하시거나 우편환 송금하시면 즉시 책배 우송해 드리므로 당일, 또는 그 이튿날 받아 보시게 됩니다.
■ 전 화 : (02)993-8680
■ 주 소 : 서울 강북구 수유 3동 190-49호 임상빌딩 401호
도서출판 북 문 대표 김 나 려
·출판사등록번호 강북 제9-00076호
·사업자등록번호 도봉 210-90-48989
책값이 他 易書에 비해 비싸기는 합니다만 천역자님으로, 이책을 활용하여 획득 될 명성과 학문성취감에 비하면 매우 싼 값이 될 것임을 주지해 드리는 바입니다. 내용이 신통찮을 때는 즉시 대금을 반환하겠습니다.
본책 휴대용은, 본책을 구입하신 분에 한해 값50,000원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법등을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매일·시(每日·時)별로 적시하여 놓았습니다만, 그래도 혹 의문되시는 점이 있을 때는 전화하십시오. 저자인 鼓[illegible]映史선생님과 연결하여 친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서도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동래식물원에서 산성쪽으로 100M쯤의 「기원정사」에서 설명회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卜 問 배상
▶상담(相談)내용에 대해 즉시 답변(答辯)할 수 있는 항목들을 아래와 같이 채출(採出)시켜 놓았습니다.
희망사·승진사·구재사·시험사·구직사·결혼사·임신사·가정사·이주사·소송사·질병사·매매사·여행사·도난사·심인사·상면사·채용사·투자사·승부사·가격사·농경사·묘지사·기후사

사·부·대·중

시주자 이름 새기기



이귀인
〈한국석불선양회 회장〉

으리 불교계는 진속(眞俗)을 불문하고 이름 남기기를 좋아한다. 사찰을 새로 짓거나 각종 불사 후에는 반드시 전망 좋은 경내지에 어김없이 큼직한 오석(烏石) 덩이의 창건비 또는 중창비가 세워져서 사찰을 찾는 중생을 압도한다. 사찰의 연혁이나 주요 사료를 알기 위해 그 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비신(碑身)의 좌우면과 뒷면은 보시자의 명단이 깨알같이 새겨져 있다. 어떤 사찰은 하나의 비가 모자라 아예 2개를 세우기도 했다. 어디 이뿐이랴, 범종에 새겨진 비천상이나 당초문도 적당한 공간과 여백이 있어야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법인데, 최근에 조성된 일부 사찰의 범종 여백 부분은 보시자 명단으로 채워져 있다.

북한산에 있는 어느 사찰은 경내지에 있는 거대한 자연석의 앞면 전체를 다듬고 수많은 이름을 새김질하는 자비심(?)을 베풀었다. 너무하다 싶어 그곳에 계시는 한 스님께 여쭈어 보니, 이름을 새겨 주지 않으면 조그마한 규모의 불사도 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다.

여기서 누구를 탓하거나 그런 행위가 나쁘다고 매도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이는 불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닐 뿐 아니라 사찰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찰공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불교계 신문·라디오·TV의 광고를 보면 가관이다. 무슨 무슨 불사를 하는데 시주자의 이름을 영구히 보존한다든가 또는 이름을 적어 불상의 복장물로 넣어주겠다는 선전 광고가 홍수를 이루고 있다.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불교계가 언제부터 부처님을 팔고 사는 상인집단이 되었단 말인가?

재가불자인 우바이·우바새는 삼보의 호지와 보시를 생활화함이 그 도리요, 출가자인 비구·비구니는 청정 수행과 중생교화에 전념하는 것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요, 동시에 사부대중이 화합하는 바른 길 일진데, 여기에 무슨 이해관계가 있고 생색내기가 필요하단 말인가?

새가 허공을 날아도 그 자취를 남기지 않는 법인데 하물며 사람이야 말해서 무엇하랴.

목탁소리

교수 18명-강사 52명

김 중 근 (취재2부 기자)

서울대 물리교육학과의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이 8일 정부를 상대로 "수업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학생들은 소장에서 "'BK21(두뇌한국)' 사업에 따라 교수가 대거 다른 단과대학으로 옮겨간 뒤 교수가 충원되지 않아 개설강좌가 31개에서 12개로 줄었고 교수 1명이 맡고 있는 6개 강의 외에 나머지 수업은 시간 강사로 대체하는 바람에 수업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지도교수와 전임교수로부터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동국대의 경우는 어떤가. 동국대도 시간 강사의 의존도가 높을 뿐 아니라 불교대학의 경우 교수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5일 열린 '불교대학 장단기 발전방안 공청회'에서 제기됐다.

'교수 및 연구기관 진흥방안'에 따르면, 불교대학 학부 재학생 기준으로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16명. 그러나 대학원과 학부의 전원을 대상으로 하면 실제 1인당 학생비율은 크게 떨어진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교수들은 강의가 많아 '자아와 명상' '불교와 인간' 등 불교교양과목 강의의 상당부분을 강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불교대학 교수가 18명인데 비해 강사가 모두 52명에 이른다는 점이 비전임교수의 의존도가 얼마나 높은지 알게 해준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공청회에서 세계적인 석학과 석좌·연구·겸임 교수 등의 충원과 대학원 전임교수제 문제가 적극적으로 거론됐다는 점은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교양 필수 교과목인 '불교와 인간' 강의를 불교학 전공 교수 전담을 원칙으로 하자는 방안은 더욱 그렇다. 아무리 교양강좌라고 하더라도 학생들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국대가 불교학 교육 연구중심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한 이러한 문제점을 학교 측이 얼마나 깊이 인식하고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 나갈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이다.

8일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정련스님)가 창립 1주년 기념으로 '불교의 평화정신과 남북화해' 주제의 통일토론회가 송현클럽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추진본부 정책기획위원장 학담스님의 기조발제 '불교사상에서 전환의 논리와 평화통일'에 이어 박영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광식 21세기한국연구소장의 '2차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한반도 평화와 불교의 역할' 주제발표와 권혁범 대전대 교수, 김근식 아태평화재단 책임연구위원, 고유환 동국대 교수, 김광용 한양대 교수의 지정토론으로 2시간여 동안 진지하게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에서 학담스님의 기조발제와 김광식 박사의 주제발표는 불교의 통일론을 정리하고, '평화문화의 확산'이라는 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학담스님과 김 박사의 발표문을 요약한다. 학담스님의 발표문은 '분단현실과 불교교단' 부분을 요약했다.

민족공동체추진본부 통일토론회 **'불교 평화정신과 남북화해'**

'분단서 통일로' 불교사상 토대 실천지표 제시

학담스님 /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정책기획위원장



지난 50여년 동안 분단의 세월은 우리 역사에서 그 어떤 때보다 간고한 시련의 시기였다. 불교교단은 민족적 고제(苦諦)의 해탈을 위해 어떤 역사적 지향을 보여왔으며 사상적 노력을 기울여왔던가.

교단정화운동은 일제 이후 대처화된 승단에서 비구승단의 주도권을 회복하고 청정승풍과 수행가풍을 높였지만, 일제하 용성불교에서 성취된 선과 사회적 실천의 통합이라는 사상적 성과를 잇지 못했다.

봉암사결사는 중생과 역사의 아픔을 함께 끌어안고 출발했던 결사가 아니라 순수 내관(內觀) 중심의 수행결사가 됨으로써 보리회향의 수행이 곧 중생회향 역사회향이 되지 않을 수 없는 불교 본래의 수행관에서 보면 일정한 한계를 안고 있는 결사였다. 이러한 봉암사결사의 한계는 곧 수행과 역사가 이원화될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 불교사상 역량의 한계와 치우침으로 이어진다.

지금 세계는 개인들의 다양한 개성들이 존중되고 민족과 국가, 국가와 국가간의 닫혀진 벽이 허물어지는 개방화의 시대이다. 그럼에도 오늘 불교교단은 보다 강화된 법통주의, 절대주의적 수행관, 폐쇄적 세계관들이 교단 구성원의 머리 속을 지배하고 있다.

역사 없는 선(禪)과 선 없는 역사운동은 불교의 바른 실천관이 될 수 없다.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는 관념적 수행관, 중생에게 섬김을 받을 뿐 다시 중생을 섬기고 역사에 헌신할 줄 모르는 이기적 수행관들에 대한 엄밀한 자기시정이 있어야 한다.

아침저녁으로 불전에 축원할 때마다 '남북통일 속성취'를 외우면서도 실로는 민족의 한 편을 저주해왔던 분열주의적 의식에 대해 철저히 참회하고 자자(自恣)해야 한다. 남한 불교의 기득권 확장에 만족하지 못하고 북한 사회의 주지직을 임명하고 접수할 궁리나 했던 탐욕심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해야 한다.

기득권 옹호, 정의롭지 못한 지배권력의 비호, 분단체제의 현상 인정에 동원되었던 왜곡된 불교이해를 청산하고, 불교철학을 분단에서 통일로 지향하는 모든 실천대중의 사상적 지표가 될 수 있는 보편철학으로 해석해내야 한다.

기복적 신앙대중만 바라보고 살게 되어 있는 사찰구조를 역사와 사회 앞에 개방된 구조, 대중을 불교적 이념으로 가르치고 다시 대중과 역사로부터 배움을 받는 열린 교육의 장으로 개편해야 한다. 사찰조직을 시군 단위의 자치조직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지역단위를 넘어 불교정신을 시대에 맞는 방법론과 이념으로 다시 제하는 조직, 특수 포교업무를 표방하는 조직, 남북한과 전체 민족공동체에 불교를 전하는 조직단위를 특별교구로 인정해야 한다.

집짓기와 탑 쌓기의 불사가 아니라 수행결사, 사회적 실천결사의 실천행이 새로운 이 시대의 진정한 도량건립불사가 되고 역사의 현장에 진리의 탑을 쌓는 불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

교류·지원 강화 평화문화 확산 불교역할 크다

김광식 / 21세기 한국연구소장



불교에는 분쟁을 넘어 공존으로, 상쟁을 넘어 상생으로 가는 철학이 확립되어 있다. 특히 화엄사상은 사사무애(事事無碍) 이사무애(理事無碍)의 통일, 그리고 평화사상에 있다. 한 사람의 개인도 소외시킴이 없고, 하나의 물건도 허비함이 없도록 하는 가운데 하나의 전체가 이루어지고, 그 개별적인 것들은 각각 특유한 재능을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전체의 동질성을 이룰 수 있다. 또 하나의 전체가 그것이 민족이건 국가이건 완전히 성취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전체를 이루는 개별적인 것들이 자기 주장을 절제하고 억제해야 하다는 통일의 근본원리가, 바로 화엄에 의해 추출되고 원효에 의해 강조된 것이다.

불교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로서 일단 꼽을 수 있는 작업은 평화문화를 확산시키는 일이다. 평화(공존)문화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추방시키는 동시에 평화구조의 정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불교가 추진해 온 평화교류는 더욱 확대되어야 하는 동시에, 대북지원 역시 늘려야 한다. 다만 불교계의 대북지원 활동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대북교류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한편에서는 자유로우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규율이 존재하는 교류의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개별 단체 차원에서만 교류활동을 편다면 그것은 나중에 더 많은 문제를 노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남한 내 불교인의 일상생활과 사찰 신행의 연장선상에서 지원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 양초 등의 지원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한 예다.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연구사업과 지원활동도 계속 강화해야 한다. 최근 북한이 불교유적에 대해 새롭게 정비하고 남한과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의미가 깊다. 공동으로 문화재 도록을 만들고, 불교문화재에 대한 조사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이 계속돼야 한다.

그러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국 불교의 대응은 이런 노력만 가지고는 모자란다. 남한의 불교는 한국 불교사를 연구하면서 통일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상적 기초를 만들어야 한다. 불교사적 전통을 오늘에 되살리는 작업은 '이 엄중한 분단의 시대에 불교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라는 질문에 역사적인 책임을 다 하는 일일 것이다.

우리 중생의 삶은 본질적인 내부 문제와 함께 분단이라는 민족 문제에도 함께 부딪히고 있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남한 불교가 과연 개인의 고해를 떠안으면서도, 동시에 민족적 현실인 분단을 뛰어넘어 통일로 나아가는 자세를 가질 수 있겠는가에 대해 답하는 것이다.

현재의 북한 불교는 개인들이 겪는 고해와 개인들의 해탈문제는 잠시 접어둔 채 민족적 현실 속에서 규율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남한 불자들은 개인들이 겪는 어려움과 민족적 현실의 문제를 함께 봐야 하다는 생각이다.

부처님 꽃 친견 및 삼사 성지순례 법회
(운봉산 백운사 아미타부처님 몸에 핀 꽃 친견순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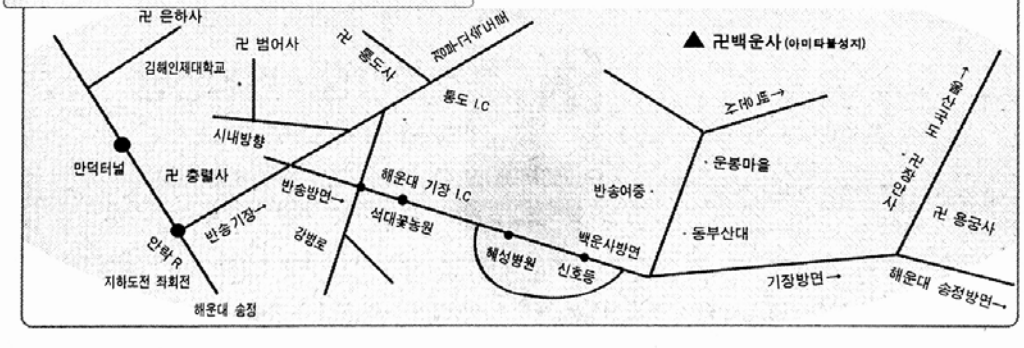
경진년(경진년) 설달 보름날 오후(밤)12시 가량 밝은 달 주변에 오색 무지개가 둥근 타원형을 그리며 넓게 자리를 잡고 오색 찬란하게 하늘을 3,4시간 수 놓다 소납은 넋을 잃을채 하늘을 감탄하며 한편은 기쁨에 소뼉치며 춤을 추면서 하늘의 길조가 곧 땅의 길조로 이어지며 그빛이 한반도를 빛추는 느낌에 반만년의 시련과 고통, 힘든 이 국토에 큰 영광이 올 것이라는 여감이 들어왔다.

신사년(신사년)에 삼재가 들어오므로 삼재자를 위해 부처님전에 개금공양을 올려야 겠다는 발원으로, 평소 예불시 상단 불보살님 한단부분에 개금 탈색이 심한것을 보고 정성 부족 한탄 참회하면선, 또한 나라와 신도님 가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개금공양을 올리게 되었다. 개금 도색 하기위해 탁자에서 내려놓고 털고 닦는 도중 소납과 불모의 누에 물체가 환하게 빛쳐오므로 발견하게 되었다. 개금불사를 추진해야 겠다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이유를 오늘에야 부처님의 가피였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법화경 속에 우담바라가 피면 나라에 전륜성왕이 출현하여 나라 안팎을 안락과 평화 풍요롭고 복된 삶을 이루신다 하셨다. 3000년 마다 한번 피는 우담바라가 상상속의 꽃으로 간주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지만 지금처럼 말법(말법)시대에는 중생들에게 구제와 희망을 바라고, 국가의 전륜성왕이 나올길 바라는 것으로 부처님을 만나기 어려운 것처럼 종교적인 상징이 더욱 더 크다. 불교는 바른 믿음을 통해 알고 행동하며 깨닫는 것이다. 대법회의 인연으로 이나라 이국토에 희망과 보람과 발전이 거듭나기를 바라며 모든 가정과 마음에 염원을 담아 화려하게 꽃 피우고 새삶을 이르시길 다같이 기원 합시다.

운봉산 백운사 주지 마나 합장

삼사순례 아미타불성지 부처님 꽃핀 운봉산 백운사



※ 대형차량(버스)은 동부산대 입구에서 하차하십시오.(백운사 봉고사 운행 이용 바랍니다)

부산 해운대구 반송 2동 산 136번지 운봉산 **백 운 사** TEL 051-542-4630

정토마을 불교 전문 호스피스 교육안내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평화로움이 머무는 곳
정토마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정토마을은 불교계에서 유일한 독립형 호스피스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며 더 이상 현대의학의 치유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머무는 평화로운 쉼터입니다.
불교는 이천년에 접어들어 의료복지 포교에 더욱 깊은 관심을 많은 분들이 갖게 되고 의료복지 포교에 있어서 호스피스 활동의 필요성과 중요함을 더욱 절실히 인식하게 되고 불교 호스피스 교육이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활성화 되어가고 있지만 신앙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호스피스를 양성하기에는 교육, 관리에 있어 많은 부분들이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불교 호스피스가 질적으로 향상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산재하여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조금씩 보완하여 가면서 금번 제 13기 호스피스 교육을 정토마을 호스피스 시설에서 실시합니다. 스님들과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사단법인 정토마을 원장 능 행 합장

- 교육일정 : 2001년 7월 1일 오후 3시부터 2001년 7월 8일 오후 2시까지 7박 8일
- 장 소 : 말기환자 전인 치료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정토마을에서...
- 교육대상 · 스님
  · 재가 법사 및 포교사 (불교 의료복지 포교에 뜻이 있으신 분)
  · 일반 재가자는 불교인으로서 삼귀오계를 수지하신 분으로 신심이 돈독하여 보살행을 실천하고자 하시는 분
  · 4일반 재가자는 불교인으로서 현재 병원 및 유사한 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
- 연 령 : 일반인은 35세~65세까지 (스님은 연령제한 없음) ▫ 인 원 선착순 25명 남·여
- 지 참 물 : 세면도구, 필기도구, 108 염주, 목탁, 츄리닝 한 벌, 반명함판 컬러 사진 4장 (스님: 가사, 장삼, 편리한 복장)
- 원서접수 : 전화접수, 우편접수, 직접 방문 ▫ 교 육 비 19만원
- 교육 후 활동 · 수료증 발급
  · 한국불교 아미타 호스피스 협회에 등록되며 전국 각 병원 및 유사기관에서 협회의 관리를 받으며 불교 전문 호스피스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 원서접수 마감 : 2001년 6월 18일
  - 명찰, 유니폼, 수료증 발급 및 여러 가지 사전준비 관계로 교육 2주일전 원서 접수를 마감합니다.
- 접 수 처 : 충북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정토마을 사무국 TEL: 043)298-2258(代). FAX: 043)298-1457

◆ 정토마을 호스피스요양원 소개 ◆

· 대 상: 말기 암 또는 이에 준하는 말기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
· 특 징: 말기 환자들을 위한 쉼터인 정토마을 호스피스 요양원은 2000년 10월에 정토마을 부지에 완공된 독립형 호스피스 전인치료센타로서 환자들이 자연의 쾌적한 환경속에서 호스 피스 전문 간호사 및 간병인들의 간호를 받으며 평화롭게 생활하는 아름다운 마을이며 후원금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스님들을 위한 병실 특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산스님의

경전읽기

화엄경 ⑫

제16 범행품(梵行品)을 다시 살펴보자. 정념천자(正念天子)의 범행에 관한 질문에 법혜(法慧) 보살이 대답한다.

"만일 계율이 범행이라면, 화상이 계율인가 아사리가 계율인가 머리 깎는 것이 계율인가 가사 입은 것이 계율인가 걸식함이 계율인가 정명(正命)이 계율인가.…이렇게 관찰하면, 범행이란 법은 얻을 수 없는 연고며, 심세의 법이 다 공적한 연고니, 온갖 부처님 법을 갖춘 연고로, 이것을 청정한 범행이라 이름하느니라."

위의 내용은 좀 어렵긴 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기억할만하여 열거한 것이다. 수행인이라고 계율만 잘 지키고, 신통을 얻고 아라한과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무상보리(無上菩提)를 이루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불승(一佛乘)의 법으로 중생의 삶과 함께 하지 않는 불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법화경〉 방편품에서는 지혜제일(智慧第一)이신 '사리불(舍利弗) 같은 이가 한량없이 모여 함께 생각하더라도 부처님의 지혜는 알 수 없다(假使滿世間 皆如舍利弗 盡思共度量 不能測佛智)' 라고 하였다. 일불승이 무엇인가? 모든 중생을 당신의 깨달음과 같이 되게 하려는 여래의 본원(出世本懷)을 말한다. 여기에 대승불교의 큰 뜻이 있는 것이다.

오늘의 우리는 불법을 만나고 안 것만으로 뽐낼 일이 아니라는 반성을 다시 한번 하여야 하리라. 출가하여 더욱 죄업을 짓는 경우도 우리는 얼마든지 보아오지 않았던가? 열심히 수행정진하고 포교하지 않고 오히려 불교를 망치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야마천궁(夜摩天宮)에서 제4회 설법이 진행되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사바세계의 보리수 아래와 수미산의 법회장소를 여의지 않고 야마천궁의 법회를 주관하신다. 달이 일천강에 비치듯이 가지 않으시는 곳이 없지만 깨달음을 성취한 본처에서 항상 떠나지 않으신다.

이어서 제20 야마궁중게찬품이다. 야마천 설법에서는 화엄경의 특징이 더욱더 잘 나타나는 게송을 만날 수 있다. 공덕림(功德林) 보살의 게송을 보자.

"부처님 큰 광명 놓아 시방을 두루 비추시니 천상 인간의 높은 어른 뵈옵기 환히 트이어 걸림이 없네(佛放大光明하사 普照於十方하시니 悉見天人尊이 通達無障碍로다) / 시방세계 모든 곳마다 부처님 여기 계시다지만 혹은 인간에 계시고 혹은 천궁에 계시고(十方一切處에 皆謂佛在此라하나니 或見在人間하며 或見住天宮이로다)"

각림보살의 게송에서는 유명한 '화가의 비유' 가 설해진다.

"마음이 화가와 같아서 모든 세간을 그려내는데 오온이 마음따라 생기어서 무슨 법이나 못 짓는 것 없네(心如工畵師 能畵諸世間 五蘊悉從生 無法而不造) / 마음과 같아 부처도 그러하고 부처와 같아 중생도 그러하니 부처나 마음이나 그 성품 모두 다합 없네(如心佛亦爾 如佛衆生然 應知佛與心 體性皆無盡)"라 했다. 이 부분을 60권 화엄에서는, "마음과 같이 부처님도 그러하며 부처와 같이 중생도 그러하여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꼭 같아 차별이 없네(如心佛亦爾 如佛衆生然 心佛及衆生 是三無差別)"

선불교禪佛敎에서는 이 게송을 더 친근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다. 본래 80권 화엄에서는 이와 같이 '체성개무진(體性皆無盡)' 을 말한 것인데, 선사들은 '심즉시불(心卽是佛)' 의 관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아왔다. 모든 것이 마음먹기 나름이니 마음은 그림 잘 그리는 화가처럼 모든 것을 뜻대로 성취한다.

지난해 이맘때 쯤 우리는 남북통일의 희망에 가득차 있었다. 경문에서 보듯이 마음을 연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리라.

▨봉선사 능엄학림 연구원

마음 화가같아 만물 그려내

중생 외면하는 불교 상상할 수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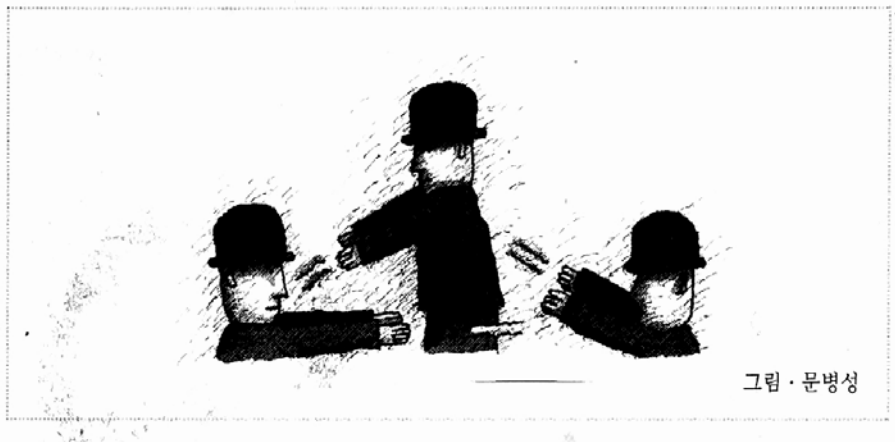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우주 팽창·수축 좌우하는 변수

불교와 과학 〈31〉

인력은 물체들 사이에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고 척력은 서로 미는 힘이다. 물체들 사이의 거리가 짧으면 그들 사이에 인력이 작용할 것이다. 우주 공간에서는 이런 힘을 우주 중력이라고 한다. 우주 중력은 우주에 산재해 있는 별뿐만 아니라 우주입자와 같은 미세한 물질에까지 힘을 미친다. 그러나 이 힘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들과 함께 그리고 물질들로부터 발생되는 힘이다. 쉽게 말해서 물질이 먼저 존재하고 그 물질이 다른 물질에 대하여 인력을 방사하는 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하나만의 물질이 존재할 때는 힘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두 개 이상의 물질이 존재할 경우 자동적으로 힘의 존재가 부여된다. 그 물질들의 존재는 원천적으로 상호적 힘의 관계를 내포한다. 그래서 물질과 힘은 하나이다.

암흑물질

공간 90% 분포…은하단 뭉치게 하는 힘
보이지 않지만 우주진화 결정적 요소

예를 들어 우주 안에 신의주와 개성 그리고 부산이라는 물체가 있다고 치자. 신의주와 개성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동시에 개성과 부산 사이에도 인력이 작용하고 있다. 신의주가 개성을 끌어당기는 인력이 부산이 개성을 끌어당기는 인력보다 크다면 개성은 신의주로 다가가 충돌해버리고 말 것이다. 그리고 그 반대라면 개성은 부산 쪽으로 충돌하고 말 것이다. 그런데 거리에 비례해서 개성을 중심으로 한 인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면 개성은 현재 위치에서 중력의 적절한 비례관계를 유지한 채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또 다른 물질들이 태평양 건너 무수히 많을 경우, 다시 말해서 그 물질들의 거리가 멀어 그 하나하나가 큰 힘은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작은 힘들이 무한히 많다면 그 작은 힘의 합은 큰 힘이 되어 부산이나 개성이나 신의주를 반대 방향인 외곽으로 튕겨져 나가게 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점점 더 물질들 사이의 간격은 벌어지고 말 것이다. 그와 반대로 개성과 신의주 사이에 혹은 개성과 부산 사이에 미세한 작은 물질들이 무수히 끼어들어 있다면 그들 사이의 인력이 작용하여 신의주와 개성 그리고 부산은 결국 충돌하여 하나로 합쳐 질 수도 있다.

말도 안 될 것 같은 이런 예는 우주 공간에서 인류의 시간을 초월한 아주 긴 시간에 걸쳐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결국 우주 속에 뉴트리노와 같은 미세물질들이 존재한다면 그 물질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그 물질들의 밀도가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우주가 팽창하느냐 아니면 축소하느냐 하는 우주의 진화론적 역사가 바뀔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런 미세물질이 실제로 존재하는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

1933년 미국 캘리포니아 공대 츠비키는 머리털자리 은하단을 조사하는 중, 은하가 따로따로 흩어지는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한 사실만을 놓고 본다면 우주가 진화해온 150억년 동안 은하는 제멋대로 흩어지고 말아 결국 은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시피 오늘의 우주는 은하단을 가지고 있다. 결국 츠비키는 은하의 별들 말고도 대량의 어떤 물질이 존재하여 그 물질이 인력을 미쳐 은하단을 뭉치게 하는 인력을 방사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바로 암흑물질(dark matter)이라고 불려지는 극미세 물질 개념의 시초였다.

1995년 텔아비브 대학 골드위스 교수는 우주 대폭발 이후 이제까지 우주에 존재하는 헬륨의 양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는 해석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암흑물질이 우주에 존재하는 (원리적으로 보이는) 물질의 최소한 10배 이상은 되어야 현재 우주의 이동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현 우주의 질량 분포도에서 암흑물질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그리고 암흑물질의 존재량에 따라서 우주 밀도가 달라질 것이고, 우주밀도를 결정하는 암흑물질의 양과 분포도에 따라서 우주가 팽창할 것인지 아니면 수축하게 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우주밀도가 수축 임계치보다 클 때 이 우주는 팽창하다가 나중에는 수축으로 돌아설 것이며, 우주밀도가 수축 임계치보다 작을 때는 계속 팽창할 것이다.

암흑물질은 보이지 않지만 사실 우리 우주의 진화론적 미래를 결정하는 최대 변수이다. 그런데 비바사론(毘婆沙論)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이 있다. 물론 우주물리학의 암흑물질과 비바사론의 공계색(空界色)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우매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리적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이 우주진화에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은 당장 보이는 것에만 매달려 번뇌의 틀거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중생들에게 반성의 작은 씨앗을 주는 물리학적 지식이기도 하다. 유견(有見)과 유대(有對)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보이지 않는 삶의 끈들을 인연의 시나리오로 삼는 그런 무견(無見)과 무대(無對)의 세계를 헤아릴 수 있다면 더 좋겠다.

▨최종덕/상지대 교수 jdchoi@chiak.sangji.ac.kr

참선하는 5천여 수감자 내면의 평화 · 희망 찾아

지구촌 불교 / 美 교도소서 법회

살인이나 무장 강도 등 무거운 형량의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만을 수감하는 美 연방 교도소 그린해븐(Green Haven)에 법향이 퍼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 5월 30일자 보도에 따르면, 美 연방정부에 의해 1급 범법자로 분류된 2천여 명의 죄수를 수감하고 있는 그린해븐 교도소에서 연꽃불자회(Lotus Flower Sangha)로 불리는 모임의 회원 14명이 매주 수요일 지오프리 아놀드(G. Arnold) 스님의 지도로 〈반야심경〉을 봉독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이를 통해 자신의 탁한 심신을 정화하고 있다.

아놀드 스님은 일본계 선원인 선산사원(Zen Mountain Monastery)에 소속된 스님으로 그린해븐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 교화에 나선지 4개월 만에 첫 법회를 봉행할 수 있었다. "참선을 통해, 죄수들이 자신도 알지 못한 선한 마음을 보게 하는 계기를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스님은 말했다. 아놀드 스님은 지금까지 10여 차례의 법회를 집전하며, 죄수들이 공(空)과 연기사상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의 뜻을 깨달아 스스로 교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있다.



◇그린해븐 교도소 수감자들이 법회를 봉행하고 참선하는 모습.

그린해븐 등 교화정책에 佛法 수용
법사 · 스님 명상지도 심신정화 효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아놀드 스님의 노력은 매주 법회에 참석한 죄수들의 말로써 그 빛을 발하고 있다. 벌기스(Burgees, 45) 씨는 "수행을 통해 다른 사람을 존경해야 하는 이유와 자비심을 배웠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방에 작은 불단을 만들 정도로 신심이 두터운 불자로 거듭났다.

참선이나 명상과 같은 불교 수행법은 처음에는 아시아계 이민자들 사이에서만 유행했는데, 이제는 2백여 만 명의 미국인들이 즐겨 찾는 '자기 수행법' 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한 변화가 사회의 가장 외진 곳, 교도소에서도 일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선산사원이나, 교도소 불법 네트워크(Prison Dharma Network), 불교평화교우회(Buddhist Peace Fellowship) 등과 같은 불교단체의 노력이 적잖게 포함되어 있다. 이들 단체의 프로그램은 처음에는 책이나 비디오 자료를 보내는 것으로 시작해, 이제는 법사나 스님을 파견해 참선이나 명상을 지도할 정도로 각광받고 있다. 불교평화교우회의 경우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8개 교도소에서 참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단체의 '교도소 프로젝트' 를 진행하고 있는 다나 리온(Diana Lion) 씨는 "참선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감자들이 내면의 평온과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들 단체의 프로젝트는 美 연방정부의 교화 정책에도 수용될 전망이다. 미 연방 교정 서비스 위원회에서 이들 단체의 프로그램을 교정 정책에 반영할 뜻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10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4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솔선식(2개월 50만원), 솔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10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구중구포(2개월 150만원), 유황간장(2개월 50만원), 유황된장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10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가 격 : 정가 칠십만원(10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제조 총판 의료법인 효성양방 · 한방병원

이사장 김 시 연 합장

☎(053)628-9145, 655-2227 (011)808-8880

효성양방한방병원 (052)254-2600 (011)545-5500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 박 법륜 합장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 「솔선식(松仙食)」,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익수영진고」, 「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랑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전화 053-655-3027) 최 청정심 올림

한국 화단을 이끈 고(故) 오지호 화백의 아들이자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인 서양화가 오승우 화백(71). 이른바 스스로 터득한 인상파적 방법으로 '동양의 원형'을 독자적으로 해석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는 한국의 사찰과 불상, 산과 고궁은 물론 세계의 문화유산을 천착하며 전통적인 옛 풍정과 역사의 뒤안에 묻힌 분위기까지도 강렬한 색으로 그려왔다.

지난 95년 백두산,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 등 우리나라 130여개 산을 답사하며 그린 '산' 시리즈를 발표했던 그가 최근에는 국내 첫 아시아 고건축 회화전을 다련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8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 미술관에서 열리는 '동양의 원형'전. 80호에서 100호에 이르는 대작 120여점을 통해 동양의 고건축물과 고적, 불상 등 아시아의 건축미를 비교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956년 국전에 출품했던 '불전'을 비롯해 우리나라 불상 및 고건축물을 화폭에 담은 1962년까지의 작품과, 지난 1996년부터 올해 초까지 6년간 불교미술의 발상지인 중국 태국 몽골 등 아시아 13개국을 현장 답사해 화폭에 담은 근작들을 아우른다. 이 중 한국건축은 석굴암, 부석사 무량수전, 법주사 팔상전, 경복궁 근정전, 종묘 등 20여점. 나머지 80여점은 중국 베이징의 자금성과 이화원, 일본 나라의 호류지와 도다이지 등 외국 건축물이다.

6년간 아시아 각국 답사
불상·고건축물 화폭에 담아
19일까지 예술의 전당 전시

오 화백이 이처럼 오랜 기간 동양의 고건축에 매료된 이유는 "동양의 원형은 동양의 그적에서 찾을 수 있다"는


◇오 화백의 자연과 전통에 대한 끊임없는 애착과 동경은 궁극적으로 마음의 고향을 찾아 나서는 구도행과 다름 없다.

'동양의 원형전' 여는 오승우화백

'동양정신의 근원' 찾아 40여년 그림순례


◇1957년 作 화엄사 '법당 내부'(194×130cm).

생각에서다. 건축은 문화의 결정체로서 심미적으로는 '응고된 음악', 학술적으로는 '돌로 만든 역사책', 문화적으로는 '민족문화의 흥망성쇠를 나타내는 그림자'이기 때문이다. 25세 때 화재로 소실된 광주 원효사의 후불탱화를 외할머니와 아버지의 권유로 그리면서 불교미술을 처음 접한 것도 이런 생각의 뿌리가 되었다.

당시 탱화의 원색적인 색채의 조화가 주는 강렬하고 원시적인 미를 체험한 그는 해남 대흥사 대웅전을 첫 작업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 때의 인상은 이러했다.

"황금으로 도금된 3위의 불상, 그 위에 적색의 일산(日傘), 원색의 후불탱화. 그 황홀함은 마치 별천지에 온 느낌이었습니다."

100호 화지를 놓고 미친 듯이 그린 이 작품이 제5회 국전에 입선됐다. 다음으로 찾은 곳이 김제 금산사 미륵불과 구례 화엄사 각황전. 한 달 이상씩 온갖 정염을 쏟아 부은 정성과 부처님의 가피로 '각황전'과 '미륵전'은 제 6·7회 국전에 거푸 특선됐다. 이어 8회 국전 특선에 보은 법주사 '팔상전', 9회 역시 양산 통도사 '금강계단'이 연이어 특선에 올라 29세의 나이로 최연소 추천작가가 되었다. 한 여름 폭염이 내려 쪼이는 절마당에서 꼬박 한 달씩 정성을 들인 그림들이 드디어 세상에 얼굴을 내밀기 시작한 셈이다.

이 무렵의 경지를 오 화백은 '공(空)'이라고 말한다. 그림에 미쳤다는 뜻이 아니라, 미쳤기 때문에 그림을 그렸다는 해석이다. 미치도록 깊은 몰입에 환희심이 있었다는 것이며, 그것이 점차로 가라앉아 성숙되고, 이러한 절대지상의 신심이 '공(空)'에 가까이 되려라는 얘기다. 이른바 번뇌의 경계를 떠난 '니르바나' 속에 유유자적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미학(esthetique)'이란 '신비(mystique)'를 다르게 부른 이름이며, 하나의 뿌리에서 자라난 두 개의 잎을 뜻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오 화백은 그 후 해인사, 마곡사 등 고찰과 경복궁, 덕수궁, 창경궁 등 31세까지 7년간 고적을 그렸다. 그 후 새로운 소재가 없어 요정(妖精), 민속놀이, 한국 100산 등 소재를 바꾸어 가면 '동양정신의 탐구'를 계속했다.

전통의 재해석을 시도하는 그의 작업은 마치 구도의 만행을 떠나는 납자의 심정과 같았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소재한 그의 화실이 일년의 절반가량 '부재중'인 것도 이를 말해준다.

130여개의 한국 명산을 비롯, 중국 티베트 인도 몽골 태국 인도네시아 유럽 등의 오지를 시도 때도 없이 순례했다. 고생을 무릅쓰고 내륙지방이든 변방이든, 지구촌 곳곳에 수많은 발자취를 남겼다. 오 화백이 자신의 이런 도정을 '적(磧)'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현재를 더 잘 알기 위해 옛 것을 찾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단순한 자연풍경이나 이국적인 정서를 찾아서 실경을 묘사하는 이른바 진경산수(眞景山水)의 화가와는 다르다. 탐

'현재를 더 잘 알기 위해
옛것을 찾는다' 확신
강렬한 색채 · 터치 '눈길'

미의 과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양적 진리의 근원을 찾아내려는 구도의 순례자다. 대담한 필치와 생략된 구도 속에서 또 다른 생명력의 원천으로 접근하려는 그의 의지도 이를 반증한다.

동양의 자연과 건축을 그렸으되, 그가 그려낸 화폭은 전혀 다른 분위기의 현대 표현주의적 기법으로 재창조된다. 그는 강렬한 색채를 사용하여 굵은 붓으로 가로 세로 반복하여 오르내리면서 그리는데, 그 열정과 힘이 세차다 못해 거칠게 느껴진다. 그는 대부분 거대한 형태의 풍만한 구도를 사용하고 세부묘사를 버리는 방식으로 대단한 기세를 화폭에 담는다. 나는듯, 내뿜듯, 겹겹이 중첩된 듯한 율동구조를 많이 사용하여 호방하고 기운찬 미학적 특색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특히 오 화백의 그림에서 사찰들의 윤곽이나 세부묘사는, 한결같이 배제되고 있으며 빛으로 둘러쌓여 있다. 유준상 서울시립미술관장은 "오 화백의 색채는 밖에 있는 색채가 아니라, 그의 니르바나에서 솟아나온 색채"라고 평했다.

하지만 이런 표현들은 다 정신화·이상화된 것이지만, 여전히 역사와 지금의 현실 그 자체를 반영하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오 화백의 그림은 색채의 직접적인 호소력을 통해 사람의 불성 속에 내재하는 불심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심'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부처님의 마음이라 하겠기에, 그 본성이 애당초 우리 속에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처를 알 수 있겠는가.

오 화백은 지난 86년 선천적으로 좋지 않던 시력이 갑자기 나빠져, 화가로서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실명 위기를 맞았다. 독일에서 수술을 받아 다시 그림을 그리게 됐지만 지금도 2년에 한번씩 재수술을 받아야 한다. 오 화백은 실명 위기를 겪은 뒤 "눈이 아닌 마음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광주 원효사의 중창주인 외할머니, 원효사 후불탱화를 그린 아버지 오지호 화백, 백련사 및 능인선원 신도인 부인 정금애(68) 보살, 동국대 교수(미학)인 장남 병욱씨 등 대대로 불심 깊은 예술 가족을 둔 오 화백. 처음 불화로 붓을 잡았듯이, 마지막 남은 삶도 불상과 사찰을 그리며 '불모(佛母)가 아닌 불모'로 회향하고 싶다는 것이 노 화가의 원력이다.

글=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예술원 회장 차범석씨가 본 오승우 화백

"작품앞에 서면 '구도의 삶' 보여"


◇차범석씨

오 화백이 수년전 이른바 '산' 시리즈의 역작들을 발표함으로써 그의 작품세계에 하나의 획을 그었던 기억이 새삼 되살아난다. 그것은 단순한 대경(對景)에 대한 탐미가 아니라, 산에서 뭔가를 찾아내려는 구도(求道)의 몸부림이었다면 나의 지나친 독단일까. 대담한 필치와 생략된 구도 속에서 또 다른 생명력의 원천으로 접근하려는 오 화백의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원과 궁전 등 고건축을 대상으로 중국과 동남아 각지의 고궁과 불교건축을 섭렵하는 고건축물 시리즈를 시도했다니, 그것은 한 마디로 마르지 않은 샘물의 신선감과 생동감의 결정이 아닐 수 없다.

고궁과 사원건축을 주제로 하되 '산' 시리즈와는 달리 보라색과 분홍색을 즐겨 구사하며, 역시 대담한 생략기법으로 우리를 압도하는 작품 앞에서 다시금 오 화백의 불교적 귀의심(歸依心)을 느낄 수 있었다.

정세채와 떠나는
선·식·기·행
매실장아찌



전남 구례에서 화엄사로 올라가는 길옆에는 사도리(沙圖里)라는 곳이 있다. 이곳이 바로 도선선사가 풍수지리를 배운 곳이다. 도선선사의 꿈에 한 신인(神人)이 나타나, "내일 강가에 나가면 풍수비결이 그려진 모래지도가 그려져 있을 것이니, 반드시 스무하루 동안에 그 비결을 통달해야 하오."라고 전했다.

날이 밝아, 꿈에 본 그 장소를 찾아가니 모래 위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사람 몸의 360혈 자리가 병을 치료하듯, 산천리 금수강산에 3,800개의 중요한 혈이 있어 그 곳에 점을 지으면 국가의 병란을 막고 국운을 융성케 한다는 것이었다. 다만, 혈자리보다 더 많은 점을 지어서도, 더 적게 지어서도 안 된다고 당부했다.

갈증 해소와 전염병 예방

신인(神人)과 약속한 스무하루 동안, 변화무쌍한 오행과 풍수지리와 천문을 통달하고 이제 마지막 남도 육백리와 지리산 자락을 통달하려는 순간, 마지막 밤의 달빛이 그만 구름 속에 숨더니 칠흑 같은 어둠이 덮였다. 구름 속에 숨어버린 달을 안타까워하던 도선선사는 부처님 전에 간절히 기도를 올렸다. 잠시 후, 강가에서 시들어 가던 매화나무가 점차 매화꽃을 피우더니 어둔 밤을 비추듯 밝게 빛나고 있었다. 도선선사는 매화꽃이 품어내는 광채 덕분에 모래지도의 마지막 부분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 후 도선선사는 풍수지리의 비결을 세상에 회향하셨다. 그 후 스님은, 매화나무의 고마움을 잊지 않기 위해, 지팡이로 만들어 갖고 다니셨는가 하면, 백계산 자락에 옥룡사를 짓고 그 주변에 매화나무를 심어, 오늘날 순천, 광양, 구례, 하동지역에 매화나무와 그 열매인 매실이 많이 나는 것은 도선선사의 손길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 약선식 연구가. <산사에 가면 특별한 식단이 있다>저자

만드는 법(1~2인분)

재료 매실(조금 누르스름한 것) : 소금 = 100 : 20, 솔잎 약간

요리법 ① 먼저 매실을 하룻밤 물에 담가 떫은 맛을 뺀다. ② 매실, 소금, 솔잎을 유리병이나 도자기에 넣고 누름돌로 눌러 뚜껑을 덮어 냉암소에 보관한다. ③ 3~4일 뒤, 물이 올라오면 따라내서 매실초로 이용하고, 매실소금장아찌로 먹거나, 고추장에 살짝 버무리면 매콤한 맛이 여름의 미각을 돋운다.

효능 ① 갈증을 없애고 담을 덜어주며, 토사곽란과 학질을 다스린다. ② 급성위장염, 맹장염, 장티푸스, 폐결핵, 늑막염, 피부병에 좋다.



오도송으로 보는 한국禪

무산스님

범해선사 '寬禪'

수백년간 이어진 정치제도가 무너진 조선조말, 민초들의 생활은 삶이란 표현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인간살육이 전국 도처에서 자행되고 있었다. 이때 그들과 한 몸이 되어 삶의 희망을 일구며 부처님의 법을 전해 준 위대한 스승이 있었다. 그가 곧 범해선사이다. 선사는 조선 순조 20년(1820), 은사(隱士)로서 대문장가인 최수강의 5대손 최철과 어머니 성산 배씨 사이에서 고고의 소리를 외쳤다.

어느 날 어머니가 바닷가를 거니는데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얀 잉어가 당신을 감싸 안으며 몸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 이후 태어난 이가 범해 선사다. 휘(諱)는 각안(覺岸), 자(字)는 환여(幻如), 호(號)는 범해(梵海)다.

선사께서 우리에게 전한 깨침의 소리는 다음과 같다.

관선(寬禪)

수십억겁 이어온 생명의 인연

흘려보내도 '다시 장춘동일세'

參盡名家最後尋
참진명가최후심
因緣厚薄可知今
인연후박가지금
長春浪送長春洞
장춘랑송장춘동
梵海勤求梵海心
범해근구범해심
詩和竹間題竹葉
시화죽간제죽엽
宴開松下廳松琴
연개송하청송금
去留有數庸何挽
거유유수용하만
桂月團團照兩襟
계월단단조양금

몸과 마음을 다하여 도(道)를 생각함으로 길고 깊은 인연 오늘에까지 이어졌네
장춘을 물처럼 흘려보냈는데 다시 장춘동일세.
범해가 일구월심 구하는 것이 범해 마음인데
대나무 속에서 시(詩)와 함께 찻잔만 기울인다.
소나무 아래서 소나무와 벗하여 거문고 소리 즐기다 보니
덧없이 세월만 가고 낡은 수레바퀴처럼 되었고
8월의 교교한 달빛만 양 가슴속에 남았네. <범해선사 유집>

수십 억겁을 이어온 생명의 인연이란 물처럼 흘러 보낸다고 흘러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는 선시(禪詩)다.

선사께서는 14세에 대둔사에서 호의시오(縞衣始悟) 선사를 은사로 출가하였으며, 초의(草衣) 선사에게서 구족계를 받았다. 이후 갑진년 봄에 방장이 되었다.

선사는 일생을 참선으로 또는 민중들과 더불어 글을 쓰면서 시를 짓고 하였다. 더불어 초의 선사의 법을 이어 차생활을 일과로 삼아 정진했다. 주옥같은 선사의 다시(茶詩)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삶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선사께서는 차 생활을 부처님의 생활이라고 했다. 선사께서 주석하셨던 대둔사에는 '다화일여(茶話一如)'라는 어구가 걸려 있었다. 선사의 〈화공양기(花供養記)〉를 보면, 선사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끔 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천신충정(薦神充庭) 오매현령(寤寐見靈)."

꽃을 심고 가꾸면 자나 깨나 천신께서 우리네 삶의 터전을 아름답게 해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연을 헛되게 하지 말고 일구월심 마음을 닦아서 달빛 같은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선사의 가르침이다.

조선 개국 505년이 되던 해인 고종 건양 원년(1896) 12월 26일 77세로 숲속에서 몸을 접었다.

무산(경주 해회선원 회주) 스님은 1943년 경주에서 태어나 13세에 지리산 백운암 법장스님에게 출가했다. 춘성 · 화엄 · 효당 스님에게 선과 다도를 수학한 스님은, 한국다선학회와 천연염색학회를 운영하고 있다. 저서로는 〈한국역대고승의 다시〉, 〈천연염색법 개론〉 등 10여권이 있다.

가까이서 뵌 큰스님

청 화 스 님

곡성 성륜사 조실

"지계없이 마음정화 어렵지요"

덕높은 스승을 찾아 법문을 청하고, 그 가르침을 듣고 이해하여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한걸음 한걸음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 바로 불자의 소명이다.

이 불자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매월 첫째 일요일마다 전남 곡성 성륜사에는 전국에서 수많은 불자들이 모여든다. 평생 수행의 길을 걸어온 성륜사 조실 청화스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다.

6월의 첫 번째 일요일이었던 지난 3일 새벽 5시, 기자도 청화스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 서울 조계사 앞에서 버스에 몸을 실었다. 오늘은 성륜사가 아니라, 전남 무안 혜운사로 향했다. 전남 무안군 운남면 대박산에 위치한 혜운사는 청화스님께서 지은 절이다. 무안은 스님의 고향으로, 스님은 이곳 혜운사 토굴에 머물며 수행을 했는데 지금의 혜운사 법당이 예전의 토굴 자리이다. 현재는 스님의 제자인 무상스님이 주지 소임을 맡고 있는데, 이 혜운사에서 봉행된 예수재 회향법회에서 스님이 법문을 하시기로 된 것이다.

서울에서 5시간여를 달려, 무안의 넓은 평야로 둘러싸인 대박산 혜운사에 도착했다. 절에는 이미 전국 각지에서 스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 불자들이 당도해 있었다.

"우리 중생들은 본래 있는 그대로 보지 않으니 문제입니다. 제행무상이라, 모든 존재는 본래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순간 순간 짧은 시간에도 우리는 변해갑니다. 만법유정이라, 모든 것은 그때 그때 태어나고 생겨납니다. 그러니 나라고 고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성 그 자리가 바로 순수생명자리입니다. 모든 존재가 부처임을 깨달은 분이 바로 성인입니다. 바른 신앙을 하기위해서는 모든 게 다 하나의 도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 힌두교, 불교 다 마찬가집니다. 우주의 근원적 생명을 이름만 다르게 부르는 것 일뿐 모두 같습니다.

항상 명심하십시오. 진리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느 것도 부처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찬란한 생명이자, 광명입니다. 진여불성이 나의 근본생명이자 모든 것의 근본 생명임을 깨달으세요."

법문을 마치고, 스님은 대웅전 앞마당에 선 불자들과 일일이 눈을 맞추며 법단을 내려오셨다. 깡마른 몸매에 형형한 눈빛과 자애로운 미소의 스님 모습 자체에서 많은 불자들은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을 받는 듯 했다.



◇3일 전남 무안 혜운사에서 법문을 마친 스님이 참석한 불자들과 일일이 눈인사를 나누고 있다.

> 부처님의 계율
> 우주의 질서 함축
> 인간이 마땅히
> 지켜야할 도덕률

성륜사신도회 부회장인 배광식 거사는 청화스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이렇게 회고했다.

"85년인가, 제가 집사람과 스님을 뵙기 위해 태안사에 갔을 때였습니다. 스님께서는 그때 걸레로 마루바닥을 훔치고 계시다 저희를 맞으셨어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큰 스님이 마루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직접 걸레질을 한다는 것을요. 그때 〈금강경〉에 '희유세존(希有世尊)'이라는 감탄사가 나오게 된 연유를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스님의 자세, 행동 그대로가 바로 가르침이 되어 부단히 우리 불자들을 각성시키시는 걸요."

스님을 곁에서 지켜본 불자들은 한결같이 항상 겸손하고, 자비하신 청화스님의 모습에 감복한다. 찾아온 불자들이 행여 불편할까 항상 편하게 앉으라 하고, 방석이라도 없이 앉은 이가 있으면 스님이 앉았던 방석을 내어주신다. 몇 해 전에는 당신이 평생 지니며 굴리면서 수행의 도반으로 삼아온 온 염주를 '우리는 선우'의 장학기금마련 자선 바자회에 내놓으시기도 하는 등 자비로운 스님의 면모는 널리 알려져 있다.

스님은 일찍이 14살 되던 해에 일본으로 건너가 5년제 중등학교과정을 마친 후 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광주사범학교를 졸업한 뒤 한 독지가의 도움으로 고향 무안에 청운고등공민학교를 세워 후학을 지도했다. 그 학교가 지금도 남아있는 망운중학교다. 현대 물리학과 철학에도 관심을 갖고 있던 스님은 청년시절부터 여러 서적을 두루 섭렵했다. 그러나 궁극에도 풀리지 않는, 존재에 대한 의문은 늘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었는데 금타스님을 만나 가르침을 받고, 의문을 풀게 되었다 한다.

스님이 은사 금타스님의 유고들을 모아 펴낸 〈금강심론〉에는 근본불교의 핵심으로서 견성성불에 필수적인 근본선정인 구차제정의 역설과 각 경론의 모든 수행법과 수행의 위차를 종합 회통하여 해탈 16지로서 수행차서를 정립해 놓았는데, 특히 불교의 우주관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스님은 이같은 금타스님의 영향으로 현대물리학과 철학 등에도 매우 해박하고 법석에서도 이를 불교적으로 풀이한 법문도 자주 하신다. 세상의 모든 물체들은 물질입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입자를 분석하면 핵전자의 소립자 단계를 거쳐 종국에는 텅 비어버리는 공의 세계가 되는 것이며, 이것은 그저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순수에너지가 바로 불성이라는 것이다. 현대물리학의 양자론과 현대과학으로도 증명하지 못하는 순수 에너지의 실체를 설명해,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세계를 스스럼없이 펼쳐보이시는 것이다.

스님은 수행이 철저하셨던 은사스님을 따라 묵언과 장좌불와를 평생 수행의 방편으로 삼아 오셨다. 상원, 백장암 등 여러 토굴에서 50여년간 늘 검소함과 부지런

2001년 대원불교대학 후학기(後學期) 입학안내



대원불교대학 전경



▷ 대중불교 운동의 실천



▷ 넉넉한 교육환경



▷ 불교전문 도서관 운영



▷ 30여 년의 전통과 2,000여 동문

■ 강의시간 8월 27일 개강 주 3일 출석, 야간수업
■ 지도교수 최봉수(동국대), 장휘옥(동국대), 허경구(동국대), 김사업(동국대)
■ 조빙교수 월운스님, 권기종(동국대), 정병조(동국대)
■ 교육과목

1학년	1학기(14주)	· 불교학 개론 · 인도불교사 · 불교경전개설 · 불교문화특강
	2학기(14주)	· 원시불교 · 아비달마(구사론) · 반야사상 · 불교의식 실습
2학년	1학기(14주)	· 유식사상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우리말불교의식
	2학기(14주)	· 법화사상 · 화엄사상 · 정토사상 · 선사상

■ 모집 및 전형(2년제 야간 – 출강 · 통신과정)

모집과목 및 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전형방법
· 불교학 출강 00명	· 체계적으로 불교교육을 원하는 자 · 대중불교 지도자 자질 보유자	· 입학원서(소정양식)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사진3매) · 불교대학 졸업장 사본 (편입생에 한함)	- 서류전형 - 합격자 개별통지 - 편입학은 2학년 과정으로 입학
· 불교학 통신 00명			
· 불교학 편입 00명	· 타 불교대학 과정 졸업자		

■ 원서교부 및 접수 2001년 8월 17일까지(금) 본 대학 교무과
■ 특전사항
· 포교실습 지망자 법회처 제공 · 법사과정 이수 후 법사호 수여
· 자원봉사자 장학혜택 부여 · 포교당 종교법인 보호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자격

⊙ 大圓佛教大學
학장 혜거스님
140-190 ·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TEL : (02)773-9171, 776-7156, 754-1613 FAX : (02)756-72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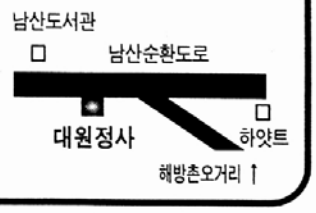
팔리경장 한글 번역 불사 회원 모집



최봉수교수

2,600년 전 고타마 붓다의 원음이 아름다운 우리말로 생생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옵니다. 숱한 역사의 위기속에서도 존속해 온 소중한 팔리경장을 한글로 번역하는 10년 대 불사가 대중불교운동의 요람인 남산 대원정사에서 이루어집니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불교 바로 대중불교운동은 부처님의 원음인 팔리경장 번역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 불자 모두는 신명을 다해 이번 불사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 연찬회원(월 30,000원)
팔리 경장 연찬회에 참가하여 우리말로 옮겨진 팔리어 근본 경전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다 체계적으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은 강의 TAPE를 우송해 드립니다
■ 구독회원(연 30,000원)
매달 또는 격월로 발행되는 팔리경장을 보내드립니다.
■ 후원회원(경전 1권당 2,000원)
군부대, 병원, 학교에 팔리경장을 법보시 할 수 있습니다.
■ 송금계좌(예금주, 한국불교대원회)
우체국 011791-01-000469 국민은행 098-01-0230-530
■ 팔리 경장 연찬회
일시 : 매주 월요일 11시
장소 : 대원정사 (02-754-1613)
강사 : 최봉수 교수



청화스님은?

50여년 일종식 79세 매주 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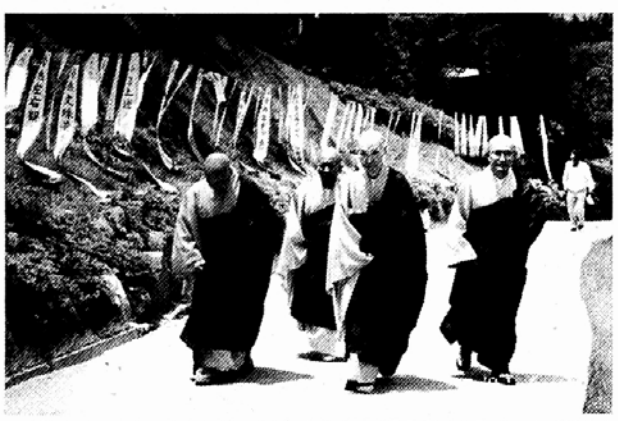


1923년 전남 무안에서 태어난 스님은 1947년 백양사 운문암에서 금타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이며, 현재 전남 곡성 성륜사에 주석하고 계신다.

출가이후 은사 금타스님의 가르침을 좇아 50여년간 대흥사, 진불암, 상원암, 남미륵암, 월출산 상견성암, 백장암, 벽송사, 백운산 사성암, 혜운사, 태안사 등의 토굴에서 묵언과 일종식 및 장좌불와 수행에 전념했다. 60세가 넘어서야 토굴생활을 접은 스님은 1985~95년 곡성 태안사에서 머물며 당시 폐찰이 되어가던 태안사를 중창했으며, 95년~99년 미국 삼보사와 금강선원에 머물며 현지의 불자들과 교포불자들에게 불법을 전했다. 특히 95년 1월 동안거 중에 7일간 대중을 위한 '순선안심탁마법회(純禪安心琢磨法會)'를 열어, 참다운 선수행의 도리를 설하기도 했다.

스님은 태안사때부터 지금까지 매월 첫째주 정기법회에 법문을 하신다. 이 법회 때마다 전국에서 스님의 법문을 듣기위해 불자들이 모여든다. 미국에 머물 당시에도 스님의 법문을 청하는 국내 불자들의 성화에 못 이겨, 98년 일시 귀국해 전국의 사찰과 단체에서 순회 법회를 하기도 했다.

요즘 스님의 법문은 현상적인 문제를 떠나 본체론적인 문제에 집중돼 있다. 우주의 근본도리가 무엇이며, 내 본래면목이 무엇인가. 또 부처와 나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하는 근원적인 문제들에 대해 설하신다. 스님은 3일 혜운사 법회를 시작으로 9일 서울 조계사, 10일 동산반야회관, 13일에는 강원도 양구 군법당에서 깨달음의 법문을 설하는 등 노령에도 중생교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항상 겸손하시고 자비하신 스님의 모습에서 불자들은 환희심을 내고 스님처럼 수행하고자 새롭게 발심하게 된다.

함으로 한치의 게으름도 용납없이 수행에 매진하셨다고 한다. 직접 끼니를 만들어 잡수시고, 의복 빨래도 직접 하셨다. 한 겨울에도 찬물에 목욕을 하는 등 철저히 정진했다. 스님은 지난 95년 미국으로 건너가 팜스프링 금강선원에서 3년간 하루 한끼 공양과 묵언, 장좌불와의 정진결사를 성취하셨다. 현재 청화스님은 80에 가까운 세수지만 참선과 묵언수행을 철저히 지키시는 등 여전히 엄격한 수행의 길을 걷고 계신다. 그런 스님이 불자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가르침은 계율을 지키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이 지켜야 할 도덕률 가운데 부처님이 설하신 계율 만큼 합리적인 것은 없습니다. 계율은 우리 사회생활에서 꼭 지켜야 할 우주의 질서입니다. 유교의 인의예지신이나,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십계명, 그러한 세계종교의 우수한 도덕률도 다 불교의 계율에 들어있습니다. 계율만 제대로 지키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마음도 편해지고 주위도 편해집니다. 우리가 참선염불을 해서 깊은 명상에 들어가려 하더라도 계율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흉내만 낼 뿐이지 마음이 정화가 안됩니다. 명상이라는 것은 마음의 정화를 도모하는 것인데 계율이 밑받침 안되면 명상을 해서 이루는 마음 정화는 올 수가 없지요."

혜운사에서 스님은 환한 미소로 기자를 비롯한 내방객들을 맞았다. 무릎을 꿇고 앉은 우리에게 연신 편히 앉으라고 하셨다. 옆에 있던 한 분이 "편히 앉지 않으시면 스님께선 불편해서 말씀을 제대로 못하십니다. 편하게 앉으세요"라고 눈치를 준 후에야 무릎을 풀어 편한 자세를 취했다. 스님께 옛날 수행하던 시절 이야기를 해달라고 청했다.

"내가 수행은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이러고 있습니다. 수행을 잘 했으면 삼명육통을 다해서 신통자재할 것인데, 수행을 흉내만 내놔서 잘 못했어요. 그래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후회만 막심합니다. 당시에 계행도 훨씬 더 철저히 하고, 공부도 용맹정진을 거듭했으면 진작 생사대사를 끝내버렸을 터인데... 나는 지금도 생사대사를 다 끝내버리지를 못했거든요. 공부를 시원찮게 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언젠가 기자가 서울에 있는 책방 여시아문에서, 안거를 마치고 시자와 함께 책을 사러 오신 스님을 우연히 만나 뵙고, 안부를 여쭈었던 적이 있다. 그때도 스님은 "나이가 들어서도 묵언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30~40대에 열심히 공부하고, 나이 들어서는 중생교화에 힘써야 마땅하나, 아직 공부가 덜 돼서 중생교화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참된 수행에 이르기 위해 묵언수행은 필수입니다. 정평있는 수행자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라며 겸손해 하셨다.

스님께 다시 여쭈었다. "스님, 공부하다가 막힐 때는 어찌해야 하나요? 특히나 요즘엔 다양한 수행법이 유행해서 불자들이 혼란스러워 합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수행에 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모든 명상법이 다 좋기는 좋은데, 그런 법은 해탈의 법이 아닙니다. 이른바 생사대사를 해탈하고 성자가 되는 법이 아니라, 불교적인 의미로 말하면 유위법이라. 삶의 유한적인 공덕을 위해 하는 법이기 때문에 몸이 좋아진다든가, 머리가 맑아진다든가 하는 데에 관심을 둔 사람들은 좋겠지요. 그러나 종교인으로서 정말로 생사윤회를 떠나서 부처가 되어야겠다, 성자가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은 이들에겐 미흡합니다. 미흡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제시한 수행법으로 나아가기 위해 준비 하는 데는 좋지요. 그러나 그것이 구경(究竟)의 경지라고 하면,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부처님법과는 거리가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근본불교의 수행법인 위빠사나도 삼매에 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위빠사나가 끝이 아니라 이 위빠사나를 통해서 삼매로 나아가면 좋지요. 그러나 보통은 위빠사나가 제일 수승하다고 해서 문제가 되요. 부처님의 명상법이 제일 완벽하고, 가장 최상의 수행법입니다. 부처님 명상법은 바로 성인이 되고, 생사대사를 초월해서 영생으로 가는 법이기에 가장 완벽한 법입니다. 다른 법은 최상의 법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과정일 뿐입니다. 다른 법은 유한적인 공덕이 크므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성을 알고 하면 좋습니다."

> "생활속 가장 쉬운 수행법은 염불 부처님 명호 언제나 염하세요"

하루 하루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현실 생활 속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 잡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청했다.

"부처님 법은 쉽다고 하면 제일 쉽습니다. 어째서 쉽다고 하느냐면 우주의 원리를 보탬이 없이 그대로 정확히 말씀하신 것이 부처님 법이기 때문입니다. 생활속에서 가장 쉽게 행할 수 있는 수행법은 염불입니다. 염불이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인데, 요즘 사람들은 체계가 복잡한 것만을 높은 줄 알고 염불은 너무 쉬우니까 소홀히 생각한단 말입니다. 명호부사의라! 그 이름 자체에 부사의한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음성 모든 형체 하나 하나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최상의 개념이 담겨있는 것이 바로 부처님 이름입니다. 제일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부처님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입니다. 삼세제불이 모두 순수한 이름입니다. 우주의 자비가 바로 관세음보살인 것이고, 우주 생명자체가 바로 나무아미타불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님은 불자들에게 수행방법으로 어느 한 방법에만 치우치지 않고 이 성적인 사람에게는 화두선으로, 의지적인 사람에게는 묵조선으로, 각기 근기에 맞도록 이끌어주신다. 특히 스님은 지정의(知情意)를 조화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염불선(念佛禪) 제창하기도 하셨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현대인들에게 알맞은 행법이 인간의 근본을 되찾는 염불법이라 설하시는 스님은 염불에 화두를 붙여 '염불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참구하는 방법과 본래가 부처라는 확신을 갖고 부처님의 법신을 관하는 실상염불(實相念佛)의 방법을 통해 깨달음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가르침을 주셨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수완스님의 스님이야기 — 문혜관 스님

문혜관 스님은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해남 대둔사로 출가 득도하였다. '혜관' 이란 법명을 쓰는 스님들이 많기에 그들과 구분하기 위해 문씨 성을 붙였다. 대둔사는 불교사에 큰 족적을 남긴 휴정서산 스님을 비롯 편양언기, 초의 스님 등 수많은 고승들이 수행 정진한 유서깊은 고찰이다. 그리고 해남은 조선시대 고산 윤선도와 다산 정약용 등 많은 대 문호들이 귀양와서 대둔사 스님들과 교류하며 시와 차를 음미하던 고장이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차 한잔에 시 한구절 음미하는 것과 창 한가락 하는 정도는 누구나 하는, 예사로운 일이다. 혜관스님도 대둔사에 있으면서 그곳을 찾는 수많은 시인묵객들을 자연스레 접하게 되었고 타고난 문학적 감성은 물을 만난 고기처럼 그를 시인이 되게 했다.

혜관 스님이 문학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시기는 80년도에 중앙승가대학을 마친 후 다시 대둔사로 내려가서 해남의 남촌문학 동인으로 작품을 발표하면서 부터이다. 그러던 그에게 엄청난 시련이 있었다. 간간이 지뢰 터지듯 발생하는 종단사태의 여파로 80년대 중반 예전부터 대둔사에 살고있던 박한영 스님 계통의 제자들이 갑자기 내몰리게 되었다. 그때 혜관 스님도 출가본사인 대둔사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 혜관 스

동인지 활동 · 문학상 제정
불교문학 발전에 공헌

님은 심성이 매우 곱고 여린 사람이다. 그는 대둔사를 인연하여 득도하였고 또 그 대둔사로 인하여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아직도 그는 대둔사와 해남에 대한 애정을 가슴 가득히 안고 살아간다.

혜관 스님이 대둔사를 떠나 서울로 거처를 옮긴 것은 불교문학적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잘된 일이었다. 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오현, 정휴, 청화, 성우, 진관, 지현 등 상당수의 승려 시인들이 왕성한 활동을 해오다가 80년대 중반부터는 활동이 뜸해졌다. 이 무렵 서울로 오게된 혜관 스님은 우여곡절 끝에 90년 4월 불교문학포교원을 홍은동 백련산 기슭에서 열고 5월 '큰 수레 글나눔'이라는 시 동인을 결성하여 문학활동을 시작하였다.

〈촛불 없이도 이 어둠을〉이란 첫 동인 시집을 91년 10월에 냈다. 책을 배포하고 난 다음날부터 항의가 빗발쳤다. 미당 서정주 선생의 글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베껴 쓴 어리석은 중생이 있었다. 혜관 스님은 미당 선생을 찾아가서 자세히 살피지 못하여 과오를 범했다며 사죄드렸더니, 불교문학 발전을 위하여는 더 큰 어려움도 감내해야 한다며 오히려 격려를 받고 왔다. 그후 동인지 〈돌의 탄생〉과 〈이슬을 털며〉, 〈길 없는 길에 서다〉를 냈고, 무크지 〈문학과 삶〉을 1회 발간 후 계간 〈불교문예〉를 95년 겨울호부터 지금껏 발행하고 있다. 또 91년부터 94년까지 '삼오문학상'을 제정, 운영하다가 95년부터 '현대불교문학상'으로 명칭을 개칭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동인 '큰수레 글나눔'으로 시작하여 지금의 '현대불교문인협회'가 되기까지, 또 계간 〈불교문예〉와 '현대불교문학상'을 현재의 위치에 이끌어 놓기까지 혜관 스님의 현신적인 노력과 원력이 없이는 불가능했다.

한국문학은 우리 나라에 불교가 전래되면서부터 비로소 문학적 형태를 갖추어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불교는 한국문학의 태생적 근원지라 할 수 있으며, 삼국시대 이후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쳐 근, 현대에 이르기까지 불교사상은 한국문학의 큰 줄기를 이루어 왔다. 한국문학의 시원이라 할 수 있는 향가는 불교의 본래 목적인 중생교화와 해탈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이후 조선시대까지의 구비문학에서 시, 소설에 이르기까지 거의 대부분의 작품에서도 불교적 구원사상이 배경으로 되어왔다. 이렇듯 우리문학은 불교 속에서 태동하여 성장했으며 근, 현대에 이르러 서구문학의 영향을 받아 보다 체계적이고 시험적인 발전을 하게되었다. 그 과정에서 불교적 사유와 정서를 바탕으로 하는 작가들이 주류를 이루며 한국문학사에 길이 남을 수많은 명작들을 남겼다.



문학은 어느 특정집단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매스미디어 시대인 현대 사회는 나(我)를 어떻게 보다 양질의 정보화를 시킬 것인가 경쟁하는 사회이다. 보다 양질의 정보화를 시키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자기표현 방법을 개발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문학은 현대의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그 어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불교문학은 시 쓰고 소설 쓰는 몇몇 사람들만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조계종단에서 상당한 지원을 받고있지만 아직도 최소한의 활동을 하기에도 힘겹다. 좋은 작품을 돈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작품을 돈으로 살 수는 있다. 가장 최상의 문학작품이 부처님 경전이라고 볼 때 지금은 현대인의 정서를 불교적 사유와 그릇으로 담아낼 수 있는, 이에 버금가는 문학작품이 필요하다. 불교 문학에 보다 폭넓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최상의 문서포교일 것이다.

정취암 한주



1차분 20권 완간기념 특별가 판매



• 판매기간 : 2001. 9. 15까지(정가:각권 9만원, 총180만원)
• 특별보급가 : 120만원(20권 1질, 카드분납 가능)

1차분 수록대상(1996~2000년)
통도사 · 해인사 · 송광사 · 직지사 · 월정사 · 화엄사 · 선암사 · 금산사 · 선운사 · 마곡사 · 법주사 등 11개 본말사 564개 사찰 및 박물관 7개 소에 소장되어 있는 1,621점의 탱화(3,674컷 수록)

소장하면 소장할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책

◆ 한국의 불화를 집대성하기 위해 전국의 사찰 및 국공립 · 사립박물관, 대학박물관 등 국내외에 산재한 불화를 직접 조사하여 수록했습니다.

◆ 원색도판을 풍부하게 실어 원화를 직접 대하는 느낌이 들도록 하였으며, 각 불화에 대한 해설과 함께 畵記를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韓國의 佛畵

불교출판 사상 최대의 불사, 두 번 다시 하기 힘든 한국불화의 집대성

해를 거듭할수록 훼손으로 인해 친견하기 어려워지는 각종 불화들!
우리의 성보인 이 불화(탱화)들은 장엄한 불국토의 화현이요
신심의 결정체이며, 불보살님의 원만한 상호에서 우러나오는 복덕의 광명은
우리의 어둠을 없애주고 간절한 바람을 성취시켜 줍니다.
저희 성보문화재연구원에서는 『한국의 불화』 1차분 20권의 완간에 이어
2차분 20권의 차질없는 간행을 새천년의 원으로 삼아 일심으로 정진하겠습니다.
부디 이 기회에 불화집을 구입하고 또 2차분 회원이 되시어
불보살님과 함께하는 인연을 맺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보문화재연구원 총재 / 석정 이사장 / 법하 원장 / 김현준
이사 / 무주 무현 동욱 태허 정우 명신 지현 정수 현기 우진
임창욱 홍윤식 장충식 손창길 조해수 조경숙

구입문의 / 성보문화재연구원 ☎ (02) 587-6613, 701-6830, 6832 팩스 (02) 586-90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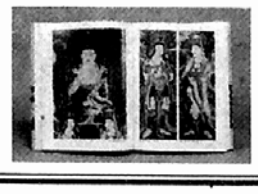
『한국의 불화』 2차분 20권 불사에 동참을!

성보문화재연구원에서는 **올해부터 향후 5년에 걸쳐 2차분 20권을 편찬함으로써**, 이 땅의 독특한 성보요 전세계의 자랑거리인 우리의 불화를 총망라하여 **『한국의 불화』 총 40권을 완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매년 4권씩 발간하는 이 불화집의 편찬은 방대한 예산과 많은 인력, 그리고 지극한 정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야말로 불교계 전체의 일이요, 감히 한 연구단체에서는 이루어내기 어려운 불사입니다. 부디 시방의 불보살님과 인연을 맺는 이 불사에 뜻있는 분들이 동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청하옵니다.

• 회원 모집기간 : 2001. 9. 15까지
• 회원동참비 : 120만원 (20권 1질, 카드분납 가능)

▶ 회원이 되신 분은 20권 각 권마다 시주질(이름)을 밝혀 불연을 영구히 남깁니다.

原畵 그대로의 화려함이 살아 있습니다



○ 판형 : 가로 257 × 348㎜ (타블로이드판형)
○ 면수 : 각권 250쪽 내외 (원색화보, 해설, 화기 수록)
○ 장정 : 전면 컬러 · 양장제본
○ 발행처 : 성보문화재연구원

♬ 트로트…가요…성악

스님들 노래포교 '흥겹다'

노래하는 스님? 얼핏보면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음성공양을 통해 불법을 전하는 스님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이들은 불음가요, 찬불가, 트로트, 명상음악, 성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통해 대중들에게 가까이 다다가고 있어 포교 효과도 크다.

현재 교계에서 불음 포교를 하고 있는 스님들은 범능, 지범, 정률, 대주, 도신, 심진스님 등 10명 정도. 이들 중 최근들어 활발한 활동을 펴며 음성포교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이는 범능스님(대전 대진정사 주지). 지난 달 '오월의 꽃'과 '먼 산' 등 두 개의 음반을 잇달아 발표한 범능 스님은 출가 전 전남대에서 국악을 전공한 음악도 출신이다. 광주에서 공부한 영향으로 민중가요를 주로 작곡하며 직접 노래까지 불렀던 스님은 93년 출가 이후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도종환, 김용택 시인에게 노랫말을 부탁해 이번 음반을 만들었다. 1집 '오월의 꽃'은 제목이 상징하듯 광주 민중항쟁을 소재로 만든 곡들이고, 2집 '먼 산'은 불교사상이 녹아 있는 노랫말에 국악리듬을 붙인 서정적인 찬불가요다.

91년 〈부모은중경〉 노래로 데뷔한 지범 스님(제주 불광사 주지)은 가을 경 선보일 6집 '명상의 노래' 음반 녹음작업에 한창이다. 스님의 노래는 주로 부처님의 경전과 선시에 곡을 붙인 것들이어서 불교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는 데 큰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5년부터는 새 음반을 내놓을 때마다 제주 문예회관에서 발표회를 여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불교와 트로트를 접목한 대주 스님(청량리 백사 등 전국 유수 사찰음악회에 단골 초청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원광대 음악교육대학원에서 성악을 전공한 스님은 교계의 전문 음악가들로 구성된 '부르나 솔리스트 앙상블'도 결성해 불교음악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밖에 창작국악교성곡 '혜초', 국악교성곡 '붓다' 와 같은 대규모 공연에서 활동하는 도신스님을 비롯해 '우리 가는 길' '산사' '어머니' 등 가슴을 울리는 목소리의 심진 스님(현등사), '사람사는 정' '인연따라 바람따라'의 해성 스님, 최근 찬불가요 '샘'을 발표한 보현 스님(부처님마을) 등도 빼놓을 수 없는 불음 포교사들이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범능 스님
'오월의 꽃' 등 2장 출반

지범 스님
가을 선보일 음반 녹음

대주 스님
종교화합 음악회 추진

정률 스님
산사음악회 단골 초청


◇범능 스님


◇지범 스님


◇대주 스님


◇정률 스님

"사찰음식은 중요 문화유산"

선재사찰음식研 개원 선재 스님



"음식은 단순히 육체의 보존을 위해서 뿐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문화까지도 지배하는 큰 힘을 지녔다. 특히 사찰음식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불교의 가르침이 담겨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최근 문을 연 서울 보타사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 선재 스님의 말이다.

연구원 개원 후 스님은 주중에는 보타사 연구원과 동국대, 한국음식연구소 등에서 사찰요리를 지도하고, 주말에는 지방을 돌며 사찰음식을 조사하고 새로운 자료를 정리하는 등 눈코뜰 새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스님은 지난 8일 환경보호운동모임인 〈지구를위한시민행동〉에 초청받아 '산사의 선식으로부터 배우는 식탁문화'에 대해 강연했다. 또한 문예진흥원 주최로 20일~23일에 열리는 외국인과 재외교포를 위한 국제문화학교에서 사찰음식 만들기와 바루공양 체험을 지도할 예정이다.

이천에서 서울로 옮겨온 후 오염된 공기 때문에 담아두었던 장이 상하는 것을 보고 환경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됐다는 스님은 '자연과 인간이 하나'라는 생각에서 우리 삶의 터를 지키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먹을거리 문화를 바로 잡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연구원에서 쓰는 요리재료 가운데 밀가루와 식용유만 제외하고 모두 손수 마련한 천연재료를 사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여름에 먹을 만한 사찰음식을 소개해 달라는 요청에 스님은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먹기보다는 호박이나 보리차 등 몸의 열을 식혀주는 음식과 제철에 나는 잎사귀 식물을 이용한 음식으로 열을 식히고, 수분을 조절하는 등 몸이 스스로 더위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름을 이겨내는 비법"이라고 말했다.

이은자 기자 eleej@buddhapia.com

초의선사 그림 '다산초당도' 발견

고미술 수집가 '백운첩' 공개

초의 선사가 다산 정약용의 유배지 다산초당을 그린 산수화가 발견됐다.

이 그림은 고미술수집가 이재환(42 · P&N 대표)씨가 4일 공개한 다산의 〈백운첩〉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백운첩〉은 다산이 1812년 음력 9월 초의 스님과 함께 월출산을 구경하고 인근 백운동(현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하리)에서 하룻밤 머문뒤 만든 20폭 짜리 시화첩 형식이다. 여기에는 다산초당도를 포함한 초의 선사의 그림 2점과 다산 한시 12수 등이 포함돼 있다.

다산은 발문에서 "승려 의순(초의 스님의 속명)이 '백운동도'와 '다산초당도'를 그려 두 곳의 우열을 비교할 수 있게 했다"고 적었다.

초의 선사는 〈동다송〉을 저술한 우리나라 차문화의 중흥조로 꼽힌다. 이번에 초의 선사가 직접 그렸다는 두폭의 산수화가 발견됨으로써 차, 시, 글씨와 더불어 그림에까지 조예가 깊었던 스님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은자 기자


◇초의 선사가 그린 '다산초당도'(가로 27cm, 세로 19.5cm).

새 찬불동요 CD

'풍경소리 12' '으뜸 · 버금 · 딸림'

찬불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좋은 벗 풍경소리에서 찬불동요 창작곡 열두번째 모음집 〈풍경소리 12〉와 어린이 찬불동요 모음집 CD 〈으뜸 · 버금 · 딸림〉을 발표했다.

어린이불자를 위한 여름불교학교를 앞둔 시점에서 선보인 찬불동요 〈풍경소리 12〉에는 신나는 대중가요풍의 '부처님 품안에서', 염불하는 마음을 노래한 '염불소리' 등 12곡의 새 노래가 담겨있다. 특히 이번 앨범에는 12곡의 찬불동요를 실제 불교학교에서 반주대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래부분 외에 반주 부분을 첨가했다.

3장의 기획 앨범으로 내놓은 찬불동요 모음집 〈으뜸 · 버금 · 딸림〉에는 지난 1995년 찬불동요 창작곡 제1집~10집에 담긴 노래 가운데, 어린이법회를 중심으로 널리 불려지는 90곡을 엄선했다.

수증 스님 수묵화전

20~26일 경인미술관

화가 수증 스님이 20일~26일까지 서울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 두 번째 개인전을 갖는다.

작은 바위 옆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수선화를 그린 '수선의 노래', 풀섶에 다정하게 앉은 산새들의 모습을 통해서는 '한마음'을 읽어내는 등 잠시 마음을 멈추어 다시 생각하게 하는 35점의 수묵화가 전시된다. (02)733-4448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오랜만에 옛친구를 만났다. 평소에 많은 사람을 만나며 살지만, 속내를 주고 받을만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知己)'이 소중하고, 그런 사람과 가끔 만나 나누는 대화가 없다면 이 넓은 세상은 사막처럼 삭막해질 것이다. 차 한 잔을 앞에 놓고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문득 창 밖을 쳐다보았더니 어느새 붉은 노을이 걸려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며 깜짝 놀랐다. 점심시간에 만나 대화를 나누기 시작해서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았는데, 벌써 저녁이 되었던 것이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다니!

불교에서는 이런 시간체험을 '삼매(三昧)'라고 한다. 한 가지에 마음을 집중하여 시간의 흐름이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화엄경〉에는 이렇게 진리를 체득하는 방법으로 열 가지 삼매가 있다고 한다. 그 중에서 으뜸은 '해인(海印)삼매'인데, 그 내용을 신라의 의상 대사는 '화엄일승법계도'에 잘 요약해 놓았다.

최치원의 〈부석존자전(浮石尊者傳)〉에 이 글이 탄생한 연유가 소상히 나와 있다. 의상이 당나라에 건너가 스승 지엄의 문하에서 화엄을 수학하여 마침내 공부를 마무리할 때가 되자, 꿈에 신인이 나타나 깨달은 바를 저술하여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권고를 받았다. 스승 지엄이 그 말을 듣고 의상에게 졸업논문을 쓰게 한다. 방대한 화엄경을 요약하여, 처음엔 10권 분량의 글이 나왔고 다시 가다듬어 한 권으로 축약했다. 지엄은 의상을 데리고 부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한 서원과 함께 책을 불살랐다. 마침내 타고남은 210자를 정리한 것이 법계도이다.

문학적 주제 '시간' (2)

시간 흐름 끊고 삼매에 들면 영원도 한 순간

의상 스님은 각고의 노력으로 화엄경을 공부하며 해인삼매 중에 터득한 '시간관'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그는 30행 중에서 4행을 시간에 대해 직접 언급했다.

無量遠劫卽一念 무한히 긴 시간도 한 찰라
一念卽是無量劫 한 찰라가 곧 무량겁
九世十世互相卽 흐르는 시간과 순수한 시간이 서로 곱해져도
仍不雜亂隔別成 어지러이 섞이지 않고 정연하다

이 글에서 먼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것은 '즉(卽)'이라는 말이다. 이것이 사바세계(임상)와 화엄법계를 가르는 경계이다. 말하자면 차원의 문제로, 3차원에서 4차원으로 넘어가려면 이 말을 소화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다'는 일상의 논리를 무력화시키고, '이것이 곧 저것이고, 저것이 곧 이것이다'는 이해하기 힘든 초논리를 통해 초월적 세계를 드러내는 방법론이 '즉'이라는 말이다. 비유하면, 공간과 시간의 관계에서 이 둘이 더하기로 만나면 일상의 차원이고, 곱하기로 만나면 삼매의 차원이 된다. 마음을 모아 시간의 흐름을 끊고 삼매에 들면, 영원도 한 순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때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풀려나는 경험을 한다. (계속)

■문학평론가

불교 TV가 정성들여 준비한 삼베명품전

孝道佛事





수분흡수와 방산기능은 일반천의 6배, 두꺼이나 피염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30,000원
삼베양말 특별할인가 (남·여) 각 1set(6족) 20,000원



삼베목수건은 식물성섬유와 동물성섬유의 장점을 살려 제작해 삼베특유의 사각사각한 느낌이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20,000원
삼베목수건 특별할인가 1개 10,000원 / 크기 24cm(너비)x262cm(길이)

1,400,000원
극락왕생복 특별할인가 (남·여) 각 1,120,000원
스님들의 수의도 짓고 있습니다.

btn 불교텔레비전 32

불교텔레비전주식회사
서울마포구 마포동 418 금호전기빌딩
대표전화:02-3270-3300 팩스:02-3270-3498

• 불교TV 후원의 전화 : ARS(02)700-1032(한 통화에 2,000원의 후원보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불교TV 시 청 방 법 : 전국 각 지역의 종합유선방송(SO)에 연락하여 신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주문전화(불교TV사업부)
02-3270-3366~7

묵조와 간화 차이점 분석

'묵조선 연구' 김호귀 지음



선학을 전공한 한 소장학자가 화두선 일변도인 우리나라 선불교에 '왜 간화선이지 않으면 안되는가' 란 물음을 던진다. 그리고 그는 역설적이게도 간화선의 특징을 묵조선의 비교를 통해 살핀다.

신간 〈묵조선 연구〉(민족사)는 그 연구의 결과로, 초기 선종의 좌선관을 비롯해 묵조선의 여러 특징들을 조목조목 탐구한다. 지은이는 동국대 선학과 강사 김호귀 씨. 그는 들머리에서 "좌선을 통해 본래성불을 자각하는 것이 묵조선 수행의 기본구조다"며 "묵조선은 굉지정각이 주창한 것으로 몸으로는 묵묵한 좌선수행으로 일관하는 '묵(默)'과 마음으로는 본래부터 깨달은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는 '조(照)'를 의미한다"고 말한다.

이처럼 이 책은 묵조선 성립의 사상적 배경에서부터 조동종지의 성립, 〈굉지록〉에 나타난 묵조선, 묵조와 간화의 차이 등을 살핀다. 또한 이 선법이 우리나라와 일본에 전래돼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밝히고 있다.

특히 지은이는 굉지정각의 실천적인 좌선관의 특징과 묵조선의 근본 교의인 오위사상(五位思想) 과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깊이 있게 접근한다. 값 2만원.

김중근 기자

만화로 보는 불교이야기

김정빈 '불교란 무엇인가' 시리즈 5권



불교의 기본 상식부터 부처님 생애, 고승 일화, 경전 등을 담은 만화로 보는 불교 이야기 시리즈가 나온다.

구도소설 〈단(丹)〉의 작가 김정빈 씨가 글을 쓰고, 만화가 최병용 씨가 그림을 그리는 이 시리즈는 〈불교란 무엇인가〉(책이있는마을)를 시작으로 모두 5권이 출간될 예정이다.

최근 출간된 1권 〈불교란 무엇인가〉는 흔히 불교하면 연상되는 상식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한다. '불교가 무엇이기에', '알고 하는 절 구경' '들여다 볼 수 없었던 스님들의 세계' 등 6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사물(범종 · 법고 · 운판 · 목어)이나 수인 등의 의미와 유래를 풀이하고 있다. 값 8천원.

김중근 기자







◇호암미술관 소장 '수월관음도(왼쪽)'와 이왈종 씨의 '생활속의 중도(가운데)', 그리고 박성식 씨의 '타임 인 타임(오른쪽)'.

"불교미술 속에 깨달음 있어요"

'불교미술을 보는 눈' 김영재 지음

불상과 경전 그리고 탑은 한 몸이다. 이름도 생김도 다르지만 본질을 향해 다가가면 셋 다 '부처님 법신(法身)'으로 귀결된다.

신간 〈불교미술을 보는 눈〉(사계절)은 고대부터 최근까지의 불교미술 작품들을 망라해 불교미술을 보는 눈을 어떠해야 하는지, 불교미술이 어떻게 한 몸인지를 밝혀내는 책이다. 지은이는 동국대 불교대학 응용불교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김영재 씨.

책은 '불교미술이 뭐예요'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림이 있다며 세 점을 내놓는 것으로 시작된다. 호암미술관 소장 '수월관음도', 이왈종 씨의 '생활 속의 중도', 박성식 씨의 '타임 인 타임'이 바로 그것이다. 지은이는 그 그림에 대해 이렇게 평한다. '수월관음도'는 화승이 그린 것으로 까다로운 도상을 눈감고도 그릴 수 있을 만큼 경지에 이른 작품이며, 이왈종 씨의 '생활 속의 중도'는 테마는 불교 교리이지만 교리 해설을 위해 표현의 자율성을 제약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박성식 씨의 '타임 인 타임'은 불상을 우리 중생의 삶과 행위와 고락 그리고 애환을 싣는 배로 해석한다고 설명한다.

지은이는 시대와 작가의 사상 그리고 배경이 다른 세 작품을 비교한 다음 독자들에게 "불교 미술을 어떤 것인가"라며 한 점을 선택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되물을 수 있는 물음에 미리 못을 박는다. "신앙과 포교 등의 목적으로 조성된 것이 불교미술이 아닐까요"라고 반문하기 십상이라고. 신앙과 포교를 목적으로 한 작품만을 불교미술이라 한다면 '생활 속의 중도'와 '타임 인 타임'은 불교미술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책의 제목에서 엿볼 수 있듯이 이 책의 주된 메시지는 바로 불교미술을 보는 시각을 새롭게 갖고 작품 속에 깃든 진정한 의미를 바로 알자는 것이다.

교리 · 일화 작품속에 녹여 부처님 사상 · 숨결 나타내

세 점의 도판을 통해 불교의 미술을 보는 눈을 뜨게 한 지은이는 불화와 불보살상 등 2백여 장의 도판을 제시하면서 불교미술의 본질적인 문제로 독자를 안내한다. 특히 불교미술을 통해 불교의 진리를 드러내는 안목은 심오하다.

지은이는 불교미술을 오케스트라에 비유한다. 그리고 그 오케스트라를 가능하게 했던 악보와 음표 등은 부처님의 행적과 숨결 사상이 담긴 원시경전으로 보고 있다. 불교 미술이 대부분 불교의 교리나 경전, 일화, 어록 등을 재해석하고 있기 때문. 이러한 진리의 발견과 깨달음으로 불교미술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 불교미술을 보는 그의 시각이다.

이러한 지은이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 한 가지 예. 돈황 막고굴의 불상과, 불국사의 다보탑,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동제음각보탑을 비교하면서, 세 작품의 모양새는 다르지만 불상은 법신을 상징하고 불탑은 의인화된 법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부처님과 법신으로 집약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처럼 이 책은 불교 미술을 보는 올바른 시각과 그 속에 함축된 불교 사상을 체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동안 쏟아져 나온 천편일률적인 문화재 안내식의 책과 다른 내용 전개도 이 책의 값어치를 높여준다. 값 1만6천원.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금산사·월정사 등 사찰여행 길잡이



우리사찰답사회는 사찰여행 길라잡이 '가족과 함께 떠나는 사찰여행' 시리즈를 펴낸다.

〈황악산 직지사〉(문예마당)를 시작으로 〈모악산 금산사〉, 〈오대산 월정사 · 상원사〉, 〈오봉산 낙산사〉, 〈설악산 신흥사〉 등 4권이 잇따라 출간됐다.

26권으로 완간될 이 시리즈는 사찰의 창건 유래와 창건 설화, 중심 사상을 비롯해 전각, 탱화, 석탑 등을 컬러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각권 3천8백원.

김중근 기자

세상을 즐겁게 살아가는 법

'잉잉? 윈윈!' 신현암 지음



"시각의 대상인 물질적 존재도 변화하며, 의식의 대상인 생각도 변화한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삼계의 사생치고 무상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동의하는 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하거나 두려워한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 더욱 그렇다.

신간 〈잉잉? 윈윈!〉(신현암 지음, 더난)은 부제 '회사에 잉잉거리지 말고 윈윈하며 살아가라'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변화를 추구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경영지침서다. 지은이는 세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물론 직장과 조직도 변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편다. 특히 이 책은 변화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피로가 누적된 이들에게 즐겁고 쉽게 변할 수 있도록, 세상을 바라보는 원칙과 자기 개발의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세상과 고객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똑바로 응시하고 있다면 즐겁게 기업과 조직 그리고 자신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은이의 주장을 따라 가다 보면 변화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님을 느낄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조직은 튼튼한 기본을 바탕으로 한 창의력을 가진 사람을 원한다. 이 책은 왜 그런 사람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독자들을 설득한다. 값 9천5백원. 김중근 기자

새로나온 책



▲풍경소리(박상륜 지음, 태학사)= '문' '아리랑 역은 매주 혼잡한 곳입니다' '풍경소리' '난세사설' 등 다섯 편의 희곡을 실었다. 표제작 '풍경소리'는 주인공 일신 스님의 행적과 수행을 통해 불자들로 하여금 죽은 부처를 맹신하지 말고 살아 있는 부처의 실체를 가져야 하며, 모든 중생들이 스스로 살아 있는 부처로서 자각과 실천을 행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값 9천원.



▲불교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찾아서(사요 스님 지음, 부다가야)= 불교 기본교리를 6개월 과정의 불교대학 강의 형식으로 꾸민 입문서. 불교의 의미와 사상에서부터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 사찰의 유래, 불자의 예절 등을 망라하고 있다. 또한 '새겨두기'를 통해 각 주제의 장과 연관되어 중요한 내용을 선별하여 스스로 생각하고 관련 내용을 직접 찾아 볼 수 있게 꾸몄다. 값 8천원.



▲네가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다(하야시 가쿠죠 지음, 삼중 스님 옮김, 맑은소리)= 일본 진언종의 총본사 남장원 주지 하야시 가쿠죠 스님의 수필집. 아이들이 부모에게, 가장 친한 친구에게 말하듯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희망과 사는 방법들을 이야기하듯 잔잔하게 풀어내고 있다. 작고 평범함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복을 찾으란 것이 이 책의 메시지다. 값 8천2백원.



▲내 건강 비법(김용판 지음, 우리)= 자연 치유력의 본질과 이를 회복 강화시켜 주는 방안에 대해 음식, 운동, 심리 요법과 함께 체내의 독소 제거 요법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하늘이 내린 의사, 자연 치유력' '치병의 출발, 체내의 독소 제거' '정신과 육체의 기초, 음식' '약동하는 생명의 상징, 운동' 등 모두 7장으로 구성돼 있다. 값 1만원.



▲화타오금지희도해(곽정헌 지음, 김성기 · 박윤성 역, 우리)= 호랑이, 곰, 원숭이, 사슴, 새 등 다섯 동물의 운동형태와 특징을 인체와 부합시켜 만든 오금희(五禽戲)의 원류를 적은 입문서. 오금희는 기공체조로써 인체 생리에 의술의 이치를 결합시켜 치료를 한다는 것이 기본 원리다. 화타오금지희 한국지부 창립에 맞춰 출간된 이책은, 동작별 사진과 설명을 곁들여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게 했다. 값 8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 · 편자	출 판 사
1	나의 행자시절	박 원 자	다할미디어
2	불교를 알고 싶어요	돈 관	우 리
3	참회 참회 기도법	김 현 준	효 림
4	선의 나침반	현 각	열 림 원
5	온 세상은 한송이 꽃	무 심	현 암 사
6	지장경 강의	무 비	불 광
7	금강경 강의	혜 거	부다스토램 당원
8	선재스님의 사찰음식	선 재	디자인하우스
9	영가천도	우 룡	효 림
10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청 견	붓다의 마을

도서 안내:(02)737-6095

기도 및 영가천도 법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기도! 어떻게 해야합니까?"

일타큰스님의

생활속의 기도법

여러가지 상황의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4×6판/값 3,500원

일타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기도』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스님 자신과 도반 · 선배 · 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 성취 영험담 52편을 모아 엮었습니다.



일타큰스님 지음 / 신국판 /값 5,000원

남국선원장 혜국스님께서 알기쉽고 재미있게 엮은

천수경 천수신앙

신국판/값 5,000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독송하는 천수경! 심오한 뜻을 알고 기도하면 성취가 빠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와 관세음보살님께서 깨친 진리를 문자로 표현한 천수경. 그 가르침을 '나'의 것으로 만들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위신력이 언제나 함께하고, 능히 심중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영가천도는 어떻게 하나요?"

우룡큰스님의

영가천도

4×6판/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 · 사경천도법, 사십구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과 방법을 우룡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불교신행연구원 김 현 준 원장의

참회 · 참회기도법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곧 '나'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맺힌 것을 풀고, 푼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묘법이 참회인 것입니다.

이기적인 '나'를 비우고 무조건 참회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참회하고 기꺼이 받고자 할때 모든 것은 풀립니다.

이 책을 읽으시고, 정성스런 참회를 통하여 불보살님의 자비광명 속으로 들어가는 물꼬를 틔어 보십시오. 가피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행복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합니다.



4X 6판 / 값 3,500원

〈구성〉

Ⅰ 업장과 참회 Ⅱ 가까운 이를 향한 참회
Ⅲ 절을 통한 참회 Ⅳ 참회염불
Ⅴ 참회행지의 마음가짐 Ⅵ 이참법과 대승유정참회

영가천도를 위한 지침서

지장신앙 · 지장기도법



영가천도의 보살인 지장보살! 그분은 영가천도 뿐아니라 업장참회와 무한행복, 대해탈까지도 능히 안겨줍니다.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측면과 함께 영가천도를 비롯하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지장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4×6 판 / 값 3,500원

지장보살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예찬문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 예참,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책.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되면, 영가천도 · 업장소멸 · 소원성취 · 향상된 삶을 이루게 됩니다.

김현준 편역 / 신국판 / 값 5,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587-6612 · 팩스 : (02)586-9078

태고 보우 국사 탄신 700주년
학술대회 · 문화행사 잇달아

"원융사상 진면목 알린다"

태고학회 · 중흥사 등 국제학술대회 준비
조계종 종단차원 첫 다례제 11월 봉행

올해는 태고보우 국사 탄신 700주년을 맞는 해다. 조계종, 태고종 등 10여 개 종단에서 종조 및 중흥조로 받들고 있으면서도 태고보우 국사의 사상에 대한 학술적 · 역사적 조명은 소홀했던 게 사실이다.

태고보우 국사 탄신 700주년을 맞는 올해,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조명하는 각종 행사가 풍성하다. 태고보우 국사가 태어난 음력 9월 21을 전후해 탄신 다례제를 비롯 각종 학술대회, 학술기행, 지역 문화잔치 등이 열린다.

학술대회는 모두 네 차례가 계획되어 있다. 올 1월 출범한 한국불교 태고학회(회장 무공 스님)는 11월 3일 불교방송 공개홀에서 국제 학술대회를 연다. '태고보우 국사의 원융불교가 한국불교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열리는 학술대회에는 국내뿐 아니라 중국학자도 참석해 그의 원융사상과 수행 교화법을 살펴본다.

태고보우 국사의 비와 석종형 부도가 남아있는 양평 사나사는 '태고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10월 중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태고보우 국사가 중건했다고 전하는 북한산 중흥사는 '중흥사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학술대회를 연다. 태고보우 국사 관련 서적을 꾸준히 발행하고 있는 불교춘추사는 국사가 석옥천공 선사로부터 깨달음을 인가받은 중국 호주시 현지에서 '원대 불교와 한중 차문화의 교류사'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 예정이다.

조계종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다례제도 열린다. 사나사는 국사가 태어난 11월 6일 조계종 총무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다례제를 봉행할 예정이다. 양평군의 지원을 받아 고려시대 왕사 · 국사의 운행 행렬을 복원하는 등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잔치 법회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해 태고보우 국사 유적 답사를 다녀오는 등 조계종 사찰로는 유일하게 태고보우 국사 선양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주지 화암 스님은 "한국 불교사의 큰 스승인 만큼 스님의 발자취와 사상을 통해 오늘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태고학회는 태고보우 국사의 자취를 직접 둘러보는 국내 · 외 학술기행도 마련하고 있다. 지난 5월 28~30일 태고사, 회암사, 사나사, 소설암지, 봉암사, 법주사, 보림사 등 국내 유적 답사를 가진 데 이어 9월에는 중국 하무산 천호암 등 국사의 중국 유학 당시 현장을 답사하는 2차 학술 기행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1차 국내 학술 기행에서는 태고보우 국사 관련 유적에 관한 오류를 바로 잡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태고학회 회장 무공 스님은 "문경 봉암사 조사당에 봉안돼 있는 국사의 영정이 '太古堂 普愚 虛應 大和尙 影幀(태고당 보우 허응 대화상 영정)'으로 기록돼 있고, 석종형 부도 안내판에도 '太古普雨(태고보우, 1301~1382)의 부도'라고 잘 못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허응(虛應)'과 '보우(普雨)'는 조선 중기 때 활약하던 '허응당 보우(虛應堂 普雨)'를 말한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태고학회 회원들이 5월28~30일 실시한 태고보우 국사 유적 답사에서 출가지인 양주 회암사터를 둘러보고 있다.

高僧 다시보기

순도화상과 불교공인

우리 나라 불교의 역사는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 전진에서 승려 순도가 불상과 불경을 전하고 그 보다 12년 뒤인 침류왕 원년(384) 동진에서 온 고승 마라난타가 백제에 불교를 전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신라는 눌지왕(417~458) 때 전래되었고 법흥왕 14년(527)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공인되었다.

이러한 불교 초전(初傳)의 내용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국사교과서를 통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들 교과서는 불교 전래의 사실만 기술할 뿐, 처음 전래한 사람에 대한 역사적 평가나 구체적 언급에는 대단히 인색하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소수림왕 편을 보면, "2년(372) 여름 6월에 진나라 왕 부견이 사신과 중 순도를 시켜 불상과 경문을 보내오므로, 왕은 사신을 보내어 답례하고 방물을 바쳤다"고 나와 있다. 〈삼국유사〉 흥법편도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를 인용해 "또 4년(374)에는 아도가 동진에서 왔다. 이듬해 을해(375) 2월에는 초문사를 지어 순도를 그 곳에 있게 하고, 또 이불란사를 지어 아도를 그 곳에 있게 했는데, 이것이 고구려 불법의 시초다"고 고구

진나라 왕 사신으로 고구려 입국
소수림왕 5년 초문사서 민중교화

려에 불교가 처음 들어온 장면을 설명하고 있다.

순도스님이 어느 나라 사람이며, 어느 나라를 거쳐서 언제 고구려에 들어왔는지는 〈해동고승전〉 등의 기록을 봐도 모호한 점이 있으나, 중국 본토 사람이 아닌 것만은 확실시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의 이러한 불교초전 기록도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중국의 〈양고승전〉에는 동진의 고승 지둔도림(314~366)스님이 생전에 고구려의 승려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순도스님이 이 땅에 오기 이전에도 한반도에 불교가 들어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남방을 통해서는 순도스님보다 매우 앞선 시기에 불교가 들어 왔다는 사실들도 전하고 있다. 서기 48년에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인 허왕옥이 뱃길로 와서 가야의 시조인 수로왕의 왕비가 되었다고 〈삼국유사〉는 전한다. 물론 남방전래설은 이를 그대로 믿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으나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볼만하다.

불교초전과 관련해서 우리는, 순도스님이나 마라난타스님이 북방에서 우리 나라로 들어왔을 때 국가가 불교를 공인하였다는 사실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불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하기 전에 이미 이 땅에 불교가 들어와 있었음을 입증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순도스님이 덕망이 고매하고 교화의 열의가 굳은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는 역사기록으로 볼 때 순도스님과 같은 승려의 교화에 힘입어 민중들 사이에서는 불교가 이미 널리 퍼졌고, 비로소 국가가 공인하였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이 땅에 불교를 전하였던 고승이나 인물들은 순도스님이나 마라난타스님 이전에도 있었으나, 그들이 계속 불교를 홍포하여 왕들로 하여금 불교를 공인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황인규/동국대 강사

문화재청 조직 개편
2국 7과 → 3국 11과

사찰소장 비지정문화재를 비롯해 문화재 도난 · 도굴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청이 문화재 사범 전담인력을 대폭 보강하는 등 문화재청 조직 개편 작업에 들어갔다.

문화재청은 현행 2국 7과 체제를 3국 11과로 확대 · 개편하는 조직 개편안을 최근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문화유산국 안에 포함된 기념물과가 분리돼 문화유산국과 기념물국으로 나뉘고, 문화유산국은 매장문화재국과 동산문화재국, 건조물국으로 세분화된다. 이에 따라 현재 유형문화재과 동산계 소속인 문화재사범단속반도 2명에서 5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문화재청의 이 같은 방안은 최근 매장문화재 보존의 필요성과 문화재 관리 · 보존에 따른 지적이 잇달아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문화재청 문화재기획국 김동영 사무관은 "각 영역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확대 ·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종교계 사회적 실천 강화할 때"

종교사회복지硏 '한국종교문화 비판' 세미나

"최근 들어 한국 종교문화의 전근대성 혹은 종교권력 등에 대한 비판적 담론이 무성하다. 종교인 집단의 사회적 실천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될 때다."

한국 종교문화의 현 모습을 진단하고 새로운 종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4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종교사회복지연구소(소장 이혜숙) 주최로 열린 '한국 종교문화 비판과 대안'이 바로 그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는 '종교적 본성'을 잊어버린 종교 문화에 대한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다.

먼저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장석만 연구위원은 "거의 모든 한국의 종교에서는 가부장적 권위주의와 남녀불평등이 존재한다"며 "상명하복의 규율과 군사 독재적 권위를 휘두르며 신자들을 길들이려 하는 가부장적 종교문화를 벗어버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국불교, 그 전통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발표를 통해 진철승(불교문화연구소) 씨는 "한국불교의 가장 주요한 전통을 거의 흘로 짊어지고 있는 조계종은 선종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씨는 "사판의 절대적 권세와 분규가 횡행하는 종단이 선종인가?" 묻고 "부처님 당시의 무소유 정신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탁발정신을 회복하고 비구 승려들이 종단의 모든 운영권을 독점하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사회의 근대화와 개신교'란 주제발표를 한 서울대 종교학과 이진구 교수는 "교회 위기의 진원지는 바로 기복신앙을 이용한 승리주의, 패권주의, 가부장주의의 절묘한 결합에 있다"며 "교회가 자발적 집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권력의 그물을 해체하는 작업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종교성 회복을 위한 대안의 하나로 종교계의 사회복지 참여를 들었다. 정무성 교수(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는 "'기복신앙'이라는 우리 나라 종교문화의 형태가 사회복지에도 그대로 나타난다"고 밝히고 "소외계층에 대한 종교계의 사회복지 참여는 종교성 회복을 위한 적절한 기회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형진 기자



◇종교사회복지연구소 주최로 4일 열린 '한국 종교 문화 비판과 대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종교성 회복을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탄 신

한국선학회 16일 월례발표

한국선학회는 16일 오후 1시30분부터 동국대학교 덕암세미나실에서 6월 월례 학술발표회를 연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우제선 교수가 '수행자의 현량에 대한 일고찰'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종철 · 조경철 · 김영태 교수가 '고려대장경 판각 장소 선원사의 위치 비정'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김병곤(동국대 박물관) 황인규(동국대 강사) 씨가 나선다.

문화재 지표 조사 지침 마련

문화재청은 최근 '문화재 지표조사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은 문화재지표조사에서 논란이 돼 왔던 건설공사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면적이 3만 평방미터 미만인 공사는 시 · 도지사가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가야산 심원사지 시굴조사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알려진 경북 성주군 가야산내 심원사지에 대한 시굴조사 실시된다. 중앙승가대학교는 이번 시굴을 통해 금당터를 비롯한 사역의 규모와 가람배치 등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해 지표조사를 실시했던 대구대 박물관에 따르면 심원사지에는 현재 4개의 축대와 건물지 5개소, 1989년 복원된 삼층석탑 등이 남아있다.

BINGAGED BUDDHISM
참여불교
값 5,000원
1년 정기구독 25,000원

격월간 참여불교 창간호(2001년 5,6월호) 일반서점에서도 구입할수 있습니다

한국의 종교권력
현주소는 어디에 …

창간기획 좌담 교단자정운동의 방향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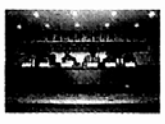
기획연재
• 국가권력과 종교
• 세계의 공동체를 찾아서

논단
• 재가종무원, 전문직인가 부목인가
• 포교를 위한 인터넷 활용 방안

특별기고
• 동국대 불교학부 원로-중진 교수님께 드리는 고언
• 불교회관 이렇게 짓자

교계초점
• 얼굴없는 말, 괴문서 현상

손혁재의 세상읽기
• 남북화해시대 통일운동의 새로운 방향





"종교 내적인 자기 정화의
기운이 일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입니다"

인류의 큰 스승이신 종교성인들이 보여준 삶의 길은
탐욕을 벗어난 자유의 삶이었으며, 부와 명예를
벗어 던진 청빈과 겸양의 삶이었으며,
만 생명의 고통을 벗게하려 일평생 길 위에서
쉼이 없었던 정진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더 늦기 전에 교단은 교단을 만드신 처음 그분들의
모습으로 돌아가 가르침에 맞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대형건축물의 어두운 방에서 자리를 펴고 일어나
스스로의 깨침과 함께 고통의 현장을 돌봄으로써,
그 자리에서 영원한 자유와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스스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 장간특집
- 시민사회 관점에서 본 한국종교의 사회적 역할
- 한국의 종교, 그 존재 당위성 여부 문제에 대하여
- 권불유착 되살아나는가

참여불교재가연대
Buddhist Solidarity for Reform
www.buddha21.org
전화 02-725-6231~2 팩스 725-6233 buddha21@budgate.net
(우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18 수성빌딩 302호

연간 구독료 2만5천원

불교 속의 문화, 문화 속의 불교
2001년 5·6월호
불교와 문화



이제 인터넷에서도 『불교와 문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www.kbpf.org

인터넷이 일방적인 정보제공이 아니라 쌍방향이 서로 교류하여 발전을 도모하는 장인만큼 『불교와문화』도 지역과 시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자유로운 사이버공간에서 독자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겠습니다.

특집 - 인터넷 불교포교의 현재와 미래
불교계 최초 인터넷 관리자들 대상 '인터넷 관리와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본 지와 대한불교진흥원 · 다보사 다보수련원은 오는 6월 8일~9일 양일간에 걸쳐 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불교계 인터넷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불교 관련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교류, 공유 방안 모색을 통해 불교 포교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불교인터넷 관리자 연수〉를 개최한다. 본 지는 연수회의 주제이기도 한 〈인터넷 불교 포교의 현재와 미래〉를 이번 호 특집으로 다루어 인터넷 포교의 방법론과 사이트 현황, 미래와 전망 등을 통해 불교계 인터넷 포교의 현주소를 진단하였다.

성낙주의 문화재 소설
제2편 - 불국사 다보탑, 석가탑
'진실은 슬픈 눈에만 보인다'
두 남녀의 사랑이야기를 담고 있는 석가탑과 다보탑 이야기.



부처님은 자녀교육을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직면한 교육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한 해답을 부처님께 들어보았다. 부처님이 아들 라훌라를 가르치는 장면은 진정 감동적이다. 라훌라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부처님은 야단부터 치지 않으셨다. 부처님은 라훌라에게 부처님의 발을 씻기도록 하셨다.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진한 사랑의 행위이다.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발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대한 양 부드럽고 정성스럽게 씻겨줄 때 발을 맡긴 사람이나 씻어주는 사람이나 진실한 행복과 사랑을 체험한다. 어쨌든 우선 사랑의 장을 마련하신 부처님은, 구체적인 사물과 행동을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문답법을 통해 라훌라의 잘못을 깨우쳐준다.

해외불교 대담 - 피터 센게와 마가렛 휘틀리
진정한 리더십과 불교적 수행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불교 저널 『샴발라 선』 2001년 1월호에 소개된 '함께 일하는 방식의 변화(Changing How We Work Together)'라는 제목으로 가진 철학박사 피터 센게와 교육학박사 마가렛 휘틀리의 대담 내용이다. 이 글을 통해 새로운 리더십이 무엇이고 우리가 조직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그들의 주장이 불교에서 말하는 선정(禪定) 수행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잘 보여준다.

격월간 불교와문화 전화 : (02) 719-2606, 팩스 : (02) 719-5052 인터넷 홈페이지 : www.kbpf.org ▶ 정가 7,000원, 1년 6호간 구독료 42,000원

달마에게는 목마름도 배고픔도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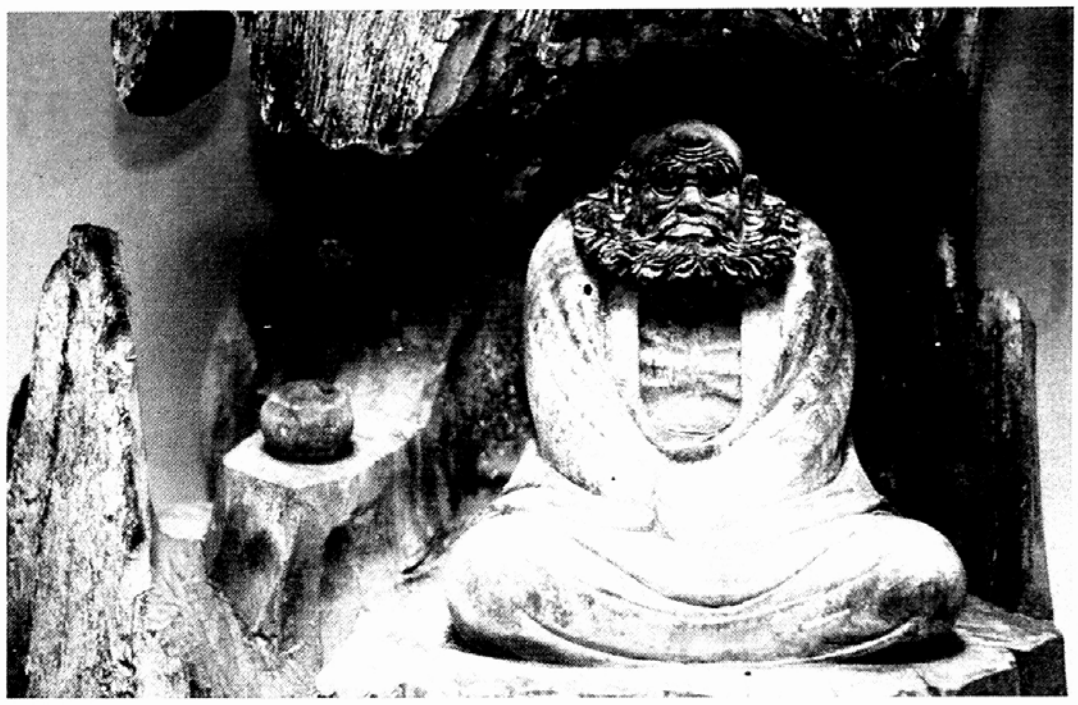
원로 언론인 이규행이 쓰는

달마 이야기



35

(34) 석벽에 인각된 달마



세월은 흐르는 물처럼 빨리 갔다. 몇 년이 훌쩍 지나고 소실산(小室山)에도 다시 봄기운이 감돌았다. 추위를 뚫고 초록빛이 산야에 피어 올랐다.

이 날도 새벽부터 달마는 공부에 여념이 없었다. 석벽을 마주 보고 앉아서 시공을 넘나들며 현묘한 경지에 들어갔다. 요즘 들어 달마는 낮에는 땅의 기운과 하나가 되고, 밤에는 하늘의 기운과 하나가 되는 경지에 접어들고 있음을 스스로 느끼기에 이르렀다.

그윽하고 조용한 화룡동굴은 달마에게 있어서 명실공히 운명의 터전이다. 명이 정해졌기에 달마는 이 곳에 머물게 되었지만 앞으로의 운은 그가 하기 나름이다. 달마는 그동안 온갖 풍상을 겪으며 강산을 떠돌아다닌 일조차 깡그리 잊지 않았다. 그는 공(空)한 마음으로 선정에 들었다. 거기에는 날짜나 계절의 개념조차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

동굴로 스며든 햇빛

그렇다고 달마가 스승 반야다라 존자의 가르침조차 잊은 것은 아니었다. 더군다나 대승불학이 영원히 창성할 땅인 소림사를 잊을 리가 없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은 시급한 사안이고 그의 책무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달마는 조급도 서둘지 않았다. 그의 마음 속에서 조급함은 이미 떠나 있었다. 그는 단조롭고 조용하게 면벽 좌선하면서 세월을 보냈다. 세월이 흐르는 것조차 감각 속에서 지워 버린 그런 경지에서 수행에 몰두했다.

오늘 따라 유난히 사방에 고요함이 깃들었다. 새벽바람이 동굴 입구에서 불어와 달마의 살갗을 스쳤다. 차가운 바람 기운이 달마의 감각을 자극했다. 흔히 참선에 접어들면 삼계(三界)를 뛰어넘고 오행(五行)을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깊은 선정이 들어 나를 잊을 때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좌선의 초입에서 한기(寒氣)가 사람의 피부를 찌르면 누구나 놀라게 마련이다. 달마도 물론 여기에서 예외일 수 없다.

새벽의 찬바람에 달마의 몸이 약간 떨리는 듯싶었다. 그러나 달마의 얼굴은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달마는 찬바람이 피부에 닿는 순간 봄의 교향악을 들었다. 동굴 밖의 산과 들에서 생명이 움트는 소리가 음악처럼 바람에 실려 속삭였다. 모든 생명체의 기쁨은 그대로 달마의 몸 속에 체각(體覺)되었다. 달마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합장했다.

어느덧 해가 높이 솟으면서 햇빛이 동굴 속으로 스며들었다. 동굴 속은 차츰 온기로 휘감겼다. 동굴 안에 있던 개미 같은 미물들은 비로소 활동을 시작했다. 조그만 미물들의 움직임에서 달마는 우주의 소리를 들었다. 우주가 주천(周天)하는 소리와 개미가 기어가는 소리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긴 면벽 좌선으로 고요 속에 빠지면 아무리 작은 소리일지라도 천둥번개 치는 소리로 들리는 법이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 천둥번개 소리조차도 소리 없음을 깨닫게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는 소리가 아니고 소리 아님은 또한 소리인 것이다.

달마는 한낮이 지났는데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붉은 해가 서산에 지고 달이 동굴 밖 산마루에 걸리기 시작했다. 달마는 그래도 돌부처인양 그대로 앉아 있었다. 벌써 달마가 곡기를 끊은 지는 오래였다. 심지어는 동굴 밖의 샘물조차 며칠째 찾지 않고 앉아 있기만 했다.

달마에게는 목마름도 배고픔도 없었다. 그의 입 속은 금진옥액(金津玉液)의 달디단 침으로 가득했다. 그 단 침은 하늘기운과 땅기운이 합쳐진 감로수다. 감로수란 흔히 '생명의 물' 또는 '법의 물'로 불리기도 한다.

이 물은 몸 안에서 주천(周天)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만 생긴다. 이 때의 주천이란 사람의 몸을 하나의 소우주로 본 데서 비롯된 말이다. 주천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마치 우주가 운행하듯 사람 몸에 기의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주천이 이루어지면 소우주, 곧 사람 몸이 대우주와 하나가 된다. 여기서 얻어지는 것은 법열(法悅)이고 커다란 깨달음이다.

달마는 감로수를 몇 모금씩 숨기운에 버무려서 식도로 넘겼다. 그는 이런 경지가 거듭되면 틀림없이 성불의 예조(豫兆)를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대로 앉아 있기만 했다.

그러나 이런 사정을 모르는 지인은 초조하고 불안했다. 지인은 달마가 공양을 사양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몇 날 며칠 식음을 전폐한 이 마당에선 어찌 할 바를 몰라 당혹스러웠다. 물론 지인은 달마 조사의 공부를 의심하지는 않았다. 때로는 달마의 몸을 잊은 정진에 감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달마의 몸이 쇠약해지기라도 하여 쓰러질까 싶어 걱정이 앞섰다. 지인은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늘 안절부절 못했다.

승려들은 절로 탄성

이 날도 저녁예불을 마친 다음 지인은 달마가 좋아하던 입맛 나는 반찬을 공양간에서 조금 내 와 몰래 석굴로 달려왔다. 오늘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달마에게 공양을 들게 할 결심이었다. 지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선 달마가 면벽 좌선을 계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

달마가 앉아있던 자리
아무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석벽엔 달마의 그림자가…

지인은 너무 급하게 달려온 나머지 숨을 헐떡였다. 동굴 밖에서 잠시 숨을 가다듬고 발걸음을 죽였다. 동굴 앞에서 조용한 목소리로 달마를 불렀다.

"조사님, 조사님."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지인은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높여 불렀다. 그러나 공허한 메아리만 울릴 따름이었다. 지인은 깜짝 놀랐다. 혹시 조사님께서 이미 쓰러진 것은 아닐까? 그는 급한 마음으로 동굴 속으로 뛰어 들어갔다. 영롱한 달빛이 동굴에 스며들어 석벽이 환하게 눈 속에 들어왔다. 그 곳엔 달마의 모습이 그림자처럼 박혀 있었다.

지인은 안심의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쓸어 내렸다. 조사님께서 입정에 드신 것이라고 단정했다. 그렇다면 감히 조사님께 방해가 돼서는 안 될 일이었다. 지인은 조용히 옆에 서서 기다리기로 했다. 한 시간도 넘게 그렇게 기다렸다. 그러나 달마는 여전히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지인은 참다 못 해 몸을 굽혀 절하면서 말했다.

"조사님, 공양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드시지요."

석벽에 비춰진 달마의 몸 그림자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순간 지인은 눈을 의심했다.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 달마가 앉아 있었던 그 자리에는 아무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지인은 석벽을 다시 한 번 쳐다보았다. 거기엔 분명 달마의 그림자가 뚜렷하게 박혀 있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설마 하니 조사님께서 석벽 속으로 융입(融入)되었다는 말인가? 지인은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크게 소리쳤다.

"조사의 온몸이 돌 속에 박혀 있다! 귀신이 곡 할 노릇이로다!"

지인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공양은 그 자리에 놓아둔 채 산 아래로 뛰어 내려갔다. 소림사로 돌아온 지인은 곰곰 생각에 생각을 이었다. 드디어 그는 하나의 결론을 이끌어냈다.

달마의 몸이 돌 속으로 들어간 것은 몇 년에 걸친 면벽 좌선의 결과가 분명하다. 이것은 수행이 성공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제 대승선법의 현묘함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계기가 된 셈이다. 그렇다면 더 이상 무슨 비밀을 지킬 필요가 있겠는가?

지인은 만나는 스님마다 달마 조사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이 소식은 매우 빠르게 소림사 안에 퍼져 나갔다. 그러나 소림사의 승려들은 좀처럼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의심과 호기심으로 다만 이야깃거리로 삼을 뿐이었다. 이들 가운데 몇 사람이 지인에게 직접 동굴에 가서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지인은 서슴없이 그들을 화룡동굴로 안내했다. 여러 승려들은 동굴 앞에 이르자 앞다투어 화룡굴 안으로 고개를 들이 밀었다. 과연 정면 구석의 석벽에 달마가 좌선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것은 하나의 조각이나 석상처럼 보였다. 승려들의 입에선 절로 탄성이 흘러 나왔다.

승려들의 놀라움은 금방 외경심으로 바뀌었다. 모두가 엎드려 경배했다. 승려들은 그들의 마음과 몸이 신비한 기운에 포용되듯 전율했다.

달마의 몸이 조각처럼 석벽 안에 들어가게 된 연유는 어떻게 된 것일까? 이 이야기는 마치 초능력에 속하는 신화인양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 그것은 조금도 초능력이 아니다. 달마 스스로가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달마는 여러 해에 걸쳐 면벽 좌선하는 동안 아무도 모르게 돌칼을 연장으로 삼아 석벽에 자기의 그림자를 조각했다고 한다. 면벽할 때와 마찬가지로 조각할 때도 마치 진공(眞功)을 연마하듯 했다. 마음을 닫고 숨을 죽이고 말을 잊고 생각을 끊은 채 오로지 벽을 향해 정신을 집중하여 돌칼을 움직여 나간 것이다. 이 때 석벽에 반영된 달마의 몸 그림자는 좌선 자세의 규범이 되었다. 세월이 흐르자 달마의 앉음새와 석벽의 그림자는 하나가 되었다. 사람과 그림자가 털끝 차이도 안 나는 경지에 이른 것이다.

지인과 여러 승려들의 말을 전해 들은 주지 혜광은 마음 속으로 크게 놀랐다. 그것은 달마가 이미 성불의 경지에 이르렀음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혜광은 마음이 급했다. 이미 마음은 대승선법의 현묘함을 믿으려는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러면서도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고민했다. 달마 조사를 쫓아낸 죄책감에서 좀처럼 벗어나기 어려웠다. 어떻게 해야 사함을 받을 수 있을지 그것도 걱정이었다.

그렇다고 그냥 죽치고 앉아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단단히 각오를 하고 동굴로 향했다. 차라리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조사를 아래로 모셔 소림사에 계시게 하리라고 결심했다. 혜광은 동굴 앞에 당도하자마자 큰절을 하고 엎드려 울먹였다.

소림사로 모시리라

"소승 눈이 있어도 조사님을 알아 뫼시지 못하고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달마는 마침 선정에 들어 있었다. 동굴 안은 온통 침묵에 잠겨 있을 뿐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그럴수록 혜광의 목소리엔 피가 맺혔고 한탄이 섞였다.

달마는 오래 전부터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지인이 석벽에 조각한 사실을 모른 채 신비화해서 퍼트릴 가능성마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달마는 시기를 보아 지인에게 돌을 새기는 일도 면벽 좌선에 못지않다는 것을 일깨워 줄 생각이었다. 그러나 미처 그것을 가르쳐 주기도 전에 지인의 우연한 발견이 모든 사태를 급진전시켜 버리고 만 꼴이 되었다.

달마는 이런 일조차 우연 아닌 우연임을 실감했다. 소림사로 돌아갈 때가 무르익은 참나 그것을 극적으로 꾸민 조화(造化)가 마음에 와 닿았다.

"불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뵙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밑 불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불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회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한재를 탕재로 하여(한박스 60포)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이며 풍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여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중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과 당뇨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숙취를 해소한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정배리 463번지 중미산 불심정사 전화번호 : (031) 771-1571
(016) 222-7701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불가의 비법이 있습니다.
청강 대 진 합장

보시금은 불심정사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상표등록
미 수 타
반도체 안전 전구
반도체 전자 인등

그옛날 미수타 여인의 마음과 같이, 정성으로 제품생산 및 시공합니다.

◎ 제품특징

○ 기존 전기적인 방법을 전자화 시켰습니다. 법당 천정에 220볼트가 아닌 저전압 5볼트로 공급됩니다. (발열이 없으므로 화재예방)
○ 0.4w 절전형 (기존 10w의 25분의1 전력 소모)
○ 설치후 전구를 교환하는 번거로움이 없음.
○ 본 제품의 가벼움과 완벽한 결선으로 법당 내부에 늘어지는 현상이 없음.
○ 인등은 수량에 관계없이 밝기가 일정 합니다. (기존 인등의 10분의1 전력 소모)
○ 인등은 내부전압 변환 트랜스 에 전혀 발열이 없음.
◎ 주문시 법당 일년등용 전구설치는 법당 규모와 등의 규격에 따라 전구의 간격이 달라지므로 전화 주시면 일차 방문하여 간격과 수량을 맞추어 드립니다. (설치예정일 2~3주전에 전화주십시오.)
전화 : (031) 791-8871

◈ 지역대리점에 뜻이 있는 분은 전화 주십시오. 전북1, 전남1, 서울, 경기2
◈ 본 미수타 반도체 안전전구와 미수타 반도체 전자인등은 상표, 실용, 의장, 유사방지의 각각 법에 의하여 지적 재산권에 보호를 받는 제품입니다. (상표외에 총 11건)

부산, 경남 동부대리점
밀양 055-355-6707
마산, 경남, 서부대리점
마산 055-224-5286
대구, 경북 남부대리점
경주 054-772-2667
충남대리점
017-209-9042
강원, 충북대리점
원주 (033) 764-9396

(주)TG 반도체

종립학교를 가다

(1) 광동종합고등학교 · 중학교

근대 이후 많은 선각자들이 학교교육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불법(佛法)에 기초한 인격완성의 정도를 제시하고자 학교를 설립했다.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가 아니고는 건전한 사회인의 양성과 국가적 인재 양성의 단초를 마련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지켜온 불교의 가르침을 널리 펼 길이 없다는 불교계 선각자들의 판단은 오늘날 혼들리는 교육 현장을 지키는 꿋꿋한 당간지주다. 조계종과 진각종을 비롯한 각 종단 혹은 지역사찰이 연합해 설립한 불교관련 학교법인은 16개. 이들 학원이 운영하는 중고등학교는 모두 27개다. 현대불교신문은 종립 중고등학교를 탐방, 교육이념과 성과 및 향후 비전을 점검해 보는 기획연재를 마련한다.

'자비 가르침' 참인간 육성 55년

1945년 9월 10일. 경기도 남양주 봉선사에서는 승려대회가 열렸다. 삼천리 국토를 가득 채운 해방의 감격이 성성하게 펄럭이는 시절 인연을 교육사업의 선근(善根)으로 발아시키고자 하는 스님들의 의지가 교육불사로 결집되는 승려대회였다. 이 대회를 주창한 선각자는 운허(雲虛 1892~1980)스님이었다. 일제의 강점 이후 교육과 독립운동에 몸을 바쳐 온 운허스님이 봉선사, 봉영사, 수국사, 흥룡사, 현등사등 5개 사찰의 사재(寺財)를 모아 교육도량을 설립하고자 발원한 것이 이날의 승려대회였다. 이 승려대회를 기점으로 이듬해에 광동초급중학교가 설립됐고 교육불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현재의 이사진(이사장 일면스님)이 55년의 전통을 잇고 있다.



◇운허 스님의 교육불사 원력으로 설립된 광동종합고등학교와 중학교는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참된 교육현장 구현에 매진하고 있다.

운허스님 원력 설립 인격완성의 길 매진

광동종합고등학교와 중학교의 현재 위치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7천5백여 평의 터에 4개 동 교사(校舍)를 중학교와 종합고등학교가 사용하고 있다. △자비로운 불교교리를 바탕으로 한 자아발견 △민족정신이 투철한 참된 인간상 창조 △신의를 생활신조로 하는 올바른 인격완성이라는 건학 이념에서 볼 수 있듯 광동종합고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육지향점은 개인적 인격의 완성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으로 통하고 있다.

현재 각 학년이 문과 5개 반과 상업과 3개 반으로 구성된 고등학교에는 1118명의 청보리들이 학업에 열중하고 있다. 특히 4천여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의 모든 시스템은 전산화되어 있다. 절반 이상을 신간으로 채우고 있으며 1천여 개의 도서파일은 언제나 쉽게 디스켓에 복사할 수 있다. 도서관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도 이 학교의 독서 풍토를 엿보게 한다. 뿐만 아니라 첨단시설의 멀티미디어실과 전산실, 문서작성실, 상업실습실 등의 시설은 상업과 학생들이 실무를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수업전 5분간 참선 주민위한 강좌 '눈길'

고등학교가 실시하고 있는 선정(禪定) 시간은 종립학교로서의 특징을 부각시키는 자랑거리. 매일 아침 수업 시작 전에 5분씩 실시하는 참선 시간은 학생들이 알찬 하루를 설계하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를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한 상벌점 제도도 상당한 교육적 효과를 보이며 정착됐다. 이 같은 학교의 노력은 학부모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 전일제로 실시되는 특별활동에는 전교생이 참여하고 있다. 스크린 영어회화반, 방송반, 지리답사반, 꽃꽂이반, 당구반 등 취미활동을 통한 인격연마와 생활의 지혜를 추구하는 48개 반으로 나눠진 특별활동은 매월 하루씩 현장체험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고등학교를 평가하는 현실적 잣대는 대학 진학률이다. 광동종합고등학교는 문과반을 한 학급 더 늘리고 현재의 상업과를 정보학과로 변경하는 계획을 관계 당국에 제출해 둔 상태다. 대학 진학률을 향상시키고 정보사회의 역군을 양성하기 위한 판단이다.

종립학교로서의 지역민을 위한 봉사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교사들이 지도하는 불교교리 강좌와 수지침 강좌, 한자교실 등이 인기를 끌었으며 올해는 6월 7일부터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학교의 노력은 종립학교에 대한 지역민들의 거부감과 오해들을 씻어내는 효과를 가져와 종교적 마찰을 일소하는 효과도 얻었다.

긴 역사 동안 광동의 언덕을 거쳐 간 선배들의 후배 사랑도 광동의 자랑거리다. 총동문회(회장 이문용 광동학원이사)는 올해 총 2억원의 동문장학금을 조성했다. 날이 갈수록 인구가 늘어나는 수도권의 북동부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역적 여건을 충분히 활용해 55년 전통을 명문사학으로 결실 맺도록 한다는 방침 아래 재단과 학교, 동문회, 학생, 학부모가 한 마음이 되어 광동종합고등학교와 중학교를 가꾸고 있는 것이다.

김주일 · 김두식 기자

"다도 · 참선으로 심성 순화"

광동종합고 고홍택 교장



"학교 운영의 근본은 건학이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근간으로 하는 개인적 인격의 완성과 사회인으로서의 인격을 연마해 나가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고홍택 광동종합고등학교 교장은 이 학교 역사의 산증인이자 광동인의 대부격이다. 고교장은 광동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중학교에서 교사생활을 시작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43년을 한결같이 광동인으로 살아 왔다. 1978년 지금의 교사로 옮겨오기 전 터다지기 공사를 직접 지휘하기도 했던 고 교장은 "40년이 넘는 세월동안 발로 뛰어온 이 교육불사의 현장이 더욱 빛나도록 하기 위해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도 훌륭한 역사를 만들어 가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 교장은 종립학교로서의 특색을 살리는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 불교적 가르침에 입각한 전인교육의 계기를 만들고자 다도(茶道)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선정 시간이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듯이 학생들이 보다 정적인 분위기에서 자신의 꿈을 다듬을 있도록 하기 위해 다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는 것. 이 밖에도 학생들의 심성교육과 진학 및 취업성과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더욱 세밀하게 구상하고 있다. 지역주민과의 유대강화를 위한 학교의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임연태 뉴미디어부장

10대 고민 나누는 자상한 누나 · 오빠

교법사실에서

김석희 · 손승현 법사

광동종합고등학교에 새로운 법당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간 중학교와 함께 법당을 사용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이제 산뜻하게 단장된 새 법당과 교법사실에서 청보리들의 불심이 더욱 활짝 피어나게 되었다. .

올해 16년째 근무하고 있는 김석희 교법사는 학생들에게 다정한 언니이자 누나다. "사소한 일에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고민이 많은 학창시절을 보다 지혜롭고 밝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이자 보람입니다."

고민거리를 얘기하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열린 마음임을 강조하는 김석희 교법사가 학생들에게 다정다감한 누나 언니라면 손승현 교법사는 30대 초반의 나이답게 학생들과 함께 어울리는 오빠이자 형이다.



◇김석희 교법사



◇손승현 교법사

선생님의 자리보다는 자상한 형과 누나의 자리에 있길 원하는 두 교법사는 요즘 새로운 법당과 새 교법사실에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알차고 유익한 '꺼리'들을 주기 위한 궁리를 하느라 정신이 없다.

▸▸홈페이지 소개 www.kwangdong.hs.kr www.kwangdong.ms.kr

광동종합고등학교의 홈페이지(www.kwangdong.hs.kr)의 초기화면에서는 학교소개와 선생님 소개, 학과 소개, 교내행사 안내 등을 볼 수 있다. 학교속으로 들어가기를 클릭 한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각종 자료들을 이용할 수 있는 메뉴들이 펼쳐져 있다. 현재는 정비 중이어서 6월 말부터는 새로운 홈페이지를 만날 수 있다. 새 홈페이지에는 게시판과 학년별, 과목별 자료실과 불교를 쉽게 배울 수 있는 코너 등이 신설된다.

광동중학교의 홈페이지(www.kwangdong.ms.kr)의 초기화면에는 공지사항과 이 달의 행사, 지난 행사 보기 등이 자리잡고 있으며 학교소개, 선생님 마당, 우리들 세상, 게시판, 자료실, 학부모님코너, 동문마당 등 다양한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교법사단 창설 56돌 … 포교책자 봉정

신임교법사 4명 품수식

전국교법사단은 9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전국교법사단 창설 56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채규수, 박동창, 안정수, 신병훤 등 4명의 신임 교법사에 대한 품수식이 열렸으며, 청소년 포교 책자 〈아함부〉 봉정식도 함께 진행됐다. 특히 이번에 발간된 〈아함부〉는 전국 교법사단이 경전말씀 모음 5개년 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해 〈율부〉에 이어 두 번째 출간된 것이다. 우인보 법사(동대부중)는 "청소년들에게 불교적인 가치관 형성과 함께 삶의 지표를 제공키 위해 경전말씀 모음집을 발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경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발간 취지를 밝혔다.

청소년 단신

디지털 비전 카페 개원 월간지 · 구인정보 제공

디지털 청소년 열린 상담실은 23일 오후 3시 '디지털 비전 카페' 개원식을 봉행한다. 이번에 문을 연 비전 카페는 방문 청소년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생활 및 구인 · 구직 정보를 제공해 준다. 또 각종 일간지와 경제, 교육,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전문 월간지도 다수 준비해 놓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해 놓았다. 이외에도 비전 카페를 찾아온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원하면 복지단체와의 결연도 주선해 주고 있다.

홍자운 상담실장은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편안하게 쉴수 있는 쉼터역할 뿐만 아니라 각종 정보도 제공해 주는 복합공간을 만들고 싶었다."고 개원 의도를 밝혔다.

대구-경주 국토순례 행진 비로자나 청소년협회

비로자나 청소년협회는 7월 23일부터 3박4일간 '제2회 국토순례 대행진'을 연다. '환동해권을 향하여'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순례 행사는 대구를 출발해 영천을 거쳐 위덕대에서 회향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총 65㎞를 걷게 될 이번 행사에는 진각종 종립학교 학생을 비롯해 전국 심인당 학생회원과 청년회원 등 4백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선옥의

선무 건강법 ④

• 에너지 순환 – 직관 •



어떻게 에너지(氣)를 단전에서 몸의 다른 부분으로 순환시킬 것인가? 숨을 내쉴 때 마치 선을 긋듯이 단전에서부터 에너지를 손끝에 연결시켜 팔을 벌린다. 마음을 편안히 갖고 에너지가 흐르는 과정을 순간 순간 주시해야 한다. 벌린 팔은 어깨의 반대편에서 천천히 단전으로 가져온다.

1. 지난번과 같은 방법으로 '이' 소리를 내는 동시에 단전 부위를 수축하며 숨을 내쉰다. 이때 한쪽 팔을 어깨 반대쪽으로 벌린다. 마치 선을 긋듯이 단전에서부터 에너지를 손끝에 연결시켜 팔을 벌리는 것이다.

2. 단전에서 어깨 반대쪽까지 팔을 벌리면 자연히 어깨와 팔을 벌리게 되고, 단전부위를 이완시켜 앞으로 내밀면서 척추를 곧추 세우게 된다. 동시에 에너지가 척추 꼬리뼈에서 정수로 올라가 다시 천천히 단전으로 내려온다.

3. 이와같은 방법으로 '뭐' 소리를 내면서 벌린 다른 쪽 팔을 다시 단전으로 가져온다. 누구나 마음의 눈인 제3의 눈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눈으로 팔의 움직임을 볼 필요가 없다. 당신은 무의식 수준에서의 움직임을 개발하고 있다. 이 제3의 눈으로, 보지 않고도 볼 수 있게끔 우리 자신을 훈련시킬 수 있다.

제3의 눈 마음 계발
단전 에너지 흐름 주시

4. 단전에 두 손을 두고 몸과 마음 모두 긴장을 풀어라. 당신이 숨을 내쉴 때 '꼬' 소리를 내며 양 팔동작을 반복한다.

불교를 가장 쉽게 만나는 길

한눈에 불교가 보인다.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 세계로 열린 불교정보의 산실, 현대인을 위한 디지털 법당.
도서관에서 책을 펼치 듯 인터넷에서 가벼운 클릭으로 정보여행을 떠나자!
아름답고 넉넉한 부처님 세상이 있는 곳으로...

맛 최고, 멋 최고 기분 최고 쇼핑을 즐기는 곳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 집 근처의 슈퍼마켓? 유명백화점? 거기에는 없습니다.
불교용품을 한곳에서 만날 수있는 불교쇼핑 전시장!
주문도 배달도 안방에서.. 문화쇼핑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불교뉴스 오늘 읽고 본다.
일간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 불교를 만나는 일주문 붓다뉴스를 클릭하는 순간!
따끈 따끈한 불교뉴스에서 신행정보, 생활상담까지
불교의 모든 것을 그날 그날 접하게 됩니다.

클릭 한번으로 책주문이 가능합니다.
여시아문 닷컴 www.yosiamun.com

❖ 2만여 불교서적이 검색 클릭 한번으로 뚝딱!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서점 여시아문이 주문에서배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책임집니다.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02) 737-0695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법공양 페이지

모두 둘로 보지 않으면 지혜 늘어

오늘 이렇게 같이 앉아서 대담을 하고 토론을 합니다. 질문을 먼저 듣겠습니다.

▲질문자1: 스님, 저희들에게 한시도 쉬지 않고 감로법을 설하여 주심을 모든 신도들 마음을 모아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항상 스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한마음 법을, 생활을 통해서 찾고 깨닫도록 설하여 주셨지만 미흡한 저희들은 아직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정진하여 생활 속에서 주인공을 찾도록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현재 IMF가 지났지만 국가나 사회, 가정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어려울 때에는 정법인 한마음 공부를 공부하기보다는 무속신앙이나 사이비 종교, 또는 점술인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와 같은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보통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빨리 해결해서 답을 얻도록 하는 것과 또 정법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서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한마음을 공부하는 저희들도 잘 되는 쪽, 쉬운 쪽을 갈구하지 어렵고 힘든 쪽은 거의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을 때 한마음 법을 공부하는 저희들이 어떻게

> '관'하면 해결되니 굴레없는 수레

포교를 해야되고 저희들이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하는지 큰 법 청하옵니다.

▲스님: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은 오히려 더디게 가는 거고 그거는 빠르게 가는 길이 못됩니다. 그러니까 내 주인공을 내 보디가드처럼 항상 지니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에나 즉 말하자면 아프거나 그래서 관하면은 찰나에 의사로 바뀌어지고 또 어떠한 일이 생겼다하면 관세음이 되고 좋은 대로 간다하면은 지장이 돼주고 칠성부처가 돼주고 지신이 돼주고 용신이 돼주고 허공신이 돼주고 별의 별거를 다 돼 줍니다. 그렇게 찰나찰나 바뀌는데 바깥에 가서 물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바쁜데요. 지금 바쁜데, 얼른 자기한테 하는 게 빠르지 나가서 하는 게 빠릅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한테 하면 그냥 곧바로 통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바깥에 나가서 하는 게 듣느냐 안 듣느냐도 문제지만 올바로 나가는 게 못되고 또 빠른 길이 못됩니다. 그러니까는 나와 나가, 항상 빠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나와 나가 더 빠르지 누가 더 빠릅니까? 그래 여북하면, 정히 답답하면은 야! 아무개야 하고 자기 이름을 자기가 세 번 부르고 '너만이 할 수 있잖아.' 하고 아귀를 지어라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말소리를 내지 않고도 얼마든지, 길에 가다가도 하고 앉았다가도 하고 섰다가다 하고 뭐 누구하고 같이 있다가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는 항상 무슨 급한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통신을 하게 되면은 그냥 제깍, 재빨리 통신이 된단 얘깁니다. 그렇게 빠른 거를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게 부처님에 직속, 즉 말하자면 통신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아니면 제 3자가 자기를 대신 살아줄 리 없구요. 그러니깐 꼭 여러분 개개인이 자기 아닌 자기를 꼭 믿어야 합니다. 믿고 그렇게 통신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1: 우리 선인들은 정말 자연을 자기 몸처럼 소중히 아끼고 지키며 사랑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자연을 파괴하고 훼손하기를 거리낌없이 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오염되는 결과는 더 엄청난 화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직?간접으로 되돌아 올 뿐만 아니라 이제 고갈되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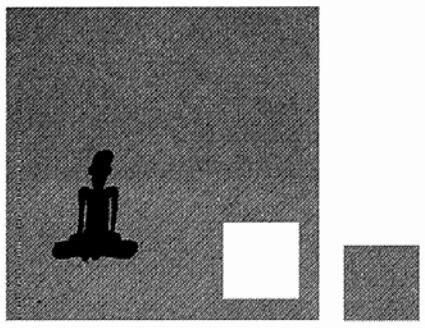
안으로 통신해야 빨라

지의 대부분은 석유나 석탄입니다. 과학자들이 보통 얘기하기를 석유는 한 60년~70년, 그리고 석탄은 250년 정도면 거의 고갈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에너지가 고갈되었을 적에 에너지를 우리가 끌어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들이 그와 같은 일을 대비해서 어떤 마음자세와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이 좋은지 청하옵니다.

▲스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일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바깥으로 물어보고 하는 것이 빠른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다니면서 잘못된 것은 거기다가 관 하시라는 얘깁니다. 거기다 관 하시면 슬금슬금 돌아서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던지 그렇게 관하면….

그게 굴레 없는 수레라고 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데에 연기처럼 구름이 돌아가듯 이렇게 돌아가서 통신이 되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지금 국내에서 살기 너무 어렵고 그런데 이 도리를 다 알았으면은 뭐 천지가 뒤집힌다고 그래도 걱정 없지만은 그렇질 않으니까는 간혹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도 그렇고 지금 남북통일이 문제가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떡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한 번 생각해 봐서 그대로 하십시오. 그대로 해야 한 3년 지나면은 스르르 돌아서 되지 억지로 뛰다가는 안됩니다. 그러니깐 언제나 이렇게 스무드하게 돌아서 돼야 되겠죠. 뭐든지.

▲질문자1: 예. 다음은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잘 가르쳤는지 스님께 점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태양이라고 하는 별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먹고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에너지는 수소라고 하는 것들이, 과학자들은 핵융합원에서 끊임없이 물질이 바뀌어지면서 에너지를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지금 먹고사는 것은 우주의 에너지다, 그 중에서 그런 별성들이 상호작용을 하고 에너지를 끊임없이 방출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의 질문과 마찬가지만은 앞으로 에너지 대체 방안으로서는 우리 주변의 늘 무진장한 물 같은 것은 수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태양 같은 데서 높은 열과 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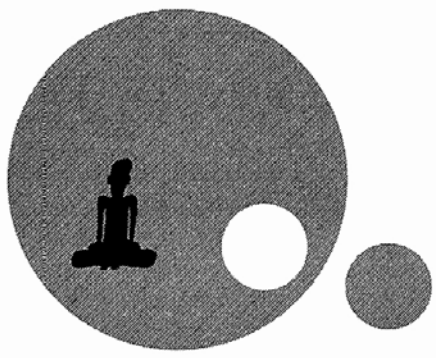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남이 아닌 자기에 관해야 즉시 통신

시시각각 바뀌지니 세상 살 수 있어

력이 있어서 핵융합반응을 일으키지만 지구에서는 현재 실험적으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사용하기에는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님께서도 전에 심성과학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옛날에 보면 만화에 꼬마 자동차 붕붕이 있는데 그 자동차는 물을 먹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자동차라고 하는 그런 만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앞으로 정말 그와 같은 낮은 온도에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 물을 1대만 가지면은 지구를 공해 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차도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잘못된 것인지 잘 된 것인지 가르침 청하옵니다.

▲스님: 그것이 생각하면은 무의미하다고 하겠지만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한 생각을 돌리면은 바로 잡았다 거꾸로 잡으면, 왜 불성하면은 성불이 되고 성불하면은 불성이 되듯이 그렇게 바뀌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 하나 뎅어리만 가지면 이 우주를 돌고도 남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연방 에너지를 생산해 내면서 가는 거죠. 우리가 마음대로 자유스럽게 쓸 수 있다 이런 소립니다.

▲질문자1: 감사합니다. 저희 광주지원에서는 지금 대웅전 불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큰마음을 내고 있습니다마는 스님께서 더 큰마음 내주셔서 불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모든 신도님들 마음을 모아서 간절하게 청하옵니다.

▲스님: 우리가 지금 에너지가 모자라니까 더 연구해서 에너지가 나오게 해서

찰나찰나 바뀌는 세상

모두 세계적으로 어렵지 않게 쓸 수 있게끔 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한다면 넉넉하진 않아도 옹졸하게 못 짓거나 하는 이치는 없을 겁니다. 하여튼 모두 하나에서 나고 드는 겁니다. 여기가 우주라고 봐도 됩니다. 우주의 근본처, 근본처란 말입니다. 우주의 근본처는 둘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이니까요.

▲질문자2: 항상 한자리 함께 해 주시는 스승님, 그리고 스님들, 신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작년부터 제겐 공부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화내는 마음인데요. 자꾸 화를 내게될 때마다 주위 사람들까지 불편하게 돼서 마음을 많이 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내 마음 갖고도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도대체 이 마음이란 게 뭐길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산다는 게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음이란 게 화낸다 좋다 나쁘다 그렇게 어떤 이름이나 성격으로 정해질 수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 의문의 답을 구하기 위해 모든 길 지켜보기 시작하면서 차츰 한 걸음 물러서

마음대로 쓰는 에너지

서 바라보게 되고 마음이 한 곳으로 집중됨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라곤 하지만 그 안엔 정말 많은 의식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끊임없이 넘나드는데 그것이 다 자신인 줄 알고 이리 저리 좇아다니느라 허수아비 놀음에 날 새는 줄 몰랐으며, 진정 어느 것도 내가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묻고 답하는 일이 계속되던 어느 날은 마치 수 만개의 물방울을 합치면 한 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 의식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로 되고, 그 하나는 어떻게 표현할 순 없지만, 에너지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있지만 한 번 써봐야 알지 않겠냐고 했더니 한 방울의 물이 수 만개가 되듯 그렇게 벌어져 나왔고, 두 개 세 개도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또 뭐냐고 했더니, 설탕물을 만들고 싶으면 설탕을 넣고 소금물을 만들고 싶으면 소금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래 고정된 것이 없어 근본에선 힘이 배출돼 돌아가니 필요한 대로 잘 쓰면 된다는 겁니다.

그 뒤부터는 화가 불쑥 올라오다가도 들여다보면 허허 웃게 되고 따질 필요 없이 닥치는 대로 해결하기 위해 자꾸 굴리다 보니 저를 괴롭힌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이제는 꿈처럼 느껴집니다. 화내는 걸 해결하는 것이 시작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체험하고 또 나름대로 실험하다 보니 정말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것들을 일일이 열거할 순 없지만 무엇을 뜻하는지 스님의 가르침 바랍니다.

▲스님: 우리는 지금 바람이 없어도 안되고 구름이 없어도 안되죠. 그러니깐 구름이 지나가듯 바람이 지나가듯 공기가 있어야 사람이 살 듯, 이렇게 색색가지가 찰나찰나 돌아가야지만이 우리가 살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도 형성되고요. 그러니까는 낮에는 에너지를 쓰는 데고 밤에는 에너지를 형성시킨단 얘기지. 그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에너지가 낮에는 쓰여진단 얘기죠.

그렇듯이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바뀌지니까. 바꿔지지 않으면 못 살지. 하나서부터 열 가지, 때로는 이게 닥치고 때로는 저게 닥치고, 때로는 이걸 듣고, 때로는 저걸 보고, 이걸 만나고 저걸 만나고 이 소릴 듣고 저 소릴 듣고. 이렇게 바뀌듯 전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기 탑을 조성하는데, 구정토의 탑을 짓는데, 색을 모두 갖추라니까 색을 갖출 수가 없지. 그래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색을 갖추려고 해. 지금 흰색을 하나 못했어. 그러는데 이것을 볼 때에 보통 그냥 탑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는 그 애고를 어떻게 해야만이 될 수 있나를…. 우리가 어디다가 말을 하면은 그 에너지가 통하나. 또 어디다가 말하면 통신이 되나. 이런 것도 다, 미래에 말할 거, 현재의 말할 거, 과거에 말한 거는 잘못된 거는 치우고 잘 된 거는 앞으로 가지고 와서 다시금 잘 된 것끼리 뭉쳐서 말을 하거나 연결이 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스님들은 해요.

그러니깐 보이지 않는데는 즉 말하자면 살을 깎아서 올리고 또 피는 색을 칠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는 스님들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 그냥 탑만 세워 놓으면은 탑인 줄 알지 말고 탑을 세워 놓으면 스님들이 살을 깎아서 올리고 피를 내서 색을 칠하고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바퀴 없는 마차를 타고 즉 말하자면 우주의 지금 돌아가듯 돌아다니면서 일을 보고 이렇게 하는 통신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질문자2: 우리는 참 많은 관계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에서부터 우주 안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가장 힘들게 느껴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언젠가 어느 법우가 직장 상사와의 불화로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직장 상사가 잘 하게 하라고, 힘들게 하지 말라고 마음을 내는데도

> 어떻게 사느냐 따라 권리와 인생 주어져

잘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도중 무심코 한 생각에 그건 자기도 모르게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 사람만 좋아지면 된다라는 마음이 아니겠냐며 상대가 좀 부족하고 잘못하고 있더라도 때론 그 부족함을 채워주고 넘치는 데는 좀 덜어 주기도 하면서 지혜롭게 잘 활용해서 써 보기도 하라고, 그래야 다 같이 잘 살 수 있지 않겠냐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말을 해 놓고도 사실은 저도 평소에 그 법우처럼 마음을 내는 게 사실인지라 좀 황당했지만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멋지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딪치는 문제뿐만 아니라 저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모두가 원만하고 이롭게 살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스님: 그렇게만 해나간다면, 그렇게 자꾸 해나간다면 지혜가 생기고 나쁜 거는 채워질 수 있는 거죠. 둘이 아닌 내가 되라고, 상대방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자기가 부족하든 부족하지 않든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 하다보면 지혜가 자꾸 늘어가고 이쪽도 저쪽도 다 언짢은 일이 없이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고 지혜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만 산다면 참 걱정 없이 살겠는데 말입니다.

▲질문자2: 감사합니다.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 20면으로 계속

가끔은 언덕을 넘고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에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나무와 뿌리' 처럼 주인공 함께 있어

☞ 19면에서 계속

▲질문자3: 마음공부를 하면서 스님을 가까이 뵈올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항상 있었습니다. 제가 마음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은 7년 정도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다른 절에 20년 정도를 다녔습니다. 오랜 동안을 다녔지만 다니면 다닐수록 '마음공부가 이런 것은 아닌데' 하고 방황하던 차에 선원에 다니는 직장 동료로부터 건네 받은 스님의 법문 테이프를 듣고 또 들으면서 바로 내가 찾아 헤매던 그 길이 여기 있구나! 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마음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원에 다니기 전에는 항상 몸이 아파서 입원을 자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원에 다니면서부터는 놓고 맡기는 공부를 하다보니 되는 것도 법이고 또 안 되는 것도 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마음에 편안함이 생기기 시작하여 건강도 좋아지고 항상 회향하고 감사함을 알 수 있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

나 아닌게 하나도 없어

니다. 어떠한 어려운 일이 생겨도 주인공 그 자리만 확실히 믿고 맡긴다면 그 자리에서 해결 할 수 있다는 사실과 주인공의 든든한 빽 때문에 어떠한 일도 지금은 마음이 든든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한 생 공부하여 세세생생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공부를 가르쳐 주신 보답으로 저희들은 이 머리카락으로 신을 삼아 드린다고 해도 갚을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보답하겠습니다.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경험한 이야기를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여름의 일입니다. 갑자기 어지럼증이 나면서 천장과 바닥이 맞돌기 시작하고 속이 토할 것같이 이상하면서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주인공을 놓치면 안된다는 한 생각에 간절히 주인공을 부르면서 관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처음에 살겠다는 생각을 할 때는 마음이 약간은 무섭고 두려웠지만 주인공 그 자리에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라고 맡겨 버리니까 마음이 훨씬 편안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번 죽지 두 번 죽겠냐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급박한 상황이 되고 보니 주인공 그 자리의 믿음은 더욱 굳고 그리고 확실하게 생겼습니다. 혼자서 약 2시간 정도 몸부림치면서 주인공을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큰소리로 혼자 울부짖으면서 관을 했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는 저도 모르는 눈물이 한없이 흘러 내렸고 온 몸은 땀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를 지나면서 관을 하다 보니 서서히 여러 가지 고통은 가라앉기 시작했고 몸은 편해지면서 안정을 취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올 2월에 외손녀가 돌이 막 지났는데 어느 날 늦은 밤에 딸한테서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경기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병원으로 가서 뇌파검사, MRI검사를 했지만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했답니다. 며칠이 지나니까 괜찮아져서 아이는 퇴원을 하였는데 일주일이 지난 후부터 별 이상이 없다는 아이는 전혀 차도가 보이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지면서 응급실 입원 퇴원을 한 달간 여러 차례 반복을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모녀는 절대 주인공 자리를 놓치지 말자고 하면서 그때마다 정말 열심히 관을 하면서 선원을 날마다 찾아와서 주인공 그 자리를 믿고 맡겼습니다. 정말 급박한 상황에도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주인공밖에 없었습니다.

아프기 시작한지 약 1달 정도 되었을 때, 늦은 밤에 딸한테서 또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의 몸 상태는 거의 마비상태이고 아무래도 아이가 오늘 저녁을 넘기기 힘들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저는 딸에게 그래, 우리가 지민이에 대한 착을 놓고 편안할 수 있도록 주인공 그 자리에 맡기자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인공이 어떤 모습을 보여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절대 물러서지 말자고, 설사 우리 지민이가 몸을 벗는다고 해도 절대 속지 말자고 다시 한 번 주인공 그 자리를 확신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에 한없이 흐르는 눈물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길로 저는 선원으로 가서 그 자리에 관하고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부터 서서히 아이가 회복을 시작하여 4월부터는 많은 차도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항상 착을 놓으라는 스님의 말씀을 귀가 닳도록 들었건만 자식에 대한 착은 놓질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저희들은 부끄럽기만 했습니다.

이번 아이의 아픔은 가족들을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딸에게는 주인공의 나툼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던 저에게도 여러 계단을 넘어 설 수 있는 공부였구요. 딸은 이제 주인공을 정말 확실히



그림 · 최주현

에너지 나오는 근본처는 오직 하나

꿈에 귀신이 덤벼들어도 나로 보라

믿을 수 있다고 하면서 지금은 아이 데리고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는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아이에 비하서 발육이 상당히 늦고 가끔 경기도 합니다. 저 역시 이번 두 달 동안의 공부가 이제까지 했던 몇 십 년의 공부보다도 훨씬 많이 체험할 수 있었고 앞으로 정말 열심히 정진하여 은혜에 보답하겠

구정물 맑은물로 바꾸라

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법을 가르쳐 주신 스님께서 항상 법체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지민이 몸 힘들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법 청하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그래서 누구한테 묻기 이전에, 다 알고 나서는 다 필요 없죠. 궁극에 들어가서는 자기 몸도 다 필요 없고 오직 한 군데밖에는 없죠.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노력하세요. 그렇게 된다면 어느 누구도 죽을 사람 없습니다. 하여튼 살리고자 한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질문자4: 가엾는 은공을 입어 오늘을 다시 살고 있는 한 목숨이 주인공에 깊이 관해도 때때로 다가오는 삶에 대한 회의에 빠져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질문을 드리오니 하문을 바라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뜻으로 푼 반야심경에 끊임없는 생명들의 줄어듦도 늘어남도 본래 없다고 하였는데, 눈에 보이는 세계 인구의 격감, 온갖 동물 희귀종 멸종 등은 무의 50% 세계로 환원하는 현상인가요?

▲스님: 그거는 사람도 그렇지만 짐승도 그렇고, 짐승이 처음부터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우리도 벌레로부터 이렇게 생겨나서 인간까지 온 거죠. 그런 거와 같이 짐승이 됐으면 사람으로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됐어도 짐승으로 될 수도 있고 자꾸 변화가 오죠. 그러니까 있는 고대로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바뀌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바뀌지죠.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그냥, 토끼가 토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나고 개로도 태어나고 개가 사람으로도 태어나고 돼지가 사람으로도 태어나고 소가 사람으로 태어나고 여러 가지 가지로 태어난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태어나고 권리도 주어지고 삶도 주어지고 생김도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깐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사셔야 될 겁니다.

하여튼 마음 하나인데,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이 너무 여러 가지로 많기 때문에 마음이 아니라고 그러죠. 마음 아닌 마음을 진짜로 써야된다. 마음 아닌 마음을 항상 둘 아니게 써야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가서 이걸로 태어나고 저기 가서 저 걸로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러는데 어디 가서 태어나진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내 부모 아닌 게 없고, 내 자식 아닌 게 없고, 짐승 하나도 내 모습 아닌 게 없는 거죠.

나 아닌 게 하나도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는 모두 둘로 보지말고 둘로 보지 않는 반면에 그냥 사랑 없는 사랑이 되죠, 자연적으로. 주인공 찾으려면 주인공 어디서 찾나 이러지 말고 자기 나무로 치면 뿌리라고 그러죠, 뿌리와 나무가 같이 붙어 있으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렇게 편리한데도 주인공이 어디 있나 찾거든요. 그러니깐 항상 나무에 뿌리 붙어 있듯 그렇게 있으니깐 걱정하실 게 없단 얘깁니다.

▲질문자4: 두 번째는 가끔씩 꿈속에서 귀신 아닌 똑같은 사람이 저를 붙잡으러 왔다거나 어떤 때는 악수를 하자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제 생각에 저승사자라고 생각되어 소리치다 깨어나서 관하는데 공부를 시키려는 자 불의 나툼인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스님: 그런데 진짜로 믿는다면 그런 생각하실 필요도 없죠. 뭐든지 둘로 보지 말라고 했으니깐요. 뭐든지요. 그랬는데 악수를 한다거나 와서 가자고 그런다거나 하더라도 너와 나가 둘이 아닌데 뭘 그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데 그런 생각을 못하니깐 지금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한다면 둘 아니게 이미 벌써 규정하고 있는데 뭘 데리러 오고 뭘 악수하자고 그런다고, 하하하.

▲질문자4: 높고 깊은 은혜로 어두운 터널에서 한 걸음씩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네.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던지, 꿈에 구정물이 나오더라도 맑은 물로 바꿔 써라 이런 말을 항상 내가 하죠. 그러고 또 무슨 귀신이 덤빈다 하더라도 귀신이 아니라 자기 공부 길을 주는 거니깐 둘로 보지 말라고 하는 거구요.

▲질문자5: 지난 번 법회 때 의사선생님이 질문에 "애기 원소에 가서 얘기해." 라고 하셨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제 안에 넣고 관하는 것은 잘 되거든요. 근데 그 말씀 듣고 제가 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은데 그래도 확실히 모르겠기에 질문 드립니다.

처음에는 내 몸이 이렇게 있고 상대의 몸이 있는데 상대가 제 앞에 있을 때는 되거든요.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제가 들어가는 게, 근데 상대가 없을 때 그 상대한테 들어 갈려고 그러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스님께선 체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마음은 허공 같은 거라고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스님 뵙고 싶을 때 '스님!' 하면서 그렇게 한 자리 하면서 관하는 게 상대에게 직접 들어가는 것인가 아직까지 확실히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마음은 오고 감이 자유

▲스님: 물 속으로 다니는 잠수함 있지? 잠수함이 폭탄을 쏘면 그 잠수함에서 폭탄 쏜 게 딴 잠수함으로다가 좇아가는 거죠, 그렇게 좇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내면은 천리밖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하나가 되죠, 천리 만리 밖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가 되는 게 뭐냐하면은 저승에 있는 사람도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내 집안에 너무 가환이 많으면은 내 집안에 조상들을 모셔다가 관리인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이 지혜가 넉넉하셔야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는 가까워야만 들어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멀어도 천리 밖에 만리 밖에 있다 하더라 들고나는 것은 한이 없습니다.

▲사회자: 오늘 질문 인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스님: 끝이 납니까? 죽어도 끝이 안 나는 것이 이 공부인데, 허허허.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생활 속에서 24간 살아가면서 들들 볶고 나가다가도 퍼뜩 생각이 나면은 딱 제거가 되고 생각이 잘 들아가는데 그렇게만 돼도 어디입니까?

사람이 살면서 자손들이 잘못되고 잘되고 하는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 워낙 부모의 마음들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마음들이 가라앉아서 잘 하면 자식들의 마음도 딱 가라앉아져요. 일어났던 마음도 가라앉고 다 착해지고요. 그러니까는 하여튼 잘 들 하십시오.

※위 법문은 2001년 5월 20일 정기 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www.hbtv.org나 한마음방송국)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늘 그리운 사람
버들강아지 잎망울 틔우고
풀잎끝 작은 숨결
해맑은 동자승의 자비심으로
그대가슴에 온기를 더할때
우연히 만난 그사람
내 생애 있어 최상의 도반이었다.
시간의 길
밖에서 사랑하게 된 그를
함께 있어 늘
그리워 하며...
원장 이 영 숙
▷ 승용차 운행: 전화약속 10분소요 역곡 1호선 하차→남부역쪽 1번 출구 (기업은행 정문)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원 장 이영숙 (법명: 無生子)
직통전화 : 031) 315-5429
대표전화 : 02) 522-5121
핸 드 폰 : 018) 277-5592

동방불교대학
하계 범패 특강 안내
한국불교태고종 종립 동방불교대학에서
각 사암에서 제반 일용의식 등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하계 범패특강을
아래와 같이 개설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다 음
1. 과 목 : 일용의식 (사물다루는 법 · 도량석 · 쇳송 · 상단 및 각단 예불 · 각종 불공의식 등), 각배
2. 대 상 : 교임 및 일반인 · 동방인 (재학생 및 동문)
3. 기 간 : 6월 25일~8월 25일 (2개월)
4. 강의시간 : 매주 火 · 木, 오후 6:30~8:00
5. 담 당 : 본교 범패과 교수
6. 수업료 : 교임 및 일반인 ₩150,000, 동방인 ₩100,000
7. 문의처 : 동방대 교학처 ☎ 02)763-0229 · 8536
2001. 6. 7.
교 무 과

밀양 – 얼음골 신비의
참 다슬기
당신의 "간"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질환)...
걱정되시죠?
토종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밀양얼음골 청정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정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주는
건강보조 식품입니다
밀양얼음골 (시냇물농원)
상담문의 (자료신청)
☎ 055) 355-5626

국제전화 00753
이제부터 국제전화 거실 때는
00753 만 누르세요!
한국 → 미국 : 180원/분
미국 → 한국 : 220원/분
안전하고 편리한 후불제 국제전화!
전세계 280여개 지역 서비스중
미국 로밍 개통! - 미국에서 한국으로 전화하시고 요금은 저렴하게 한국에서 후불로 내시면 됩니다

미 국	180원	유 럽	380원
캐 나 다	380원	러 시 아	690-770원
일 본	290원	호 주	420원
중 국	760원	뉴질랜드	420원

■ 가입비, 연회비, 기본료가 없습니다. 할인시간대 통화시 30% 할인
■ 이용문의 : 도시폰 고객센타
TEL : 00753 또는 (02) 511-6333
(주) 도화텔레콤 Dohwa Telecom
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5-18 영빌딩
http://www.dosiphone.net//
E-mail : helpdesk@dositel.com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5)834-1115~6
016)849-3858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 화엄경 (80권) - 1,500,000원
● 사 교 (7권) - 250,000원
● 법화경 (7권) - 180,000원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 부처님 복장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055) 932-7252
011) 545-7252 김창본 처사

찬불가 피아노 렛슨
방송피아니스트 도연
◇ 합창반주반 ◇
1. 체르니 수준을 치셨던 분
2. 기본적인 코드는 알아도 세련되게 응용이 안되시는 분
3. 악보는 잘 치실 수 있으나 멋있는 편곡 변화를 모르시는 분
4. 찬불가를 대충대충 치실 수 있는 분
5. 찬불가 합창단의 반주자가 희망이신 분
◇ 가요 · 팝송 · 가곡연주반 ◇
클라식과 재즈를 응용한 예술적 연주를 배우실 분
◇ 직업연주반 ◇
전공자 및 피아니스트 희망자
에드립 및 재즈와 클라식곡 실용음악을 응용
■ 연주를 들어 보신 후에 수강을 하셔도 됩니다
도연피아노학원 02-834-2270/011-663-2270

한방 다이어트로
살과의 전쟁 쉽게 끝낸다
모든 문제성 비만 고민 주저말고 어서 전화주십시요.
① 과립형으로 된 초간편 한방 다이어트로 해결해드립니다.
② 여기저기 아프고 체질적으로 살이찌십니까?
③ 오가피와 한방다이어트로 해결해 드립니다.
080-700-5700
02)444-4194

목조 건축물 보수
사찰 한옥, 통나무, 목조, 보수공사전문
1. 방충, 방염성 방부제
2. 목조, 석재 세척재
3. 부식된 (썩은나무) 목재 복원
02)3474-6232
http://www.dongwhaind.co.kr
(주) 동화특수 산업

『한의사 자격증 소지자 초빙』
■ 대한불교 조계종 미륵사에서는 신심있는 불제자로써 한의사 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고자 합니다.
▷ 자 격 : 취득년도 1998~2001년 사이 [비구, 비구니스님 특별히 환영]
■ 본 미륵사에서는 불교 한의원을 개설 운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젊은 한의사 불제자들의 적극적인 동참 있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미 륵 사** 청운 합장
053)651-9363

의정부 운불련
개인 콜 택시
전화 031)876-7070
Fax 031)876-8550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용 두 사
● 주 소 : 경북 영주시 장수면 호문리 325번지
● 주 지 : 법심(장분이)
● 소 속 : 천태종 구인사
● 전 화 : 054)637-1365

조계종 관음사(영남불교대학) - 진정한 대장부의 길 (※미혼, 고졸이상 만 40세까지)
행자모집 (남)
□ 시설완비한 행자원의 독립운영 및 자율존중
□ 전통적 수행을 통한 가장 엘리트 스님 배출(바루공양)
□ 스님이 되면 모든 공부와 포교의 충분한 뒷바라지
□ 본 사찰의 전 강의를 들으며 주지이신 우학스님(「저거는 맨날 고기묵고」의 저자)의 직접 지도
(※ 여행자는 본 사찰의 분원인 벌도의 수행관에서 공부함 - 또는 위탁교육)
행자원 011)506-2702 T.053) 474-8228
대한불교조계종 관음사(영남불교대학)
www.TVbuddha.co.kr
도심속의 대기람, 5만명의 화생 및 신도 포교와 수행의 새지평을 열고 있음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광 약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0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거재도 노자산 혜암사
총무 교무 재무 보살님 구함
055)633-2178

녹차 판매
지리산 화개야생녹차(햇차)
※ 공장도가 판매
※ 국산 발효차 판매
※ 한통도 주문 可
055) 883-9321
영목다전(지리산 화개)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6)342-7777

여종무원 구함
▷ 나주 불회사
061)337-3440

신명 수료한 기도, 공부, 수양하기 좋은 곳입니다. 암,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비만으로 고생하시는 분 연락바랍니다
경남 합천군 대병면 장단리 67번지 청강사
055)932-5706

도와드리고자합니다
• 불자에 큰뜻을 품은 흠통한 분을 뫼시고 수도하면서 봉사하고자 함
• 불교대학을 나와 법사로 활동중인 60대남
• 음양철학은 세계적으로 일인지이며, 명리학, 성명학, 침구요법, 서예등 포교에는 실력지임
• 인력이 필요한 암자나 포교당에서 봉사하고자 함
• 신도가 부족한 암자나 포교당도 관리해 드림
• 특히 비구니나 보살님이 운영하는데를 더 환영함
011)769-3854

도심 포교원 공양주 구함
신심 돈독한 불자
도봉구소재 영수암
02)992-1889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 50~60세
경기도 양평군
031)771-8210,8209
011)825-9589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 관음사
02)2234-3310

공양주보살님 구합니다
[행자도 모십니다]
▷ 천안 영락사
011)289-1635
041)584-6675

사찰 (터)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 포란형에 준 농림지
• 평당 : 4만원(절충가능)
• 평수 1170평 뒤는 산이고, 앞엔 저수지 보은읍에서 자동차로 7분~8분거리 대 가람토로 만들 수 있음. 큰길에서 농노 진입로 있음
(토굴도 있슴 - 가액 : 800만원)
장난전화 사절
011)9046-9903(스님직접)

사찰 (급)안내
• 위치 : 대구시 서구 평리 4동 (신평리 4거리)
• 건물 3층 법당(46평)
• 기존 시설 :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크기 3자), 문수 완불 52불, 관세음 보살 원불 30불, 대형 에어컨
• 요사채 : 방 3개 주방포함
• 가액 : 1500만원 보증금, 월 50만원 (가액 절충가능)
053)565-0430/016)875-0934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 사천 부근
• 특징 : 멀리서 남해 삼천로 앞바다가 희미하게 보이는 좌청룡 우백호가 뚜렷하고 소나무 숲이 좋고, 물이 아주 좋은 청정도량으로 신도가 많고, 기도도량으로써 아주 좋음. 스님이 해외이주 관계로 전세로 내놓음.
• 부지 : 약 3천평 법당 30평 요사채 50평 주지실 12평
• 전세가 : 1억 3천만원
주차장완비, 납골당, 노인복지시설을 하기좋음
011)844-9448

『고급 흑단 염주를 아주 저렴하게 드립니다』
(직접 가공 함) **덕림 산방**
이름 : 박정후
전화 : 061)337-4879
011)610-4879
주소 : 전남 나주시 다도면 덕림리 552

위치 좋은 곳 포교운 하실 분
• 위치 : 부산 광역시 북구 심만덕
• 3층건물의 3층
• 평수 : 40평 옥상사용가능,
• 구조 : 법당 방 2개 주방,욕실
• 보증금 : 2,000만원 월 30만원
입주즉시 법회 가능 시설 A급
•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055)852-9202

절터안내
• 위치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복장리
• 평수 : 약 7000평
• 가액 : 16억원
• 특징 : 뒤로는 울창한 송림과 앞으로는 청평호수를 내려다보는 동남향의 천하제일의 명당입니다.
문의:011)713-0233 김구봉

포교당 안내
• 위치 : 광명시 7호선 광명 지하철역 30m
• 평수 : 40평, 방 4개, 주방, 시설 A급
• 구조 : 삼존불, 지장전, 후불탱화, 지장탱화, 일로왕탱화, 신중탱화, 산신탱화, 주차시설 완비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 2,000만원
02)2618-0908

사찰 안내
• 33년 연혁의 전통사찰로써 자연경관이 함께 어우러진 천옥의 명지
• 청주의 관문, 영험 기도 도량
• 부지 : (사용평수) 500평
• 법당 : (목조) 20평, 삼성각 : (목조) 10평
• 요사채 : 1채(금생에 우리 절과 인과를 지으신 분께 사찰 인계 양도함)
043)232-2676
016)510-3455

사찰 안내
• 위치 : 울산
• 부지 : 약 450평 • 법당 : 18평
• 요사채 : 1개동 • 방사 : 5개
• 특징 : 산새 좋은 호수 (용왕 기도 도량)
• 전세 : 3,0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및 비품대 가격절충
※ 꼭 하실분 일단 답사 요망
052)227-3818
268-0352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광양시 광양읍 (마을 끝집)
• 대지 : 73평
• 건물 : 37평 1층 요사채, 2층 법당
• 가액 : 6,500만원 (융자있음)
• 시설 : 지하수, 뒤 : 공원, 교통편리
• 대상 : 비구니스님, 무속인, 사주보시는 분 가능
061)762-2630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태백산 도랑(읍 소재지)
• 부지 : 830평, 5층탑, 3층탑, 연못
• 건물 : 법당 25평, 요사채 30평씩, 각각 3채 산신각 증각 미륵부처님 지장전
• 가액 : 상담 후 결정
• 특징 : 기차역이 걸어서 5분거리 터미널 걸어서 3분거리 마당까지 차가 들어옴
011)753-0768

사 찰 안 내
• 위 치 : 서울
• 법 당 : 20평
• 요 사 : 70평
• 부 지 : 500평
• 가 액 : 5억
• 위 치 : 천안 광덕
• 법 당 : 30평
• 산신각 : 5평
• 요 사 : 18평
• 부 지 : 2,000평
• 가 액 : 6천
• 위 치 : 성남 분당
• 부 지 : 920평
· 차량진입가
· 도심 근접하면서 조용한 사찰 도량 임
• 가 액 : 5억 7천
※ 전국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 011) 713-5634

사찰 급 안내
• 위치 : 경남 마산시 회원구 혜성동 (서마산 IC 건너편)
• 대지 : 438평 (종교대지 등기필)
• 건물 : 법당 31평 (목조 3포, 5포, 금단청필)
• 요사 : 80평 (방10칸, 주방2칸, 거실)
• 명부전 : 10평 (단청필)
• 기타 : 주지실 사무실 포함 9평, 창고 약 4평, 주차장 100평 이상, 차량 무제한 주차가능
• 가액 : 8억 (건물완공 4년, 총공사비 12억 들었음, 대지 평당 90만원 이상감
※ 마산시내에서 개인사찰로 가장 큼. 노스님 신병으로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합니다.
☎055)294-4889 02)351-4471/018) 689-0455

사찰 안내
• 위치 : 군포시 당동 코너 요지
• 대지 : 120평 • 건평 :120평
• 특징 : 3면 도로 접함, 정원수, 정원석 유, 4층 건물 1층 다용도공간 (35평) 2~3층 방 3, 주방 거실 욕실구조 4층 법당, 주변인구 밀집 지역
• 가액 : 5억
016)356-1133
031)446-1133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전철역에서 5분거리 사찰 뒤 산
• 대지 : 73평,
• 건물 : 가건물 2동
• 입주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1억 6천
011)877-9009

포교당 안내
• 위치 : 중랑구 신내동
• 평수 : 40평 4층 건물 4층 방 2 주방1 (주차장)
• 가액 : 보증금 1,5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 2,000만원
• 특징 : 법당시설 완벽함 주변 대단위 A.P.T.단지 및 주택 밀집지역
02)436-3647
011)266-2378

사찰 안내
• 가액 : 2억 3천 (가격조정가능)
• 임야, 대지 : 5천평
• 대웅전 : 30평
• 요사채 : 1동 (20평)
전남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061)434-7724
019)660-6954
서산사

사 찰 안 내
• 위 치 : 수원시 소재
• 대 지 : 170평
• 법 당 : 35평(2층)
• 요 사 : 70평(1층)
※ 뒤는 산이며 대단위 아파트 단지 인접
• 양도가 : 3억 (대출가능)
• 위 치 : 경주시 산내면 소재
• 부 지 : 1600평
• 법 당 : 20평
• 요 사 : 30평
※ 산세좋은 기도 도량
• 양도가 : 1억 4천만원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 561-7791/018) 273-9390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북 평해 백암온천 소재
• 대 지 : 500평
• 법당 겸 요사 : 황토 목재 건축 30평
※ 산세 좋으며 기도 도량 임
• 양도가 : 1억 8천만원
• 위 치 : 충북 금산 소재
• 대 지 : 100평
• 법 당 : 인법당
• 요 사 : 빨간 벽돌 건축 30평
※ 비구니 스님들 수행처소로 아주 좋음
• 양도가 : 7천 5백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 561-7791/018) 273-9390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별장안내
• 위 치 : 경남 거창군 소재
• 대 지 : 600평
• 건물 2동 :
① 통나무로 3층 건축함 120평(큰방 5개)
② 빨간 벽돌 건축 25평 (큰방 4개)
※ 산세 및 물좋은 별장 토굴용도 임
• 양도가 : 3억 5천만원
02) 561-7791
018) 273-9390

사찰 안내
• 위 치 : 전남 보성
• 부지 : 4500평 법당, 목조건물 29평, 요사 50평
◆문화재 있음
• 가격 : 4억 5천만원
011)678-7691

아름다운 수양지
• 위치 : 충북 단양군 가곡면
• 총 1170평중 200평은 대지고 나머지는 밭으로 되어있는데 마당으로 사용 함
• 전통한옥으로 "ㄱ"자로 꺾어 지은 집 30평, 토굴이 7~8평
• 태양열 물탱크 등 설치
• 평생 살 집으로 지은 지 3년 되었으며 주변 경관이 뛰어남
• 가액 : 1억 1천만원
02)3216-2573

사찰 안내
• 위치 : 포항근교 외진 곳
• 가액 : 6,500만원
• 전세 2300만원
• 대지 : 175평(실사용 300평)
• 건물 : 1층 60평 방 5개 공양간 1개, 다용도실 10평 2층 25평, 법당
0502)789-6577

지리산 시조암 션원
• 위치 : 실상사 마천→백무동방향→가채마을 위
• 대지 : 605평 건평 32평 황토방 한옥 2채 자연식 탑 둘레 25m 텃밭 • 가액 : 1억 9천
• 특징 : 전체 자연석 조경 및 작설차 식제 경관수려, 주차 시설
• 합양 휴천 계곡 옆 토굴터 2천만원
055)963-4965
011)9542-9060

토굴 안내
• 경남 통영시 미륵도 관광특구 내 한려해상 공립공원 내 소재
• 근접지 : 해양 박물관 건립 중 달아공원 관광지 근접
• 산과 바다가 어울어진 자연 경관 수려
• 방생 및 기도터 적합
• 대지 : 73평 법당, 요사채 : 20평, 인접임야 사용가능
• 가액 : 5천만원
055)645-7487 / 011)9520-6947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남해 소재
• 평수 : 약 1,150평
• 법당 10평 요사 2동 주차장
• 가액 : 6천 5백만원
055)854-5205
017)856-3617

사 찰 안 내
• 위치 : 인천 • 부지 : 50평
• 법당 : 24평 • 요사 : 24평
• 가액 : 1억 8천
※ 전국 사찰 표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찰 안내(임야)
• 위치 : 가평 율길리 임야 (당, 만오천원)
37번 국도 130M(서파검문소 3km지점)
• 운악산을 뒤로하고 멀리 혹령산을 바라보는 남향의 명당터.
• 임야 : 만육백평
031)572-4747, 011)320-4060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011)9713-7680 (오후 6시이후)

암자안내
• 위치 : 김천시에서 거창가는 쪽
• 부지 : 500평 • 부처님 봉안
• 건물 2동 (법당 1, 요사채)
• 가액 : 6천만원
054)434-3392
011)9505-0101

사찰 (급) 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봉덕 3동 632-19
• 건평 : 30평(목조한옥,요사채)
• 대지 : 67평
• 가액 : 1억 3천만원
053)475-7504
011)819-7504
정법사(기존사찰운영)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동 545 팔봉산 순환도로 대구은행 연수원 건너편 대로변에서 300m 지점
• 건평 32평(방 3, 법당 1)
• 대지 : 100평
• 가액 : 8,000만원(가격절충 可)
054)975-7933
011)9596-0130
성불사(기존사찰스님직접운영)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여주
• 대지 : 500평, 답 : 1,150평,
• 대웅전 : 30평
• 지장전 : 20평, 요사채 : 40평
• 가액 : 5억 8천만원
• 특징 : 1) 지장기도 영험도량
2) 자연 경관 수려] 3) 경내석조불 및 조경등 여법하게 장엄하였음
석철전문용역 02)736-3578~9
금강기획 011)789-2255

사찰안내
• 위치 : 서울 망우동 • 법당 : 18평 방 3개
• 주방 수세식 화장실 욕실 구비12년간 포교한 곳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1500만원 절충가능
※ 각종 집기류 일체 제공(몸만 오시면 됩니다)
017)705-6531
02)2208-6098

사 찰 안 내 (포교당)
• 위치 : 대구광역시 소재
• 법당 : 50평 방 3칸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 1.500만원
• 위치 : 대구 광역시 소재
• 부지 : 1700평
• 법당 : 40평
• 요사 : 40평
• 가액 : 4억
좋은인연됩시다 **동진불사연구소**
02)326-1060 053)624-2992
011)817-2836 018)689-0455

불사와 관련된 모든 상담은 저희와 해주십시오. 보시하는 마음으로 성심껏 도와드립니다.
① 사찰의 양도, 양수 전세에 관한 일
② 법당, 요사채, 산신각등 건축에 관한 일
③ 불상, 석탑, 석등, 조경, 연못조성에 관한 일
④ 사찰의 담보대출, 스님의 신용대출 알선에 관한 일
⑤ 부전스님, 공양주보살님연결에 관한 일(회원제)

사암련 회장에 듣는다

'받는 종교'서 '주는 종교'로

영주·봉화사암련 정진스님



"불교도 이젠 '받는 종교'에서 '주는 종교'로 변해야 돼요. 청정한 수행가풍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복지불사와 보시행을 통해 깨달음의 사회화를 앞당기도록 사암연합회가 나서야 합니다."

내달 초 문을 여는 경북 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운영 주체로 선정된 영주 회장인 정진스님(각화사 주지)은 "초대관장을 맡은 청량사 주지 지현스님을 도와 관내 3,200여 장애인들이 새 삶을 준비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수탁체로 선정됨에 따라 사암연합회 차원에서 처음으로 위탁운영을 맡게 된 영주장애인복지관은 대지 1,078㎡ 건물 1,007㎡(305평)로 물리치료실 언어치료실 주간보호실 사호교육실 강당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지역내 장애인 복지증진에 큰 역할을 맡게 됐다. 영주봉화사암련은 경북도에 위치한 상주 냉림복지관, 문경 모전복지관, 구미 금오복지관, 경주장애인복지관과의 연계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사회복지 네트워크도 구축할 예정이다.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태백산 등 환경 보존도

지난 94년부터 14개 조계종 전통사찰이 중심이 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해 온 영주봉화사암련은 매년 영주 봉화사에서 별도의 봉축행사를 펼치는 한편 자비의 탁발 행사로 모은 보시금을 불우이웃에게 전달하면서 복지불사의 원력을 다져왔다.

김진영 시장을 비롯한 13만여명의 영주 시민 중 상당수가 불자인 이 지역의 정서를 바탕으로 대규모 복지시설을 맡게 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영주봉화사암련은 지난해 9월에는 각화사 뒤편 경내지에 위치한 태백산 사고지를 복원, 인근을 관광지화 하겠다는 경북도와 봉화군의 계획을 전국선원수좌회와 함께 막아냈다.

각화사 태백선원 등 이름난 천년 수행도량과 청량산 도립공원 등을 보전하는 한편 영주시내의 경북불교대학, 장애인복지관 등을 통해 교육·복지불사를 본격적으로 펼치겠다는 것이 정진스님의 포교방안이다.



◇7월초 문을 여는 영주시 장애인 복지관 전경.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인천에 불교회관 생긴다

17일 기공 2003년 완공…대법당 등 갖춰 '포교거점' 기대

전국에서 불교세가 가장 취약한 곳으로 평가받는 인천지역에 불교회관이 들어선다.

인천시 구월동 신시가지 현장부지에서 17일 오전 10시 개최되는 불교회관(조감도 참조) 기공식은 회관 건립불사 원만성취법회와 민요 및 풍물한마당 축제로 진행된다.

213평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평 150평 규모로 2003년까지 완공되는 인천불교회관은 불교대학 강의실, 신행단체 사무실, 대법당을 갖추게 된다. 인천불교회관은 지역포교 네트워크센터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도교육과



조직, 포교 의 거점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03년 1차완공 후 어린이집과 불자예식장이 들어서는 4,5층 건립도 추진할 예정이다.

4일 조계종 총무원장으로부터 인천불교회관 주지임명을 받은 일지스님은 "93년부터 인천지역에서 포교당을 운영하며, 지역불자들을 위한 교육포교도량이 필요함을 절감했다"며 "불교회관 불사가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지역의 스님과 불자들의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032) 523~9911.

인천불교회관 기공식에는 철웅(성전암 조실), 정대(조계종 총무원장), 상운(포교원장 직대), 현성(인천사암련 회장), 원광(불교회관추진위원장)스님을 비롯하여 최기선 인천시장 등 지역사암 주지와 불자 1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원우기자

홍천사 화엄경 독송

15일 일초스님 회향법문



군산 흥천사(주지 지환)는 5월 25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삼칠일(21일)동안 화엄경 독송기도를 봉행(사진)하고 있다.

흥천사 스님들과 신도 등 1백여명은 〈우리말 화엄경〉을 간행,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1시간 참선으로 시작, 9시 30분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9시 40분부터 오후 4시까지 〈화엄경〉을 독송, 신심 지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회향일인 15일에는 일초스님(동학사 전 강주)이 〈화엄경 39품〉에 대하여 법문을 할 예정이다. 063)445-3769 주용직 광주지사장

종단소식

조계종

보덕사 진신사리친견법회

포천 보덕사(주지 법해)는 14일 오전 10시 안산 연각사에서 이운해 온 부처님 사리 친견법회를 봉행한다. 부처님 사리 7과는 지난 95년 미얀마영사관을 통해 안산 연각사에 모셔진 것이다. 031)535~2268.

태고종

봉원사 생전예수재

종단 차원의 생전예수재가 25일 오후 1시 신촌 봉원사에서 봉행된다. 5월 5일 단오절에 열리는 이번 예수재는 전통불교 의식으로 봉행하게 된다. (02) 392-3008

천태종

순국선열 천도대법회



서울 관문사(주지 춘광)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3일 관문사 4층 옥불보전에서 3천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천도대법회를 봉행했다. 서초구 및 강남구내 전물 군경과 순국선열, 순직 경찰관 등 3천여 영가 위패가 모셔진 이번 법회에서 관문사 주지 춘광스님은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국난극복과 통일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진각종

창교 54주년 기념 불사

14일 오전 10시 서울 탑주심인당을 비롯 국내외 전 심인당에서 제54주년 창교절 기념 봉축 불사를 봉행한다.

총지종

중앙신정회 출범

각 교구 신정회들의 연합기구인 중앙신정회가 5월 18일 대전 만보사에서 정식으로 출범했다. 혜암 통리원장과 각 교구장, 총무부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초대회장에는 밀성관 부산 경남 교구 신정회장이 선출되었다.

양구·붕어섬서 순국선열 위령제

호국도솔사·강원불교련

육군 백두산 부대 사단 법당 호국도솔사(주지법사 정행)는 현충일인 6일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두타연에 위치한 양구전투위령비에서 법화종 서울교구 팔봉사(주지 월호) 신도와 군불자, 양구군수를 비롯한 각급 기관장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구지구 전투에서 산화한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는 위령제를 봉행했다.

위령제와 다과회 순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팔봉사는 부대장에게 공로패와 축구공 100여개를 전달했다.

한편, 강원도불교연합회도 5일 화천 붕어섬에서 '한국전쟁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을 위한 위령제 및 방생대법회를 개최했다. . 한명우 기자

원각사 아파트분쟁 해소

주공상대 소송도 취하

구미 원각사(주지 대혜)가 4년여에 걸쳐 끌어오던 주택공사와의 민원을 원만하게 해소했다.

원각사는 7일 "주택공사 대구경북지사가 97년 8월부터 전통사찰인 원각사의 전면과 우측 일반주거지역에 15층 규모의 아파트를 사찰과 협의없이 건립, 분쟁이 야기된 소송을 합의에 따라 취하함으로써 민원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원각사는 주택공사측이 시공사인 (주)영남건설을 통해 최근 요사채(식당과 강당) 지붕 골조공사에 들어가자, 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를 모두 취하했다.

김재경 기자

화엄불교대 도서관 개관



전주 화엄불교대학(학장 도영)은 5월 31일 학인들의 독서량을 향상시킴은 물론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불교도서관(사진)을 개관했다.

99년 개교 10주년을 기념하며 도서관 마련을 발원한 화엄불교대학이 마련한 책은 모두 4천여권. 2년여 동안 학인들이 1천여권을 기증했으며, 바자회 등을 통해 2천300여만원의 도서기금을 모아 3천여권의 불서를 새로 구입했다. 화엄불교대학 불교도서관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도 가능하다. 김원우 기자

홍법대상 범하스님·진민자씨

재단법인 불심홍법원(이사장 하도명화)은 6일 부산 금정구 신창농원에서 유주무주 고혼을 위한 제 11회 허공마지홍법바라밀제와 홍법대상 시상식을 거행했다.

홍법대상 시상식에서는 통도사성보 박물관장 범하스님과 한국청년여성문화원 진민자 원장에게 홍법대상 상금과 상패를 수여하고, 고려대 중어중문학과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법종스님 외 2명에게 장학금 2백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제에는 청화스님(고창 선운사 조실), 단청기능보유자 석정스님과 부산 감로사 주지 혜종스님, 통도사 부산 포교원 원장 심산스님,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동참했다. 오종욱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중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경전모임 '수트라' 창립

영남불교대학

영남불교대학(학장 우학)은 15일 오후2시 2층 도서관에서 경전읽기 모임 '수트라' 창립법회를 개최한다. 수트라는 학장 우학스님의 지도에 따라 한국대장경을 체계적으로 읽으면서 경전을 정리하는 교양 및 봉사단체이다. 김원우 기자

무의탁노인 200명 초청

목포불교대학

목포 불교대학(학장 법정) 제 3기 학인들은 2일 목포역광장에서 약 200명의 무의탁 노인들을 초청하여 노인잔치를 개최했다.

강금호 3기 회장은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실천하는 불자가 되려는 의미로 노인들에게 공양을 올렸다"며 "앞으로 한 달에 한번씩 노인공양 행사를 갖겠다"고 밝혔다.

목포=조윤오 지국장

스님께서 직접 만든 명가의 명향 - 釋氏香方 五分香·生氣香
석씨향방은 순수한 향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五分香 (오분향 - 각종 기도와 제사용)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불보살께 예불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례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지신·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요마·귀신·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갓집, 영안실)

生氣香 (생기향 - 건강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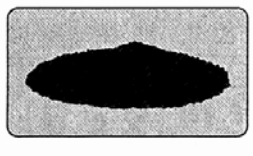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 당뇨·중풍·폐·간·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이고 향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 의식용 목욕향도 있습니다 ◆

석씨향방의 특허품 실용신안 등록출원 제 2001-00009755 · 특허등록출원 제 2001-00139149

석씨향방의 향기 한약방석
방석의 내용물은 쑥과 인동, 부자, 당귀,계피, 인삼 등 32종의 한약재료로 만들었습니다. 향기방석을 사용하면 냉이 없어지고 불쾌한 냄새가 사라지고 치질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내용물이 환(丸)으로 되어 있어 지압효과가 뛰어나고 오랜시간 앉아 있어도 피곤하거나 불편하지 않습니다.
▷ 크기 40cm×40cm ▷ 무게 1.5~2kg


32종의 한약재

석씨향방의 향기 한약베개, 방석
베개의 내용물 약재는 32종의 약재가 들어 있습니다. 24절기에 상응하는 약재와 팔풍을 막아내는 약재를 혼합하였습니다. "예" 국화베개, 박하베개, 메밀베개, 질병치료용 베개(두통, 중풍 등) 석씨향방의 베개는 향기롭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품의 사진은 베개를 펼쳐놓은 상태입니다. 디스크 환자에게 편안한 베개 또는 높고 낮게 마음대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 크기 70cm×40cm ▷ 무게 3~4kg

※ 모양은 다양하게 변형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중국 일본 수출 ※

국민은행 076-21-0658-363
농 협 100016-52-018512 예 금 주 : 김 남 서
☎ 02)538-7161, 016-756-2227 http//:www.hyangbang.com

진성석재 예술원

최고의 장인정신으로 뭉쳐진 '진성석재 예술원'은
모든 작품들을 오직 불심으로 제작하여 불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옥에관한 문의를 해주시면 정성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청옥, 황옥, 백옥)
※ 순옥 조각제품 주문 제작 환영 ※
▶ 대한민국 석공예 초대 명장

청 옥

백 옥

황 옥

장수거북(청옥·화옥)

단주 · 108염주 · 합장주

두꺼비(청옥·화옥)
■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용정리 155-2
(대표 : 이진억 명장 : 이석규)
■ TEL : 031-527-6778 (팩스겸용)
■ H P : 011-9046-6981
■ e-mail : LJU729@hanmail.net

청도에 '대안학교' 연다

재가연대, 2003년 정식개교

7월부터 수련회 · 주말학교 등 운영

전북 남원 실상사 작은학교에 이어 경북 청도에도 불교 대안학교가 생긴다.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는 지난 99년 폐교된 중남초등학교(매전면 지전리 101번지) 교사(校舍) 등에 대한 대부계약을 4일 체결하고 (가칭)청도평화학교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3월부터 '생태공동체 초록마을'을 조성할 계획으로 준비작업을 벌여온 재가연대는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불교 생태공동체 건설에 나서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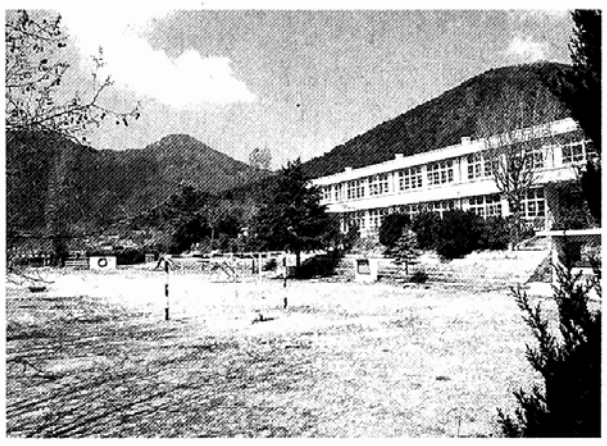
이번에 인수한 교사는 토지 2,300평에 건물 7동(교실 1동, 사택 3동, 창고 1동, 화장실 2동)이며, 대부기간은 3년으로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 생태공동체 초록마을을 추진을 위한 센터 역할을 하게 될 청도평화학교는 오는 2003년 정식인가후 개교에 앞서, 내달부터 수련회 및 주말 운영될 예정이다.

재가연대는 이를 위해 청도평화학교에서 △대안학교 설립에 따른 준비 프로그램(대안교육 지도자 양성교육) △영남지역 청소년 수련 △NGO 둔화런넵 프로그램 △청소년 대안교육 프로그램(자연 · 역사학교) △지역주민 봉사(의료봉사 및 농기계 수리)센터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내에 매전면 일대 2만여평의 땅을 매입해 생태공동체 마을을 조성할 계획인 재가연대는 이 대안학교를 중심으로 함께 생활할 귀농가족을 모집, 수행과 농업을 함께 하는 대안적 생활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방침. 이 초록마을이 조성되면 인드라망생명공동체의 생태산촌마을과 함께 대표적인 불교 생태마을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초록마을 상임준비위원인 이영춘 재가연대 사무처장은 "농촌에서 공동체운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우해서는 무엇보다 현지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면서 "대안학교와 농기구 수리센터 등을 통해 농민들과 한마음이 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내달부터 문을 여는 청도평화학교 교사와 운동장 전경.



"비 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전국적으로 가뭄피해가 갈수록 극심해 지는 가운데 진각종 총본산이 소재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탑주심인당(주교 도흔)이 6월 월초불공을 특별 기우(祈雨)불공으로 봉행했다. 탑주심인당 신도들은 4일부터 10일까지 매일 오전 10~12시 모든 진언행자들의 원력으로 하루속히 단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서원했다. 사진 = 고영배 기자

조계사 수행권 논란 '일단락'

삼성생명 빌딩 설계변경…시민쉼터 조성 합의

사찰 인근의 고층빌딩 건설로 도심 전통사찰의 신행 및 환경 피해 논란을 일으켰던 조계사 주변 삼성생명 빌딩문제가 일단락됐다.

조계사(주지 지홍)는 7일 "삼성생명측과 지난 5일 협의를 갖고 현재 막바지 건축중인 수송동 사옥이 도심 전통사찰의 환경 피해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설계사항을 변경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서에 따르면 조계사와 삼성생명측은 종로지역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시민의 쉼터로 가꾸어간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특히, 도심 전통사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조계사의 요구사항을 삼성생명측이 수용하기로 했다.

특히, 삼성생명측은 수송동 사옥의 15층과 16층의 일부를 철거하는 한편 사옥 주변 공원 조성과 함께 건물 외장재를 반사율이 적은 특수유리로 변경하기로 했다. 조계사와 삼성생명은 앞으로 수송동 사옥과 조계사, 우정공원을 잇는 시민쉼터를 조성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

이번 조계사의 건축시정 촉구운동은 도심 전통사찰이 인근 난개발로 인해 문화보존에 피해를 받아 오면서도 제한적인 법적보호 이외에 별다른 보호조치가 없어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점차 잃어가고 있는 시기에, 사찰과 시민이 함께 힘을 모아 문화보존 운동을 펼침으로써 뜻깊은 결실을 맺은 중요한 전례가 될 전망이다.

김재경 기자

해인사 청동대불 4일 기공

"대형불사 그만" 반대여론 거세

합천 해인사(주지 세민)는 '세계 최대' 청동 대불 조성에 대한 거센 반대 여론(본지 321호 1면 '뉴스 속 뉴스' 참조)에도 불구하고 4일 해인사 성보박물관 옆 공터에서 청동 석가모니 좌불 건립 기공식을 거행했다. 사부대중 1천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개최된 기공식은 삼귀의 반야심경, 방장 법전 스님 법어, 도문스님(대성사 조실) 격려사, 주지 세민스님 인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해인사에 따르면 높이 33m 좌대 10m 등 총 높이 43m의 좌불은 오는 2003년 3월 완공된다.

"대불조성과 함께 재가자를 위한 종합불교수행시스템 건립불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해인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대불 조성에 대한 비난여론은 갈수록 고조돼 해인사와 조계종 홈페이지 등에는 8일 현재 3백여 건의 우려와 반대 의견이 게시됐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해인사가 주변 환경을 훼손할 것이 명약관화한 대형 불사를 추진한다면 가야산 관통도로, 골프장 건설 등을 반대할 명분이 없어진다"고 우려하며 "법보종찰이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초대형 대불건립 불사를 그만두고 한국불교 발전에 꼭 필요한 인재 · 복지 불사에 매진하라"고 주장했다.

이경숙 기자

"사형제 폐지" 한목소리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인간생명의 신성함을 강력히 옹호하기 위한 것이며, 생명권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모든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이다." 불교 천주교 등 6대 종교는 2일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연합행사를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사형제도 폐지, 우리 모두의 힘으로' 라는 주제아래 사형을 주제로 한 비디오 상영과 전직 교도관의 사형집행 현장에 대한 보고, 사형수였던 이도행씨의 증언, 수덕사 주지 법장스님의 의견표명, 진혼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원우 기자



◇일산 노인종합복지관은 5월31일 중국 노간부대학과 자매결연식을 가졌다.

일산 노인복지관-연변 老 간부대학

한-중 노인시설 자매결연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에서 운영하는 일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능인)이 지난 5월 31일 중국 길림성 연변 조선족자치주 노(老)간부대학(학장 김철진)과 자매결연 조인식을 갖고, 본격적인 교류에 나섰다.

일산노인복지관은 7월말경 노간부대학 회원들과 길림성 노간부국 관계자를 한국에 초청하기로 했으며, 연꽃마을은 오는 10월 한국에서 열리는 '연꽃마을 노인작품 전시회'에 노간부 학생들의 작품코너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재경 기자

"공원내 사찰 오폐수 시설 상가 · 마을 연계 설치추진"

조계종 사회부 기자간담회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부장 양산)는 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립공원내 사찰의 오폐수시설 설치를 주변 상가와 마을을 연계처리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부 김용구 주임은 "사찰단독으로 오폐수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리할 능력도 없고, 오폐수 처리 효율성도 떨어진다"며 "밀양대 홍성철교수와 이병인교수가 준비 중인 보고서를 토대로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의무사찰에 대한 오폐수시설 설치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청련암 경내지 도로개설 안된다"

문화부, 수원시에 통보

수원 청련암 경내지내 도로 개설 계획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문화관광부는 최근 북수원권의 교통난 해소를 이유로 청련암 경내지에 도로개설을 강행해 온 수원시에 전통사찰보존법을 근거로 해 불가의견을 통보했다. 문화부는 "청련암 경내지 통과 도로는 청련암 전각에서 불과 20m 거리를 두고 통과해 전통사찰의 수행환경 및 문화재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권고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청련암 경내지를 통과하되 도로를 지하화하고 지상공간을 조경식재하는 소음저감대책과, 경내지를 통과하지 않는 새로운 노선을 개설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美 하버드대생 10명 능인선원서 불교 강의

하버드대 학생들이 능인선원에서 세계불교를 소개한다.

지난해 능인선원장 지광스님의 하버드대 강연을 들은 하버드대학 석 · 박사 과정 학생 10명은 18일 능인선원을 방문, 두 달에 걸쳐 신도 100여명에게 미국 불교의 현황과 세계불교의 전망에 대해 강의한다. 이들은 신도들에게 미국 유학 상담도 할 예정이다.

데이빗 쥬닛가 하버드대학원 종교학회장이 18~22일과 25~29일 매번 90분씩 영어로 불교를 강의하며, 수미 런던 하버드대불교학생회장이 7월중 방한해 강연할 예정이다. (02)577-5800

김재경 기자

제19회 교정대상 법장 · 재신스님





법무부와 대한매일신보사, 한국방송공사는 공동으로 제정한 제19회 교정대상에 수덕사 주지 법장스님(사진 위)과 봉원사 재신스님이 4일 선정됐다.

수상자 17명 가운데, 교정대상 본상 자비상을 수상한 법장스님(생명나눔실천회 이사장)은 지난 86년부터 홍성교도소 종교위원으로 활동하면서 '1인1교 갖기 운동'을 펼쳐, 87년부터 법회를 43회에 걸쳐 8,300여명에게 실시하고 책 등 570여만원 어치를 보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97년부터 불우한 수용자들의 가족 70여명에게 쌀을 지원하기도 했다.

교정대상 특별상 자비상을 수상한 재신스님(영등포교도소 종교위원)은 28회에 걸쳐 225명의 불우 수용자들에게 영치금 450만원과 내의 80벌을 지원하고, 출소자 7명을 택시기사 등으로 취업 시킨 공로가 인정됐다. 비구니 스님으로서 30여년 동안 무의탁 고아 15명과 서울 신촌 봉원사에서 함께 살며 분가를 시켜주는 등 고아들의 대모 역할도 해 더욱 귀감이 되고 있다.

김재경 기자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탐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탐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탐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4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태아영가의 천도는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수 있는 기도방법
⑫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天藥 토종 오가피의 신비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줌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藥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융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 상담 : 02)454-3733

산천초목도 설법하는 無位眞人의 거처

백두대간 속으로 〈36〉

오대산 〈1〉



◇응복산 오름길에서 바라본 오대산. 하늘금 왼쪽에서부터 두로봉, 상왕봉, 비로봉, 호령봉이 이어진다.



◇북대(미륵암) 어름에서 바라본 오대산 정상연봉. 고승의 풍모를 닮은 후덕한 형상의 오대산은 요즘같은 가뭄에도 골짜기에 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수목이 울창하다.

"佛法 길이 번창할 땅" 삼국유사 기록

1만 문수 상주…峰마다 삼매에 든듯

'삼라만상이 다 부처의 몸'이라고 하지만, 범인의 입에 함부로 올릴 말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 밝은 이들의 절창에 덥벙 빠지는 것으로 '법신(法身)'의 공휘를 느낄 수 있다.

산 푸르고 물 흐르고
새 울고 꽃 피네.
이 모두는 줄 없는 거문고 소리
늙은 중은 하염없이 바라보네.

고려 때의 선사, 백운 경한(白雲景閑, 1298~1374) 스님의 노래다.(白雲和尙語錄에 전함.) '소리'를 '본다'? 그 뜻을 머리굴려 알 일이 아닐 성싶다. 백운 스님보다 앞선 한 스님의 노래를 통해 우리 또한 그것을 '보자'.

신기하고 신기하다
불가사의한 무정물의 설법.
귀로 들으려 하면 도무지 알 수 없고
눈으로 들어야 참으로 안다.

동산 양개(洞山良价, 당나라, 807~869) 스님이 운암 담성(雲巖曇晟, 782~842) 스님으로부터 산천초목도 설법을 한다는 말씀을 듣고 문득 깨친 다음 그 심회를 노래한 시다.(傳燈錄 15 洞山良价章에 전함.)

사실 이런 종류의 시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을만 못하다. 궁극에 도달한 말이 대부분 그렇듯이, 이해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전해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오대산으로 간다. 눈으로, 무정설법을 들으러.

거기, 월정사나 상원사가 없다 하더라도 오대산은 불교의 성산이다. 비로봉 아래 적멸보궁과 중대(사자암)를 중심으로 동대(관음암)·서대(수정암)·남대(지장암)·북대(미륵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디 한 군데도 모나 데가 없는 비로봉(1563m)·호령봉(1560m)·상왕봉(1493m)·두로봉(1422m)·동대산(1434m)은 전체의 앉음새가 한 송이 연꽃과 같고, 각각의 모습은 삼매에 든 고승의 풍모를 지니고 있으니, 그 형상만으로도 오대산은 선불장(選佛場)인 것이다.

오대산은 높되 찌를 듯 솟아오른 산이 아니다. 비슷한 높이의 봉우리들이 어깨를 맞대고 있기 때문에 수직적 상승감도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높낮이라는 상대적 우열을 우스운 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무위진인(無位眞人)'의 거처가 된다.

오대산이 부처의 땅으로 인식된 때는 신라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국유사〉 탑상편을 보면, 이 산을 문수보살이 머무는 곳이라 한 것은 자장법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면서 그 내력을 소상히 적고 있다. 줄여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장법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인 당나라 태종 정관 10년 병신(636)에 문수보살의 진신을 보려고 중국의 오대산으로 갔다. 처음에 문수보살의 석상 앞에서 이레 동안 기도를 하니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서 네 구절의 게송을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범어로 된 것이어서 그 뜻을 전혀 알 길이 없어 수심에 잠겨 있는데, 한 승려가 나타나서 번역을 해주었다. 그런 다음 가사 한 벌과 부처님의 바루와 머리뼈 한 조각을 주면서 "그대 나라의 동북방 명주(지금의 강릉) 경계에 오대산이 있는데 1만의 문수보살이 언제나 그곳에 머물고 있으니 가서 뵈십시오." 하고는 홀연히 사라졌다. 다시 자장 스님은 용의 청을 받아들여 이레 동안 공양을 하자 용이 나타나 '어제 게송을 전하던 노승이 바로 진짜 문수보살입니다." 하고 말했다.

이것 말고도 삼국유사에는 오대산과 문수보살에 관한 기록이 여럿이다. 그만큼 불연이 깊다는 말이겠다. 특히 일연 스님은 지관(地官)의 말을 빌려 '나라 안의 명산 중에서도 이곳이 가장 좋은 땅이므로 이곳은 불법(佛法)이 길이 번창할 곳이다…"고 적고 있다. 또한 삼국유사에는 오대산을 언급하면서 "이 산은 곧 백두산의 큰 줄기…"라는 말을 몇 차례나 반복하고 있다. 고려시대부터 이미 이 땅의 으뜸즐기인 백두대간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좋은 예라 하겠다.

백두대간 상의 오대산은 노인봉(1338.1m)과 동대산(1433.5m) 사이,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과 평창군 도암면을 넘나드는 백두대간의 고갯마루인 진고개(960m)에서 시작된다.

진고개에서 동대산 정상까지는 한번의 내리막도 없이 계속 키를 높인다. 그렇지만 고방아를 찧을 정도로 가파르지는 않다.

동대산에서 두로봉으로 이어지는 숲길은 때묻지 않은 숲의 원시적 생명력으로 충만하다. 훤칠한 참나무 숲 아래로 다양한 식물들은 초록 비단을 펼쳐놓은 듯하고, 능선 이든 골짜기든 푸른 기운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린다. '그린 샤워'라는 말이 절로 떠오르는, 참으로 무성한 숲길이다. 오대산 자체가 흙산인데다 다른 명산에 비해 탐방객들의 발걸음이 산보다는 월정사나 상원사, 중대, 적멸보궁 쪽으로 집중되는 때문에 비교적 훼손이 적은 결과가 아닌가 싶다. 두로봉을 오르면서는 오대산 연봉의 동쪽 사면을 한눈에 품을 수 있는 즐거움도 맛볼 수 있다.

두로봉서부터 백두대간은 오대산을 벗어난다. 하지만 오대산은 두로봉이라는 연결고리만으로도 온전히 백두대간의 산일 뿐 아니라 대간의 품새를 한결 넓혀 놓는다. 한편 두로봉에서 서남쪽으로 상왕봉, 비로봉, 호령봉으로 이어지는 오대산 줄기는 계방산과 태기산을 일으켜세우고 양평의 용문산까지 이어지면서 남한강과 북한강의 물줄기를 나눈다.

두로봉에서 곧장 북진하는 백두대간은 만월봉(1280.9m) 전에서 봉우리(1210.1m) 하나를 치켜올리고는 서북쪽으로 허리를 틀어 응복산(1359.6m)과 약수산(1306.2m)으로 이어진다.

뗏뗏이 플먹인 두루마기를 차려입은 선비풍의 응복산에서 남동쪽을 바라보는 눈맛도 근사하다. 오대산은 물론 동대산과 황병산까지도 눈높이로 걸린다. 또한 이 일대에서는 산나물꾼이나 심마니들의 흔적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산삼이 많이 나는 곳으로 이름이 높은 곳이라 한다.

약수산에서 구룡령(1013m)까지는 30분 남짓 가파른 내리막 길을 구르듯 걸어야 한다. 최근 구룡령에는 도로 위로 생태 이동통로가 생겼다. 하지만 흙으로 살짝 덮어 나무 몇 그루 심어 놓은 콘크리트 덩어리 위로 어떤 동물이 지나갈지 자못 의심스럽다. 말이 좋아 산림문화회관이지 휴게소와 다름없는 시설물이 생태계의 근본적인 걸림돌임을 왜 모를까? 2보 후퇴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1보 전진. 이런 것을 가지고도 진전된 생태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글=윤제학 기자
사진=손재식(사진작가)

매일 아침 나무아미타불을 칭명합시다. 한국불교의 전통(傳統)을 이어, 정토세계(淨土世界)를 열어 갑시다.

제6차 전국 염불만일회 2001년도

설악산 백담사 여름 성지대회 공고

— 매일 나무아미타불을 부릅시다 —



〈설악산 백담사〉



△등공대 염불정진 성지순례

전국 염불만일회에서는 2000년부터 염불 10대성지를 찾아 작년에 전남 대원사 순례하였고 2001년도는 아래와 같이 강원도 설악산 백담사에서 여름 성지대회를 마련합니다. 마지막 남은 건봉사 등공대 참배합니다. 전국에 계신 염불만일회 회원과 불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 일 시 : 2001년 8월 6일 ~ 8일 (2박 3일)
◇ 장 소 : 강원도 설악산 백담사
◇ 내 용 : 염불정진의 본행사 및 건봉사 등공대 성지순례
◇ 신청대상 : 개인, 사찰, 단체, 가족단위
◇ 참 가 비 : 35,000원(염불조끼, 교재 및 식사제공)
◇ 신청방법 : 전화신청 후 은행계좌에 입금
◇ 교 통 편 : 개인별 설악산 백담사 오후2시 도착

서울·경기지역 출발 안내

○ 출발장소 : 서울 조계사 앞
○ 출발시간 : 2001년 8월 6일(월) 오전 7시
○ 교통편 : 관광버스 (단, 동참자는 참가비·교통비 포함 60,000원을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건봉사 성지대회

전국 염불만일회 회원 모집

▶ 회원자격 : 염불수행을 원하는 모든 분
▶ 회원대상 : 사찰, 단체, 개인별로 가입
▶ 회원회비 : 가입비 2만원(매년회비 1만원)
▶ 가입방법 : 전화 및 우편(사무국 : 02)732-1215~6)

회원이 되시면

▶ 아미타불의 수행방법을 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염불만일회 소식을 가정에서 통신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염불일일기도 수첩 보내드림)
▶ 전국 대도시별로 회원 관리 혜택이 주어집니다.
▶ 평생동안 염불만일회 회원이 됩니다.
▶ 법보신문에 매주 고유번호와 성명이 게재됩니다.

회원가입 은행 입금계좌 (예금주 : 염불만일회)

국민은행:023-21-0667-309 조흥은행:390-04-249351
농 협:053-02-128104 우 체 국:010041-0384727
외 환:173-18-10454-9

全國念佛萬日會

110-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0
☎ (02)732-1215~6 / FAX (02)732-1207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